

忠靖公 馬天牧 將軍



곡성문화원



마천목 장군의 영정



충정공 사당



회령군 마영(馬榮)묘소
(장흥군 용산면 용두산)



충정공 마천목장군 묘소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장흥군 마승(馬勝) 묘소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영모제(永慕齋)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충정공 신도비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감진 병영에 있는 사적비





장흥마씨 중앙회관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충현사 외삼문
(충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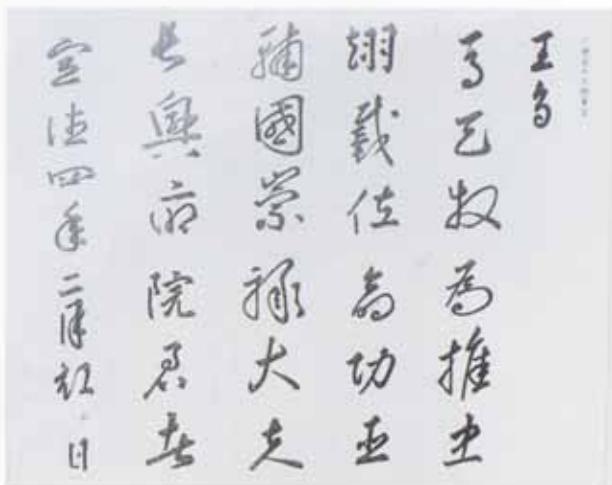
유림들의 충정공
제향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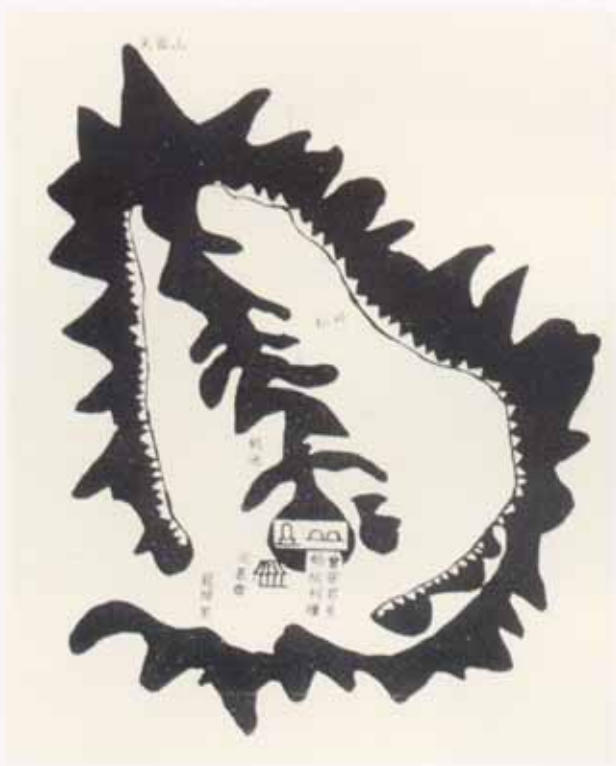
충정공묘소 원경



영모제기(永慕齋記)



보국송록대부
장흥부원군에
임명된 왕지



도선산도
(장흥군 용산면 용두산)



황정궁 모욕산도
(곡성군 석곡면 방주동)

발간사



김학근
(곡성문화원장)

우리 곡성은 英雄豪傑이 종종 배출하여 국가의 간성으로 활약한 분들의 명성이 천추에 빛나면서 그 가문과 우리 곡성 고을을 빛내 주고 있는 이가 한 두분이 아니다. 그중에서 대표적 인물을 소개하면 高麗 太祖王建을 도와 고려건국을 있게한 開國功臣이자 平山申氏始祖인 壯節公申崇謙將軍과 朝鮮朝 역성혁명의 기틀을 구축하는데 공헌하여 佐命功臣이 되신 忠靖公 馬天牧장군을 들 수 있다.

두분이 비록 生沒年代는 다르지만 새왕조를 창업하는데 참여했거나 창업된 왕조를 굳건하게 보호하여 사직의 안보에 공헌한 업적은 같다고 할 수 있기에 먼저 큰 줄기를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 서술코자하는 것은 충정공 마천목 장군의 생애와 함께 우리 고을에 끼친 위업을 소개함으로써 후인들이 장군의 업적을 흠모하고 그 혼을 이어받아 국가의 보존과 민생의 안녕에 헌신할 수 있는 정신적 교훈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충정공은 1358년 고려 공민왕 18년에 長興郡茅原村眞泉에서 會寧君 榮과 平山申氏 大將軍用材의 따님사이에서 탄생하고 15세되던 해에 부모를 따라 本郡梧枝里 堂山村으로 이거해옴으로써 곡성사람이 되었는데 공의 위대한 업적이 구전되어 오거나 문헌으로 전해오는 것이 많지만 그 많은 행적중에서 가장 큰 것은 충효가 겸비되었다는 점이다.

첫째 공의 효성은 너무도 지극하고 간절하여 神(도깨비)을 감동시켰다는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이 너무 크다. 그러므로 이 지방에 뿌리 내린 효사상은 천추만대에 전해질 가장 귀중한 정신적 가치관이 함축되어 있다.

섬진강 상류 두계천(杜溪川)에 얽힌 전설은 너무도 유명하여 마천목장군 도깨비

살로 통한다. 공의 효성에 감동한 도깨비들이 돌로 강을 막아 어살을 만들어서 공이 많은 고기를 잡아 부모를 봉양했다는 것이다. 6백여년의 세월이 흐르는동안 홍수등 갖은 수마를 이겨내고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니 神의 작품이 아니면 과연 그럴겠는가?

谷城邑誌나 南原邑誌에 마천목이 어살을 막아 부모를 봉양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거나 神作傳説은 至誠感天이란 말을 실감케 하는 대목으로서 美風良俗의 선양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둘째는 관계에 투신하여 일신의 영달보다는 국가 안정과 정치 질서 정립에 헌신한 것을 들 수 있다. 공께서 1381년 24세의 나이로 무관으로 진출하여 1394년 37세되던 해에 정7품인 司直의 자리에서 봉직하였는데 이때는 고려가 망하고 李成桂가 조선조를 세우고 태조가 된지 7년차 되었으나 아직 왕권이 확립되지 못하여 왕자들끼리 왕권쟁탈을 위하여 골육상쟁의 피를 흘린다. 이때 공은 조선의 앞날은 太宗大王이된 정안대군 방원(芳遠)의 편에 서는것이 臣子の 도리라 여기고 1, 2차 왕자난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좌명공신의 반열에 오른다.

제1차 王子亂은 방석의 난 또는 정도전의 난이라고 하는데 태조의 계비 神德王后康氏 소생인 방석(芳碩:八男中 여덟째)을 세자로 책봉하고 이어서 私兵을 혁파하려는 정도전, 남은, 심효생등에 불만을 품은 방원(神懿王后的 제5남)이 사병을 풀어 이들을 제거한 亂이며

제2차 王子亂은 芳幹(芳遠의 親兄)의 亂 또는 朴苞의 亂이라고 하는데 王權에 野心이 많은 방간과 제1차난때 큰 공을 세웠지만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朴苞가 芳遠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하고 芳遠에게 왕권획득의 계기를 앞당겨준 亂이다.

공은 제1차 왕자난후에 大護軍에서 折衝將軍(정3품)으로 승진되면서 武人的 재질이 세상에 알리게 된다.

태종대왕이 노모봉양을 위하여 전라도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로 보냈다가 4년後 59세되던 1416년에 初代 전라병마절제사로 부임하여 전라병영성을 축조하고 61세때에 다시 內侍衛節制使로 옮기고 世宗朝에 병조판서 관우군 도총제부사(判右軍都總制府使) 집현전대제학겸삼군부사(集賢殿大提學兼 三軍府使), 추충익대좌명공

신숭록대부장흥부원군(推忠翊戴佐命功臣崇祿大夫長興府院君), 추충익대좌명공신숭록대부영돈령부사겸중추부사(領敦寧府使兼中樞府使)로 승차되었다가 72세때에 벼슬길에서 물러나와 향리에서 쉬시다가 1413년(세종 13) 정월 25일에 74세를 일기로 영면하게 되니 朝野가 애도하였고 특히 세종대왕께서 크게 슬퍼하시고 예조에 명하여 예장(禮葬)토록하고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을 추증하고 충정(忠靖)의 시호를 내렸다.

공의 묘소는 본군 석곡면 통명산 남쪽 10리 지점인 방주동에 있는데 夫人 정혜택주 경주이씨의 묘소는 공의 묘소 바로 밑에 있다. 1438년에 부묘(不祧廟=不祧之典)의 은전이 下命됨에 방주동에 충정묘(忠靖廟)를 세우고 위패를 모셔오다가 1445년부터 영정을 모시고 재향을 받들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공은 가정에선 알뜰한 효자로서 가문을 지켜오기에 한점 부끄러움 없었고 나라에서는 국기를 바로 세우며 자신의 영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무리들을 물리친 대의명분에 한점 사사로움이 없었던 그의 생애는 진실로 천추만대에 추앙받아야 마땅할 일이다. 이렇듯 훌륭한 품격을 갖춘 큰 인물이 우리 곡성땅에서 자랐고 그 많은 일화를 이땅에 뿌려놓고 마지막 그 체백이 우리땅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의 빛나는 업적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또 전하여 오늘을 이어 수백년을 이어가야 할 불세출의 영웅 충정공 마천목장군이 우리 곡성분이란 사실을 제삼인식하고 그 얼과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날로 깊어가는 도덕불감증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바이다.

끝으로 文獻의 飢譯과 編輯에 賢勞하신 公州大學校 史學科 教授 李海濬博士에게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축 간 사



고 현 석
(곡성군수)

우리 곡성군은 예로부터 인심이 순후하고 충의를 숭상하여 많은 애국 선열들이 배출되었으며, 고을고을에 조상의 숨결이 담겨 있는 유서 깊은 고장으로 태안사, 도림사를 비롯한 유적지와 보물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인 고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지역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선현들의 삶의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투혼과 의지를 교훈삼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좀더 의미있고 값지게 영위하려는데 그 참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지역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 문화유산을 발굴·보존 계승하여 향토문화의 맥을 이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우리 곡성을 빛내주고 국가의 간성으로 활약한 위대한 영웅호걸들 중 조선조 역성혁명이 기틀을 구축하는데 공헌하여 좌명공신이 되신 장흥마씨의 중시조 충정공 마천목 장군이 우리고장 출신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때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역사를 바로 알리고 문혀 버릴 뻔한 공의 빛나는 업적들이 책으로 발간되어 참으로 기쁘고 다행스럽기 그지없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군민들의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길잡이가 되고 장흥마씨의 후손 및 사당을 방문하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책의 간행을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아주신 김학근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축간사



유영호
(곡성군의회회장)

예로부터 우리 곡성은 우리 민족사의 발전에 정신적 지주역할을 한 영웅 호걸이 많이 배출되어 온 고장으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효열의 고장이요 충의의 산실임을 자부하여 왔으며 그래서 충효와 의절의 고장이라 널리 알려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조상의 얼과 지혜를 현대에 재 조명하여 군민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정착시키는 향토문화의 발전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들은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위대한 조상들의 위업중 유독 마천목 장군의 행적을 들 수 있는데 공은 이성계가 조선조를 세우고 태조가 되었으나 왕권이 확립되지 못하여 왕자끼리 왕권쟁탈을 위해 골육상쟁의 왕자난이 일어났을 당시 1,2차 평정하는데 큰공을 세워 좌명공신이 되신 충정공 마천목장군이 우리 고장 출신이란 사실을 아는 군민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소멸되어 문혀버릴 뻔한 공의 빛나는 업적등이 책으로 발간되어 빛을 보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책을 발간하기 위해 애쓰신 김학근 문화원장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일에 관계하신 여러분과 군민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차 레 □

■ 발간사 · 김학근(문화원장) / 9

■ 축간사 · 고현석(곡성군수) / 12

■ 축간사 · 유영호(곡성군의회회장) / 13

1. 마천목 장군의 가계와 출생	17
나라의 기둥이자 초석	18
곡성 오지 당산촌으로 이사	20
장흥마씨의 가통을 이어받아	23
이름날렸던 장군의 조상들	25
2. 남달랐던 청년시절	29
하늘이 지어준 이름 ‘天牧’	30
두계천의 도깨비와 마천목	32
3. 새롭게 뜨는 별	35
24세에 무관으로 진출	36
1. 2차 왕자의 난과 마천목 장군	38
좌명공신의 반열에 오르다	41
4. 전라병영성과 마천목 병사	51
59세의 나이로 부임한 전라병마절도사	53
전라 병영성의 전략적 지위	55
전설깃든 마천목 장군의 병영성 창설	56
병영에 건립된 장군의 사적비	59

5. 온나라가 애도한 장군의 죽음	61
노장 마천목의 화려한 관력	62
온 나라가 애도한 장군의 죽음	64
곡성에 있는 묘소와 충정묘	68
6. 장군의 뒤이은 후예들	75
장남 문간공파의 인물	76
차남 조은공파의 인물	83
3남 현감공파의 인물	86
〈자료편〉 마천목 장군 관련자료와 유적·유물	89
1. 마천목 장군의 행적기록	92
(1)年譜 (2)神道碑文 (3)行狀 (4)墓碑銘	
(5)梧川遺事 (6)杜溪箭記事 (7)谷城誌 杜溪箭	
(8)神虎報恩說 (9)全羅兵營設城記事	
2. 마천목 장군의 유문과 유물	105
(1)충정공 유시 (2)왕지 (3)공신녹권·교서	
3. 마천목 장군 관련 유적	122
(1)충정묘 (2)묘소와 永慕齋 (3)신도비	
(4)康津 兵營城과 마천목장군 史蹟碑 (5)의성 승절사(화산서원)	
(6)장흥 충현사 (7)강진 충정사 (8)청원 충정사	

마천목 장군의 가계와 출생

나라의 기둥이자 초석
극성 오지 당산촌으로 이사
장흥 마씨의 가통을 이어받아
이름 날렸던 장군의 조상들



마천목 장군의 가계와 출생

마천목 장군(1358~1431)은 일반인들에게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러나 마천목 장군의 묘소와 충정묘가 있는 곡성지역이나, 마씨의 본관지인 장흥, 그리고 장군의 유적과 일화가 많이 전해지는 강진 병영 등지에서는 거의 신격화되 다시피한 인물이다.

나라의 기둥이자 초석

마천목 장군은 조선 개국초, 태종 이방원을 도와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으로 어지러워진 정국을 수습한 공으로 좌명공신에 책봉될 만큼 정치적 비중이 높았던 인물이었고, 개국초기 아직도 정돈되지 못했던 국방의 기틀을 다진 나라의 동량이기도 하였다.

이같은 마천목 장군의 공적과 특출한 인품에 대하여는 마천목 장군이 제2차 왕자의 난에 공을 세워 1401년 翊戴佐命功臣에 올랐을 때 태종이 내린 교서에서

“재주가 뛰어나고 충성의 절개가 지극하며 대의를 따라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 그대가 발분하니 사악한 무리들이 무서워 굴복하고 또한 크게 호령하니 역신들이 소멸되어 나라를 태산같이 편안하게 하였도다.”



마천목 장군의 영정.

라고 그의 기개와 공적을 칭찬한 바 있다.

한편 장군이 벼슬을 버리고 74세의 나이로 서거하였을 때는 국왕과 대신들이 조회를 3일간이나 정지하는 등 극진한 예우를 다했고,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이때 내린 왕의 치제문에 보면,

“생각하건대, 경은 흉금과 도량이 크고 깊으며, 천성이 순수하고 행실이 검약, 독실한데다가, 적을 막는 재능이 뛰어나고 계략의 지혜 또한 구비하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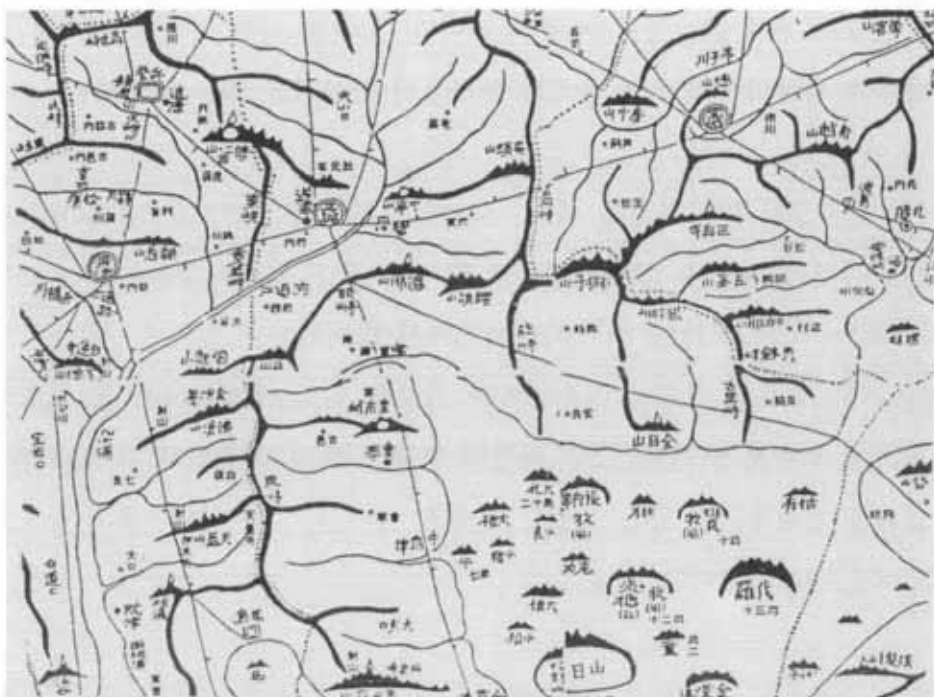
마천목 장군의 영정을 모신 충정묘(곡성 석곡면)

니. 실로 군왕의 우익(羽翼)이요, 국가의 주석(柱石)이라 이를 만하도다.”

라고 극찬할 만큼 마천목 장군은 난세의 영웅으로 세인의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곡성 오지 당산촌으로 이사

그런데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장군의 대표적인 유적들이 우리 고을 곡성에 자리한다는 사실이다. 우선 마천목 장군을 모시는 사우인 충정묘가 곡성에 있고, 또 장군의 유택인 묘소와 신도비가 곡성에 있으며, 장군의 어릴적 일화



〈삽도〉 '대동여지도' 에 보이는 마사랑현(회령현)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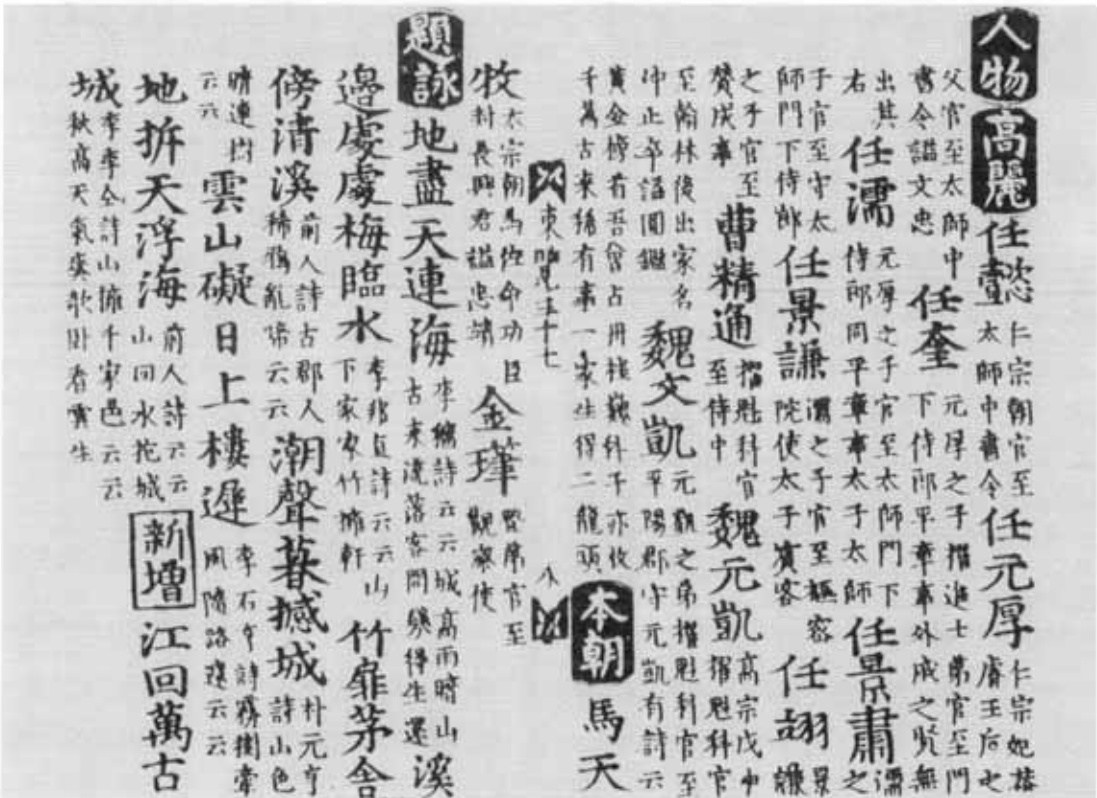


〈삽도〉 장흥마씨 족보 중의 시조관련 기사

들이 전설로 전해지는 곳도 바로 곡성이다.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이처럼 곡성 땅에는 장군과 관련되는 중요한 유적과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

마천목 장군이 우리 고장 곡성과 인연을 맺는 것은 마 장군이 15세되던 해에 태생지인 장흥으로부터 부친을 따라 谷城의 오지면 堂山村으로 이사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마천목 장군은 1358년(공민왕 7) 7월 25일 장흥부 茅原村에서 아버지인 馬榮(1333년~)과 어머니 平山申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장흥마씨 족보에 의하면 장흥마씨는 기자를 따라 우리나라에 온 馬莊의 아버지인 馬浣을 시조로 모신다. 그후 마장의 혈통은 백제 온조왕의 좌보로 병사를 다스려 십제를 건국하는데 공을 세웠던 馬黎로 이어졌고, 마려는 원훈의 공으로 馬斯良縣을 식읍으로 받았다고 한다.



<십도> (동국여지승람) 장흥부조의 마천목 기록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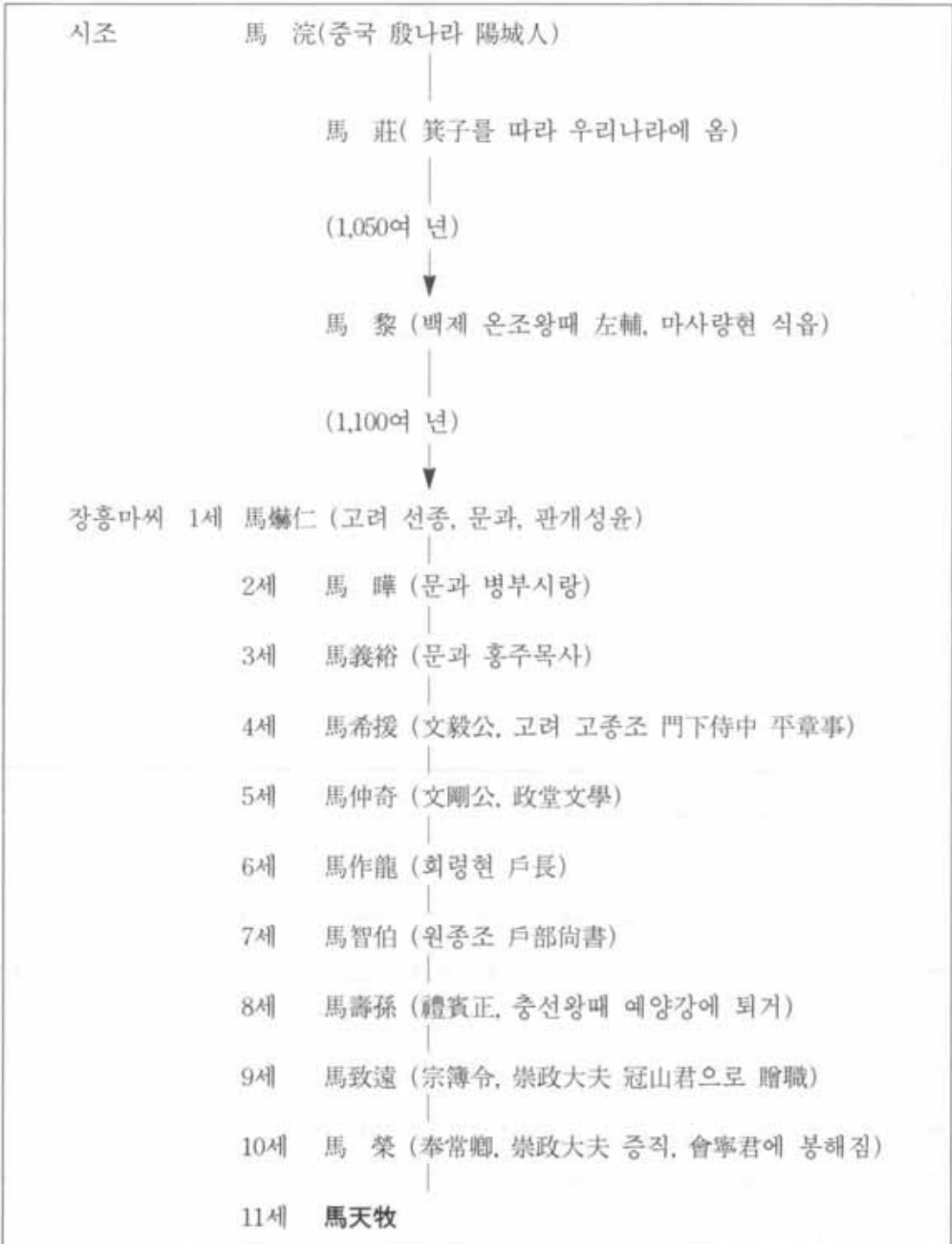
물론 현재로서 이같은 장흥마씨 기록을 모두 믿기는 어렵다. 기자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성씨 중에는 청주 한씨, 태원 선우씨, 행주 기씨 등이 연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사실의 정확성은 누구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온조를 도운 공으로 회령 땅 마사랑현을 식읍으로 받았다는 馬黎와 관련된 사적도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백제의 마사랑현은 지금의 보성군 회천면과 웅치면 일대에 치소를 두었던 옛 군현으로서 고려때 회령이라 개칭하고 뒤에 장흥에 속하게 된 지역인데, 이 지역의 대표적인 토착성씨가 마씨였던 것은 분명하다. 즉『고려사지리지』를 보면 장흥부의 속현으로 회령현이 나오는데, 이를 잠시 살펴보면 “회령현은 본래 백제의 마사랑현이다. 신라 경덕왕 때 代勞縣현으로 개명하여 보성군에 속하게 하였다가 고려때 회령이라 불렀다”고 되어 있고, 뒤이은 『세종실록지리지』장흥부조에는 회령현의 토성으로 馬·邢·李·周·成의 5개 성씨가 기록되는데, 이 중에서 마씨가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다. 이 기록은 장흥마씨가 원래 회령에 터전을 마련했던 최대 토성이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장흥마씨의 가통을 이어받아

이같은 토성으로서의 마씨에 대한 기록은 『동국여지승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동국여지승람』장흥조에서는 조선조의 인물로 마천목 장군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읍지류의 기록은 고려시기 현달했던 장흥마씨들의 기계와 인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이 되고 있다. 즉 회령을 터전으로 했던 마씨들은 고려시기에 저명한 가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장흥마씨가 1세조(중시조)로 받드는 馬懋仁과 그의 자손들이 고려시대에 중앙에 진출하여 크게 현달하였기 때문이었다.

〈삽도〉 장흥마씨의 선대 세계도



오늘날의 장흥마씨가 1세조로 칭하는 馬赫仁은 고려 선종때인 1085년 문과에 급제하여 判開城尹을 지냈고, 그의 아들인 馬曄도 문과에 급제하여 병부시랑을 지냈으며, 손자인 馬義裕 역시 문과에 급제하고 홍주목사를 역임하였던 것이다. 그런가하면 증손인 文毅公 馬希援은 고려 명종때인 1190년 문과에 급제하여 고종조에는 벼슬이 문하시중 平章事에 이르렀다. 마희원은 1223년 몽고 사신 탐고야라는 자가 접대가 불충하다고 불만을 품고 거리에서 만나는 장사치들로부터 수달피와 명주 등을 약탈하고 불응하는 사람들을 사살하는 야만적 행위를 일삼자 이를 경계하고 깨우치는 글을 써준 것으로 유명하다. 이 글이 고려사에 전하고 있으며, 이듬해 몽고사신이 왔을 때는 왕명으로 평양까지 사신을 호송하여 탈이 없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름날렸던 장군의 조상들

마희원의 아들 文剛公 馬仲奇는 政堂文學, 손자인 馬作龍은 회령현의 戶長이었다. 회령 호장 마작룡이 바로 마천목 장군의 5대조이다. 장흥마씨 족보에 의하면 마작룡과 그의 부친, 조부의 3대 묘소가 모두 수령현 백남산에 있다고 적고 있어 당시 이곳에 토착하고 있었음도 분명하다. 세전하는 말로도 이곳에 마정승의 묘소가 있다고 전하여 진다.

호장이란 고려시대 토착향리의 대표로서 군현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마천목은 말하자면 회령현의 토착지배층의 혈통을 이으며 장흥땅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이제 좀더 자세하게 마천목 장군의 직계 선대를 더듬어 보기로 하자.

마천목의 고조인 馬智伯은 원종때 문과에 급제하여 戶部尙書를 지냈고, 증조인 馬壽孫은 禮賓正을 역임하였는데 충선왕 경술년에 군소배들의 아침함을 보고 수령 백남산 아래 예양강에 퇴거하여 호를 東江隱士라 하였다 한다. 조부인 馬致遠



〈삼도〉 장흥마씨 족보중의 선대 부분

은 宗簿令을 지냈는데, 후일 마천목장군이 좌명공신으로 훈록되자 崇政大夫 冠山君으로 贈職되었다. 그에게는 侍郎을 지냈던 동생 馬志遠과 매제인 魏潤琦가 있었는데, 魏潤琦는 장흥위씨의 魏神의 父였다. 魏神은 조선 개국기에 김종연의 역모에 가담하여 진도로 유배된 인물이며, 그의 아들인 魏惠龍은 조선시대 장흥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위씨들의 태줄이 되는 인물이었다.

부친인 馬榮(1333년 ~)은 공민왕 2년((1353) 奉常卿을 지냈으며 조선 태종때 아들인 마천목 장군이 좌명공신으로 훈록됨에 崇政大夫에 증직되고 會寧君에 봉해졌다. 그런데 이같은 조부 마치원과 부친 마영은 마천목 장군이 59세 되던 1416년(태종 16) 초대 전라병마도절제사로 부임, 전라병영성을 축조하게 되는 것과 관련되는 사연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이 사연은 기록상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강진 병영성 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이지만, 그 개연성은 매우 크다. 즉 마천목 장군의

조부인 馬致遠은 장흥의 수령성을 축조한 인물이고, 부친 馬榮 역시 왜구의 침탈을 막아 싸웠던 인물이라고 전한다. 따라서 마천목 장군의 병영성 축조 인연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천목 장군의 어머니는 곡성의 대표적인 토성인 平山申氏로 大將軍 用材(조 德生, 증조 匡輔, 고조 彌周)의 따님이었다. 會寧君 馬榮과 부인 평산신씨의 묘소는 장흥군 용산면 관지리(龍頭山)에 있으며, 1988년에 중수된 묘비가 세워져 있다. 원래 이 곳에 있던 구비는 마모가 심하여 1954년 후손인 輪河가 짓고 在伯이 써서 세웠고, 1988년에는 후손들이 다시 改甞를 발의하여 성금을 出捐하고 후손 주석·상용·홍식이 주선하여 邊時淵이 짓고 후손 洗銑 글씨를 써서 다시 건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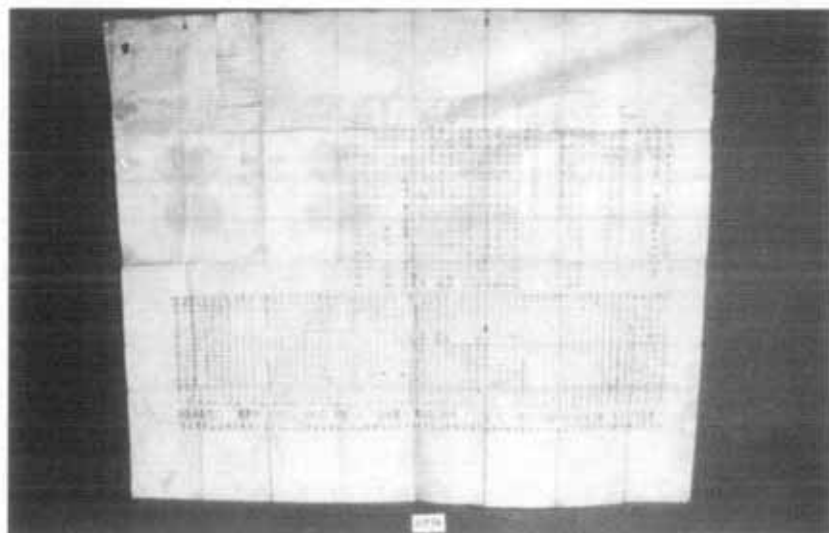


會寧君 馬榮의 묘소와 장흥마씨 세장산비
(장흥군 부산면 관지리 용두산)

남 달랐던 청년시절

하늘이 지어준 이름 '天牧'

두계천의 도깨비와 마천목



남 달랐던 청년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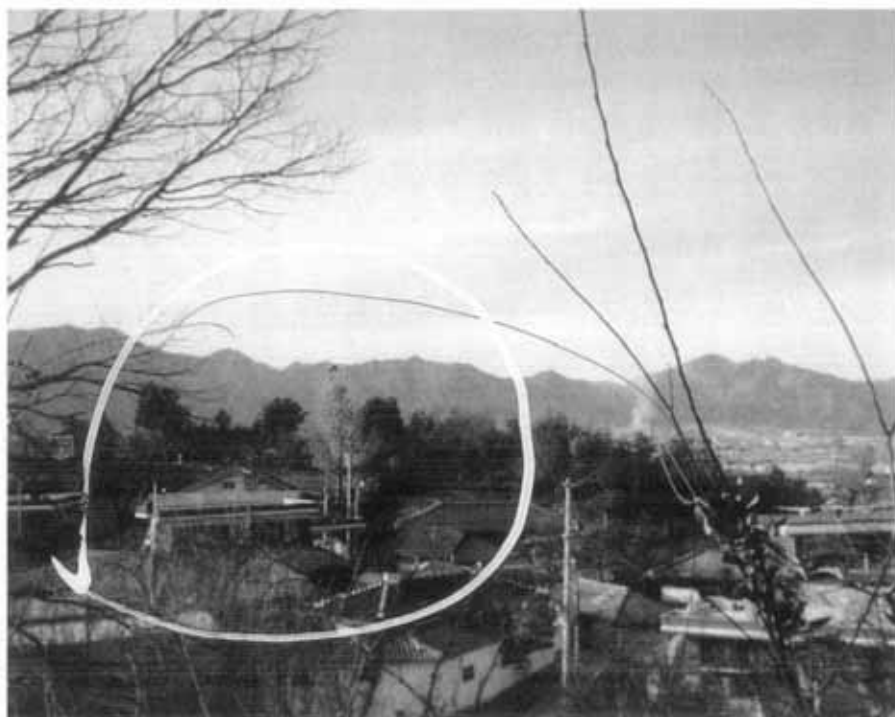
하늘이 지어준 이름 '天牧'

이러한 가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마천목은 그의 이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1358년(공민왕 7) 장흥 獅岳山 밑 茅原村 眞泉에서 태어난 마천목은 태어난지 삼일째 되던 날 우물에 오동나무 잎이 떨어져 있었는데 벌레가 여기에 '天牧'이라는 글자를 새겼다고 한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아버지가 이름을 天牧으로 지었다고 한다.

마천목 장군은 태어나면서부터 골격이 웅장하고 재주가 비범하여 이웃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는데, 명석함도 남달라 스승에게 나아가 배우기도 전에 이미 經書와 史



마천목장군의
탄생에 얽힌 일
화가 있는 정호
(井戶)



소년 마천목이
부친을 따라 이
거했던 당산촌
전경

記에 통달하였다고 한다.

장흥 모원촌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던 마천목은 15세때 부친을 따라 谷城의 오지면 堂山村으로 이사하게 된다. 왜 마천목 장군의 부친 마영이 이때에 장흥에서 곡성으로 이사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하지 않다. 아마도 이는 어머니가 평산신씨로 곡성 땅에 오랜 토착기반을 가진 성씨였던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어머니 平山申氏는 大將軍 用材의 딸로 조부는 內寺簿令을 지냈던 申德生, 증조는 大護軍 申匡輔, 고조는 戶部尙書 申弼周로 대대로 현달했던 곡성의 대표적 토착가문의 후예였다. 실제로 곡성 오지 일대에는 이들의 전장이 많았었고, 아마도 마영은 처가로부터 분재받은 토지와 연계되어 이거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처가 부근으로의 이거는 조선전기 사족가문에서는 흔히 있는 일로 저명 성씨들의 이거가 모두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음을 염두에 둘 때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크다.

두계천의 도깨비와 마천목

어쨌든 15세의 소년기를 맞은 마천목 장군은 오지면 당산촌에서 살면서 남다른 기개와 효성으로 세간에 칭송을 받았다. 그 대표적인 일화가 바로 그의 지극한 효성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즉 『東國輿地勝覽』남원부 두계천조에 보면

두계천은 남원부 남쪽 60리 순자강 하류에 있다. 장흥부원군 마천목이 강을 가로막아 만든 밭로 그후 남원부에서 수축하였다

는 기록이 보인다.

당산촌으로 이사한 소년 마천목은 부모에 대한 효성이 매우 지극하였다. 그러나 생활이 넉넉지 못하여 순자강 하류 杜溪川에서 매일 몸소 고기를 낚아서 부모를 공양하였다고 하는데, 이 기록은 바로 그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위의 기록과 관련한 전설이다.



마천목 탄생지:
장흥(지금은 보성군 회천면 모원리)현재 공의 21세손 馬在仁(前寶城郡 議會議長)가 생가를 지키고 있음.

전설의 내용을 소개하면

부친을 따라 곡성의 오지면 당산촌으로 이거하였으나, 순자강 하류 두계천에서 몸소 고기를 낚아 어버이를 공양하였다. 그러다가 소년 마천목은 어느 날 낚시보다는 어살(밭)을 막아 고기를 잡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밭을 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강폭이 넓고 흐름이 급하여 이런 저런 궁리를 하고 있었다.

하루는 강둑을 거닐며 형세를 살피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오는 길에 등글게 생긴 작은 돌이 푸르고 기이하기에 주어왔더니 그 날밤에 수천의 귀신 무리들이 뜰 아래서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강가에 있는 범산의 도깨비입니다. 대감께서 오늘 석양에 주워 오신 돌이 바로 우리들의 장수이오니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청하였다. 이에 마 소년은 말하기를 “내가 두계천에 어살을 막으려 하는데 너희들이 밭을 막아 준다면 너희 장수를 돌려주리라”하였다. 그러자 잠귀들이 즉시 “예! 예!”하고 물러가더니 잠깐 후에 돌아와서 다 막았다고 하였다. 이에 마천목은 “너희들이 비상한 재주가 있다하나 어찌 그토록 잠깐 사이에 밭을 다 막을 수 있단 말이나”하자 도깨비들은 “대감께서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하므로 마천목은 돌을 내어주며 “나같은 곤궁한 서생을 대감이라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이나”고 물으니 귀졸들이 말하기를 “장차 부원군 대감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

라는 것이다. 도깨비의 도움으로 효성을 다할 수 있었던 마천목 장군, 그리고 후일 나라의 동량이 될 것을 예견한 이 일화는 아직도 곡성지역에 널리 전해지고 있는 유명한 전설이다.

한편 이와 관련되는 또 다른 일화는『谷城誌』에 전하는데,

두계천 밭은 곡성의 동쪽으로 20리 순자강 하류에 있다. 장흥부원군 마천목

이 귀족을 불러 막은 것이다. 본래 이곳은 곡성현 땅인데 정유왜란 이후 남원군에 속하다가 중간에 다시 곡성현이 되었다. 마천목이 벼슬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어릴 적에 내가 이 밭로 고기를 잡아 부모를 봉양하였는데, 이제는 임금에 올리는 것이 옳다”하여 은어를 진상하기에 이르렀다. 공이 별세한 후에 곡성의 수령이 충청공의 기계사와 묘제에 두거천의 은어를 해마다 바쳤다. 그러나 뒤에 그 예가 해이해지자 자손들이 은어를 갖추어 제를 지내니 관에서 다시 그 예를 따르다.

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의 효성은 매우 지극하여 호랑이도 감동시킬 정도였다고 한다. 이에 관한 전설은 다음과 같다. 마천목이 어린시절 효성이 너무 지극함에 호랑이가 감동하여 스스로 짐승을 잡아다가 사립문 안에 던져 보냈다고 한다. 마천목은 이를 맛있게 요리하여 아버이를 공양할 수 있었는데 하루는 꿈에 노인이 나타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마천목이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잠을 깨어 그곳에 가보니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마천목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보은의 뜻으로 함정주인에게 호랑이를 사서 살려보내 주었다고 전한다. 이처럼 그는 어려서부터 효행이 지극하였음이 여러 전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새롭게 뜨는 별

24세에 무관으로 진출

1,2차 왕자의 난과 마천목장군

좌명공신의 반열에 오른다.

事朴信如京師謝賜幣帛藥材燕賀騶虞也○甲寅開國定社
佐命功臣同盟于大清觀北 上押其誓文不親臨其會其文
曰朝鮮國王臣謹率開國定社佐命功臣等敢昭告于 皇
天上帝 宗廟社稷山川百神之靈伏以國之有君臣朋友猶
家之有父子兄弟當以忠信誠懇固結其心永保終始况乎要
質鬼神歃血同盟者哉惟我 太上王以神武之資獲天人之
助而予小子亦克左右弼成大業開國之初首與勲臣同盟以
固忠信不期權奸懷私背盟挾幼奪嫡謀害我兄弟將危我
宗社幸賴天地 宗社陰陽之佑忠賢奮義凶徒自潰以嫡以
長扶立 上王天倫是正 宗社再安又與勲臣同盟好未
幾讒邪復背其盟搆讒閹搆稱兵作亂親勲將相應俄勘定罪
人斯得既服厥辜是則違盟必戮現有微驗可不懼哉速予小
子繼位之後又與佐命之臣同盟歃血期與保全于茲有年自
是三盟之臣協心輔我式至今休可謂和洽無間矣尚慮前後
不與同盟者其心猶以為未固特消吉日乃會三盟之臣昭告

새롭게 뜨는 별

이렇듯 효성과 남다른 행적으로 칭송을 받던 소년 마천목은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인생의 대로를 개척하게 된다. 마천목 장군이 21세 되던 1378년(우왕 4)에 그는 목사 李彬의 딸 경주이씨와 혼인을 하게 된다. 그리고 3년 후 24세 때인 1381년(우왕 3)에는 2군 6위에 소속된 정 8품의 散員이라는 무관직에 처음으로 임명된다.

24세에 무관으로 진출

그러나 이 때의 관직에 들어가는 내력이나 자세한 사정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마천목이 55세 되던 1412년(태종 12)에 전라도 병마도절제사로 임명되었을 때 임금 태종이 “경이 일찍이 전라도 시위군에 적을 두고 있었다가 이제 도절제사가 되었으니 또한 영광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태종실록」 12년 5월 11일조)을 미루어 지방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될 뿐이다. 또 한가지 이 시기의 마천목 장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태종실록} 17년 9월 5일자 기사이다.

이 기사는 마천목 병사와 전라도관찰사 鄭耕과의 불화를 거론하는 기사인데, 이 중에 '마천목 병사가 일찍이 관찰사 鄭耕의 아버지 鄭地를 따르던' 사람이라는 내용이 보인다. 잘 알려져 있듯이 鄭地는 고려말 왜구의 섬멸에 커다란 공을 세웠던 나주 출신의 장수로 조선 건국과정에서 이성계의 부각으로 그 명성이 축소된 인물이다. 만약 이 기록대로라면 마천목 장군은 鄭地和 함께 이미 고려말부터 전장에서 적지 않은 위용을 자랑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혹 마천목 장군이 이러한 鄭地の 정치적 입지와 관련되어 빛을 보지 못한채 미관말직의 무관으로 10여 년을 지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미관말직에 머무르던 마천목 장군은 37세 되던 1394년에는 정 7품의 司直으로 승진한다. 물론 이 시기는 마천목 장군에게는 개인적으로 불 때는 가정적 즐거움과 슬픔이 함께한 시기였다. 먼저 28세 되던 1385년에는 그토록 효성으로 봉양하던 부친이 돌아가시는 슬픔을 겪은 것이 그 하나이고, 기쁨은 36세의 늦은 나이에 장남 勝이 태어난 것이 그것이었다.

마천목 장군은 부인 定惠宅主 慶州李氏와의 사이에서 모두 4남을 두었는데, 모두 현달하여 가문의 영광을 이었다. 즉 장남인 勝은 長興君에 봉해지고, 文簡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차남은 腆으로 증직 吏曹判書, 3남 胖은 通訓大夫 구례현감, 4남은 膝으로 兵曹判書를 지냈다.

어쩌면 이 기간은 그가 지닌 능력과 다르게 말단 무관으로서 뜻을 펴지 못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으나, 바로 이때는 고려가 멸망하고 태조 이성계와 신홍사대부 세력에 의한 조선 건국이 이루어지던 격변기였다.

현재의 자료로서 조선개국기에 마천목이 보였던 행적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후일 태종 이방원을 도와 1-2차 왕자의 난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을 미루어 보면 개국세력의 막부로 참여하여 주변으로부터 믿음과 능력을 인정받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1, 2차 왕자의 난과 마천목 장군

30대의 마천목이 비로소 세상에 이름을 날리게 되는 계기는 1398년 41세의 나이로 제1차 왕자의 난에서 공을 세우면서부터였다.

1398년(태조 7) 8월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은 일명 '芳遠의 난' 또는 '戊寅靖社', '鄭道傳의 난'이라고도 불려진다. 이 난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자간의 싸움인 동시에 정도전 일파와 방원 일파의 권력다툼이기도 하였다.

조선건국 이후 국가의 통치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개국공신들의 지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그러나 정도전을 주축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병권집중과 중앙집권화 정책은 권력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개국공신 중 정도전의 지위가 크게 부상되고 여타의 훈신과 왕실세력 및 무장세력들은 정치의 핵심에서 소외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靖安君 李芳遠은 세자책봉에서 밀려나고 자신의 세력기반인 사병마저 혁파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이방원은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 반대파를 제거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과 마천목 장군의 역할에 대하여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를 축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태조실록 7년 8월 26일조 기사(초록)

임금의 병이 매우 급하니 靖安君과 益安君 李芳毅·懷安君 李芳幹·淸原君 沈愷·上黨君 李伯卿·義安君 李和와 李濟 등이 모두 근정문 밖의 서쪽 행랑에서 모여 숙직하였다. 밤 초경에 이르러 어느 사람이 안으로부터 나와서 말하였다.

“임금께서 병이 위급하여 병을 피하고자 하니, 여러 왕자들은 빨리 안으로

들어오되 從者는 모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오.”

화(和)·종(棕)·제(濟)가 먼저 나가서 뜰에 서고, 정안군은 익안군·회안군·상당군 등 여러 군들과 더불어 지계문 밖에 잠시 서서 있다가, 비밀히 말하기를,

“옛 제도에 궁중의 여러 문에서는 밤에는 반드시 등불을 밝혔는데, 지금 보니 궁문에 등불이 없다.”하면서, 더욱 의심하였다.

화(和)와 제(濟)·종(棕)은 먼저 안으로 들어갔으나, 정안군은 배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서쪽 행랑 문밖으로 나와서 뒷간에 들어가 앉아서 한참 동안 생각하고 있는데, 익안군과 회안군 등이 달려나오면서 정안군을 두 번이나 부르니, 정안군이 말하기를,

“여러 형님들이 어찌 큰소리로 부르는가?” 하고, 이에 또 서서 양쪽 소매로써 치면서 말하였다.

“형세가 하는 수가 없이 되었다.”

이에 즉시 말을 달려 궁성의 서문으로 나가니 익안군·회안군·상당군이 모두 달아나는데, 다만 상당군만은 능히 정안군의 말을 따라오고 익안군과 회안군은 혹은 넘어지기도 하였다. 정안군이 마천목을 시켜 방법을 불러 말하였다.

“나와서 나를 따르기를 바란다. 그 종말에는 저들이 너도 보전해 주지 않을 것이다.”

방편이 안 행랑 방에 누웠다가, 마천목을 보고 일어나 앉아서 이 말을 다 듣고는 도로 들어가 누웠다. 방편의 껌종은 모두 불량한 무리들로서 다만 활쏘고 말 타기만 힘쓸 뿐이며, 또한 망령되이 세자의 자리를 옮기려고 꾀한 지가 오래 되었다.

정안군이 山城이란 두 글자으로써 명하고 삼군부의 문앞에 이르러 천명을 기

다리었다. 방석 등이 변고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싸우고자 하여, 군사 禮賓少卿 奉元良을 시켜 궁의 남문에 올라가서 군사의 많고 적은 것을 엿보게 했는데, 광화문으로부터 남산에 이르기까지 정예한 기병이 꼭 찼으므로 방석 등이 두려워서 감히 나오지 못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신의 도움이라고 하였다.

李天祐는 자기 집에서 伴人 2명을 거느리고 대궐로 가는데, 마천목이 이를 바라보고 安國坊 동구에까지 뒤쫓아 가서 말하였다.

“天祐令公이 아닙니까?” 천우가 대답하지 않으므로, 천목이 말하였다.

“영공께서 대답하지 않고 가신다면 화살이 두렵습니다.” 천우가 말하였다.

“그대가 馬司直이 아닌가?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는가?” 천목이 대답하였다.

“정안군께서 여러 왕자들과 함께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천우가 달려서 정안군에게 나아가서는 또 말하였다.

“이번에 이 일을 일으키면서 어찌 일찍이 나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마천목은 이 때 정안군(태종) 이방원의 지시로 방편을 불러오는 중책을 맡기도 하였고, 정세를 옳게 간파하지 못한 이천우를 만나서 이방원의 막하로 이끌어 오는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마천목 장군은 이러한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정안군 이방원을 도와 공을 세움으로써 1398년(태조 7) 9월 대호군으로 승진하고, 1399년에는 절충장군(정 3품)에 승진하였다. 이 때의 공훈과 그에 따른 승진으로 마천목은 마침내 그의 武才를 세상에 알릴 좋은 기회와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출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은 바로 1400년(정종 2)에 일어난 제2차 왕자의 난이었다.

朴苞의 난이라고도 불리는 제2차 왕자의 난은 역시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일어난 왕자간의 싸움이었다. 제1차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세력구조는 방원일파에게 유리하게 변하였고 이들에 의하여 정치적 실권이 장악되었다. 그러나 태조의 넷째 아들

방간 역시 왕위계승에 대한 야심과 호기를 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형세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형세속에서 마침 박포가 방원이 장차 방간을 죽이려 한다고 거짓 밀고하므로써 일촉즉발의 불길은 폭발하고 말았다. 박포는 제1차 왕자의 난 때 일등공신에 피봉되지 못하였음을 불평하다가 竹州로 귀양갔던 인물이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박포는 방간의 불평과 야심을 이용하여 정세를 변화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박포의 거짓 밀고에 속은 방간은 사병을 동원하여 방원의 주력군을 공략하기에 이르렀다. 방간과 방원의 군사들은 개성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결국 이는 방원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로써 방원에 대한 반대세력은 거의 소멸되었고 그의 정치적 세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정종실록』 2년 1월 28일 기사에서 우리는 이 때의 마천목 장군이 보여준 활약상을 살필 수 있는데, 이 기사에 의하면

大軍이 角을 부니, 방간의 군사가 모두 무너져 달아났다. 徐益·馬天牧·李柔 등이 선봉이 되어 쫓으니, 방간의 군사 세 사람이 창을 잡고 한 데 서 있었다. 마천목이 두 사람을 쳐 죽이고 또 한 사람을 죽이려 하니, 정안공이 보고 말하기를, “저들은 죄가 없으니 죽이지 말라.”하였다

라고 하고 있다. 숨가쁘게 전개되는 당시의 전투속에서 마천목 장군은 徐益·李柔 등과 더불어 선봉이 되어 패주하는 적을 쫓는 등 정안군 이방원을 바로 옆에서 도우면서 왕자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공로를 세우고 있었다.

좌명공신의 반열에 오르다

雄武侍衛司 上將軍으로 난을 진압하는 가운데 이처럼 공을 세운 마천목 장군은 다음해인 1401년 翊戴佐命功臣 3등에 敍動되면서 同知總制(정 2품)에 임명된다. 당

시 그의 공적에 대하여는 태종이 1401년 좌명공신에 서훈하는 교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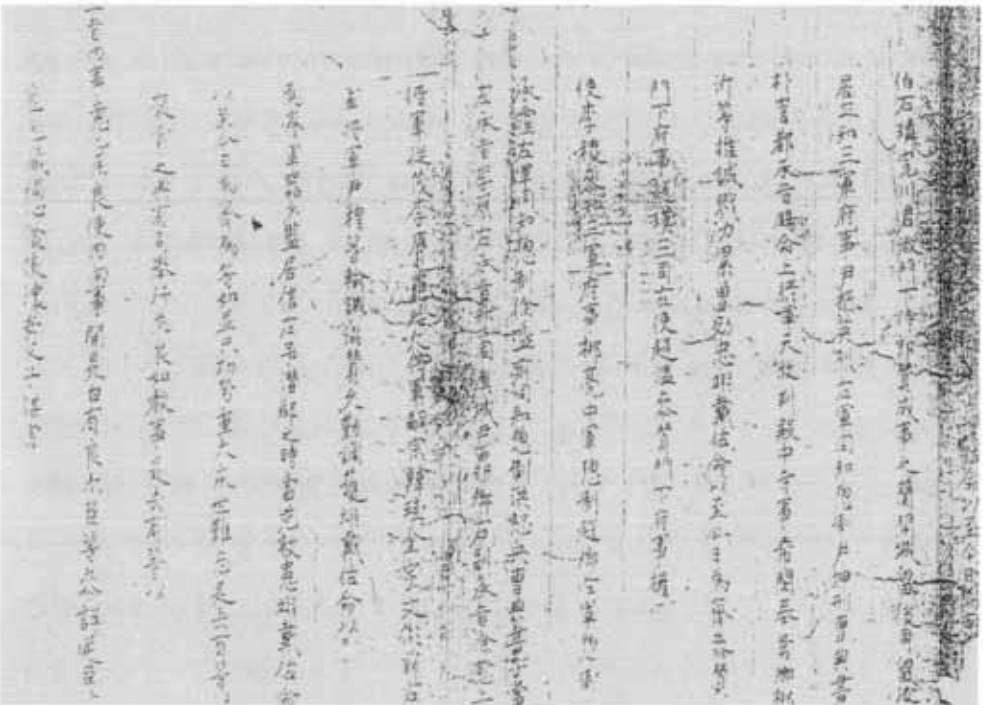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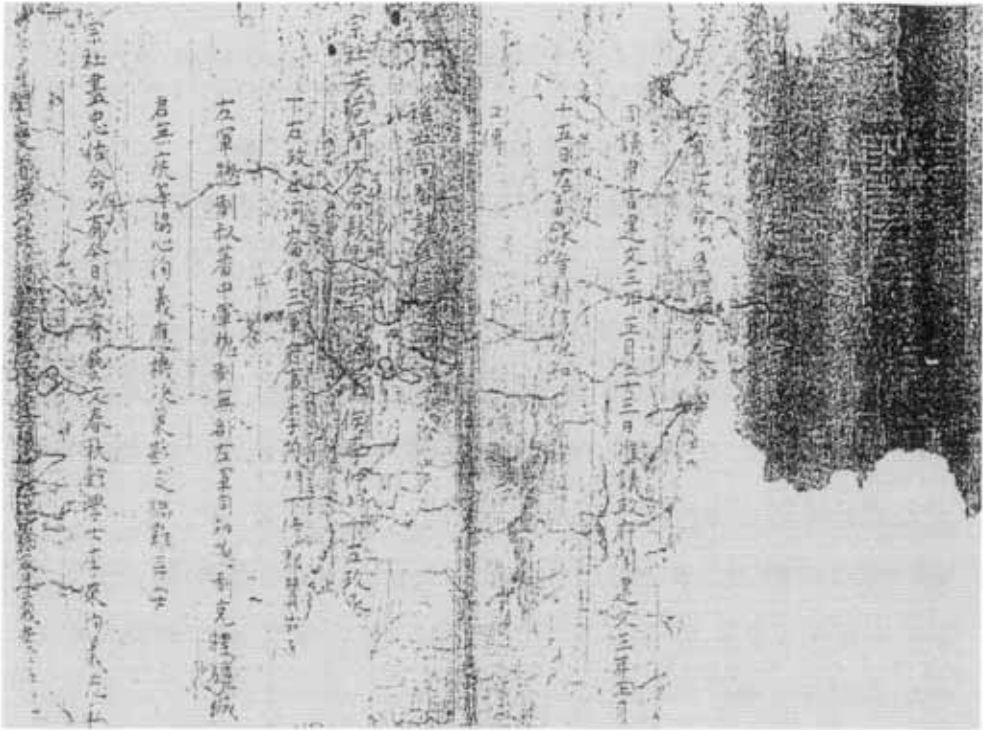
“그대의 재주가 뛰어나고 충성의 절개가 지극하며 대의를 따라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왕가를 힘써 돕더니 역신 朴堧의 난을 당하여 사직의 위태함이 경각에 처하였을 때 그대가 발분하니 사악한 무리들이 무서워 굴복하고 또 크게 호령하니 역신들이 소멸되어 나라를 태산같이 편안하게 하였도다”

라고 하여 그의 공훈을 격려하고 있다. 또한 이 때의 공훈으로 부·모·처에 대한 1등 증직과 직계 아들에 대한 음직 1등 가직, 그리고 밭(田) 80결(結), 노비 8구, 은대(銀帶) 1요(腰), 표리(表裏) 1단, 말 1, 구사 3명, 진배과령 6명 등을 하사받았고, 당시 내려진 공신녹권과 교서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태종의 마천목 장군에 대한 신임은 매우 두터워 이해 4월 태종은 마천목 장군에게 金帶를 하사하는 애정을 보였고, 태종 3년에는 말 1필을 여러 공신들과 함께 하사받기도 하였다. 마천목 장군은 이듬 해에는 다시 회령군에 봉해지는 영광을 안았다. 그런가하면 태종 5년(1405) 8월에 사헌부에서 처 김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변방에 내칠 것을 상소하였을 때, 그 소장을 보관하여두고 내려보내지 않을 정도였다.

또한 1404년에는 태종이 조선개국과 왕자의 난에서 자신을 도와 공을 세웠던 3공신(개국·정사·좌명) 66명을 한자리에 모아서 丹書鐵券의 會盟(단결과 충성을 맹세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서문은 태종이 직접 지었다. 이 날은 외방에 부임해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참석하여 무일전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좌명공신으로 훈록되었던 마천목 장군도 이 자리에 참여한다.

이날 개국 공신(開國功臣)·정사 공신(定社功臣)·좌명 공신(佐命功臣)이 대청관(大清觀) 북쪽에서 같이 맹세(盟誓)하였는데, 임금이 그 맹세한 글에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다. 당시의 회맹서문 내용은 {태종실록} 권 8, 4년 11월 갑인조에 실려 있다.



〈자료〉「태조실록」7년 8월26일조 기사(초록)

○ 태종의 회맹서문 내용(「태종실록」권 8, 4년 11월 갑)

“조선 국왕(朝鮮國王) 신(臣)【휘(諱).】은 개국 공신(開國功臣)·정사 공신(定社功臣)·좌명 공신(佐命功臣) 등을 삼가 거느리고 감히 황천(皇天)의 상제(上帝)와 종묘(宗廟) 사직(社稷)과 산천(山川)의 여러 신의 신령(神靈)에게 밝게 고(告)합니다. 엿드려 생각하건대, 나라에서 군신(君臣)과 붕우(朋友)를 가지는 것은 가정에서 부자와 형제를 가지는 것과 같으니, 마땅히 충성과 신의와 성실(誠實)로 그 마음을 굳게 맺어서 길이 종시(終始)를 보존하여야 하는데, 하물며 귀신(鬼神)에게 요질(要質)하고 피를 마시고 같이 맹세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생각하건대, 우리 태상왕(太上王)은 신무(神武)한 자질로 하늘과 사람의 도움을 얻고, 소자(小子)인 나도 또한 능히 조력(助力)하여 큰 기업(基業)을 도와서 이룩하였습니다.

개국(開國)하던 처음에 먼저 훈신(勳臣)과 더불어 같이 맹세하여 충성과 신의를 굳게 하였으나, 뜻하지도 아니하게 권간(權奸)이 사심(私心)을 품고 맹세를 저버리고 유얼을 끼고 적통(嫡統)을 빼앗고, 우리 형제를 해치기를 피하여 장차 우리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하였는데, 다행히 천지 종사의 음덕(陰德)의 도움에 힘입어, 충성스럽고 어진이가 의(義)에 분발(奮發)하니, 흉도(凶徒)가 스스로 궤멸(潰滅)되었습니다. 적자(嫡子)로서 장자(長子)로서 상왕(上王)을 부액(扶腋)하여 세우니, 천륜(天倫)이 이에 바르게 되고 종사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또 훈신(勳臣)과 더불어 같이 맹호(盟好)를 맺었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간사한 이가 다시 그 맹세를 저버리고 혼단을 엮어 집안끼리 싸우게 하여, 거병(擧兵)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훈친(勳親)과 장상(將相)이 시기에 응하여 평정(平定)하여, 죄인(罪人)은 곧 잡아 이미 죄를 복죄하였습니다. 이것은 맹세를 어기면 반드시 죽이는 것이 징험(徵驗)으로 나타난 것이니, 가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소자(小子)인 내게 미쳐, 왕위를 계승한 뒤에도

佐命功臣同盟于大清觀社 上押其誓文不親臨其會其文
 曰朝鮮國王臣言謀率開國定社佐命功臣等敢昭告于 皇
 天上帝 宗廟社稷山川百神之靈伏以罔之有君臣朋友猶
 家之有父子兄弟當以忠信誠懇罔結其心永保終始況乎要
 貨鬼神歟血同盟者哉惟我 太上王以神武之資獲天人之
 助而予小子亦克左右弼成大業開國之初首與勳臣同盟以
 周忠信不期權奸懷私背盟扶幼奪嫡謀害我先爭將先我
 宗社幸賴天地 宗社陰陽之佑忠賢奮義凶徒自潰以竊以
 長扶立 上王天倫是正 宗社再安又與勳臣同盟好未
 幾讒邪復背其盟搆黨開端稱兵作亂輕敵將相應俄勘定罪
 人斯得既服厥辜是則遠盟必我現有微驗可不懼哉連予小
 子繼位之後又與佐命之臣同盟歟血期與保全于茲有年自
 是三盟之臣協心輔我式至今休可謂和洽無間矣尚慮前後
 不與同盟者其心猶以為未固特消吉日乃會三盟之臣昭告
 上下神祇更辱前盟以固其志既盟之後各自勉勵忠誠相信
 恩愛相好親如骨肉堅如金石邪說竭忠夾輔王室忘其私憾
 唯順公道常以安社稷利國家為念孜孜協力終始無變夫享
 福祿共保安榮世世子孫無忘今日尚有匿私扶邪渝盟背好
 潛懷疑貳外親內忌搆讒造孽分朋結黨除國傾覆翻陷同盟
 者是欺天地慢鬼神背君父也幽則必有神誅明則必有王法
 非止其身殃及子孫有犯關係 社稷者當以法論亦如前盟所
 載是皆自取其誅之咎天地神明昭布在上各欲誓言永勉無
 忽開國定社佐命三功臣未嘗同盟 上應三功臣未能和協
 曾而同盟以一其心監司邊陲矧收分憂者皆來與焉三功臣
 六十六人盟訖詣闕各賜表裏 御無浼殿設大宴以慰之○

〈자료〉『태종실록』에 수록된 회맹서문 원문(태종 4년 11월 갑인조)

또한 좌명(佐命)한 신하와 더불어 같이 맹세하여 피를 마시고 더불어 보전할
 것을 기약한 지 이제 여러 해입니다. 이때부터 삼맹(三盟)의 신하가 마음을
 합하여 나를 도와, 이제 지금에 이르도록 평안하였으니, 가위(可謂) 화합하여
 틈이 없었다고 할 만합니다. 전후(前後)에 같이 맹세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
 자가 그 마음이 오히려 미안(未安)하게 여길까 일찍이 염려하여, 특별히 길일
 (吉日)을 가려서 이에 삼맹(三盟)의 신하를 모아 상하(上下)의 신기(神祇)에
 게 밝게 고(告)하고, 다시 전의 맹세를 찾아서 그 뜻을 굳게 합니다.

이미 맹세한 뒤에는 각각 스스로 면려(勉勵)하고, 충성으로 서로 믿고 은애
 (恩愛)로 서로 좋아하고, 친애하기를 골육(骨肉)같이 하고, 굳건하기를 금석(金
 石) 같이 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왕실(王室)을 협보(夾輔)
 하며, 그 사사 감정을 잊고 오로지 공도(公道)에 따르고, 항상 사직(社稷)을 평

안하게 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기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마음을 합하여 종시(終始) 변(變)하지 아니하고, 길이 복록(福祿)을 누리 함께 안전과 영화를 보존하여 세세 자손(世世子孫)이 오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사정(私情)을 품고 간사한 마음을 끼거나, 맹세를 어기고 화호(和好)를 저버리거나, 몰래 의심하여 두 가지 마음을 품거나,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속으로는 꺼려하거나, 참언(讒言)을 꾸며 혼단을 만들거나, 봉당(朋黨)을 나누어 결당(結黨)하거나, 나라를 경복(傾覆)하기를 꾀하거나, 같이 맹세한 이를 무함(誣陷)하는 자가 있으면, 이것은 천지를 속이고 귀신을 업신여기고 군부(君父)를 저버리는 것이니, 죽어서는 반드시 신주(神誅)가 있을 것이고, 살아서는 반드시 왕법(王法)이 있을 것이며, 죄는 그 몸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재앙(災殃)이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사직(社稷)에 관계된 죄를 범하는 자는 마땅히 법으로 논하여, 또한 전의 맹세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하리니, 이것은 모두 자취(自取)하는 것이요, 그 누구의 허물이겠습니까? 천지 신명(天地神明)이 위에 밝게 포열(布列)하여 있으니, 각기 맹세한 말을 공경하여 길이 힘쓰고 소홀하지 말지니라.”

이 회맹서문에 이어서 이날의 행사내역도 당시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태종은) 개국 공신·정사 공신·좌명 공신의 삼공신(三功臣)이 일찍이 같이 맹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금이 3공신이 능히 화합하지 못할까 염려하였는데, 모여서 같이 맹세하여 그 마음을 하나로 하였다. 감사(監司)와 변진(邊鎭)·주(州)·목(牧)의 지방관[分憂者]도 모두 와서 참여하였다. 삼공신(三功臣)은 66인이었는데, 맹세가 끝나고 예궐(詣闕)하니, 각각 표리(表裏)를 하사하고 무일전(無逸殿)에 나아가 큰 연회를 베풀어 이들을 위로하였다.

고 하고 있다. 당시의 회맹록 각판본(가로 124.5cm, 세로 104.5cm)이 현재 국립민속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3공신 회맹에 참여했던 인물의 명단을 소개하면 다음 <48P 표>와 같다.

한편 1408년에는 태조의 능묘인 健元陵碑에 3공신들과 함께 그의 이름이 새겨지기도 했다. 이 비문은 당대의 최고 학자인 權近이 짓고, 碑陰은 卞季良이 지었다. 비문 글씨는 成石璘이, 전액은 鄭矩가 썼다. 비문에는 이성계가 개국을 하게 된 동기, 창업의 성취 및 공로, 그리고 개국공신·정사공신·좌명공신의 명단이 적혀 있다.

이와같이 마침내 공신의 반열에 당당하게 서게 된 마천목은 공신으로서의 대우와 지위를 누리게 된다. 태종의 그에 대한 공신으로서의 각별한 예우와 신뢰의 편린은 앞에서 보았던 것 이외에도 『태종실록』9년(1409) 9월 갑술 기사에서 또 다시 보인다.

중군총제(中軍總制) 마천목(馬天牧)을 곡성(谷城)으로 귀양보냈다. 마천목이 감순청(監巡廳)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 전리(典史)를 매질하였는데, 전리가 이로 인하여 죽었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소하여 죄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성품이 본래 너그럽고 부드러우니, 반드시 오살(誤殺)일 것이다. 하물며 사문(私門)이 아니고 공사(公事)이며, 또 공신(功臣)이니 논하지 말라." 하였다. 헌부에서 다시 청하니, 이에 귀양보냈다.

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마천목은 유배되었지만, 태종은 그가 공신이므로 죄를 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헌부에서 재차 죄를 청하자 태종은 그를 곡성에 유배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다. 그리고 곧바로 그 해 10월 11도 도절제사(十一道 都節制使)를 설치하면서 전라도도절제사에 한 달만에 바로 복직되는 것을 보면 마천목에 대한 태종의 공신으로서의 예우와 배려를 짐작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여진다.

〈표〉 1404년의 회맹에 서명한 공신명단

성명	본관	문/무관	공신내용 및 등급			공신명칭		
			개국	정사	좌명			
李 和	전주	무	1	1	2	開國	定社	佐命
李 良祐	전주	종친		2			定社	
李 福根	전주	종친		2			定社	
李 淑	전주	종친			3			佐命
金 士衡	안동	문	1	1		開國	定社	
河 崙	진주	문		1	3		定社	佐命
成 石璘	창령	문			3			佐命
趙 浚	평양	문	1			開國	定社	
李 舒	홍주	문	3			開國		
李 茂	단양	무		1	1		定社	佐命
趙 英茂	한양	무	3	1	1	開國	定社	佐命
沈 綜	청송	외척		2			定社	
吳 思忠	영일	문	3			開國		
李 天祐	전주	종친		2	2		定社	佐命
趙 溫	한양	무	2	2	4	開國	定社	佐命
李 稷	성주	문	3		4	開國		佐命
南 在	의성	문	1			開國		
趙 璞	평양	문	1	1	4	開國	定社	佐命
權 近	안동	문			4			佐命
李 叔蕃	안성	문		2	1		定社	佐命
張 思吉	의주	무	1			開國	定社	
金 輅	(미상)	무	3			開國	定社	
柳 亮	문화	문			4			佐命
孫 興宗	(미상)	(미상)	3			開國		
尹 抵	칠원	무			3			佐命
金 英烈	의성	(미상)			3			佐命
辛 克禮	영산	무		2	1		定社	佐命
鄭 擢	청주	문	1	2		開國	定社	
鄭 龍壽	(미상)	(미상)	2			開國		
劉 敞	강릉	문	2			開國		

성명	본관	문/무관	공신내용 및 등급			공신명칭
			개국	정사	좌명	
趙 捐	평양	문	2			開國
金 定 卿	(미상)외	(미상)		2	4	佐命
閔 無 咎	여흥	외척		2	1	定社 佐命
閔 無 疾	여흥	외척				定社 佐命
洪 吉 敗	남양	문	2			開國
安 景 泰	순흥	문	3			開國
韓 尙 敬	청주	문	3			開國
李 來	경주	문			2	佐命
黃 居 正	(미상)	(미상)	3	2	3	開國 佐命
金 承 暉	여수	(미상)			4	佐命
張 思 靖	(미상)	무	3			開國 定社
徐 益	(미상)	무			4	佐命
金 坤	과주	문			3	佐命
洪 恕	(미상)	무			4	佐命
李 敷	홍성	(미상)	3			開國
閔 汝 翼	여흥	문	3			開國
尹 子 當	안성	문			4	佐命
馬 天 牧	장흥	무			3	佐命
沈 龜 齡	안동	무			4	佐命

성명	본관	문/무관	공신내용 및 등급			공신명칭
			개국	정사	좌명	
徐 愈	이천	문			4	佐命
李 原	철원	문			4	佐命
朴 〇	나주	문			3	佐命
柳 沈	(미상)	(미상)			(?)	佐命
趙 涓	(미상)	(미상)			(?)	佐命
咸 傳 霖	강릉	문	3			開國
韓 珪	청주	무			4	佐命
李 從 茂	장수	무			4	佐命
延 嗣 宗	곡산	무			4	佐命
金宅(字)	회천	무			4	佐命
趙 希 閔	(미상)	(미상)			3	佐命
尹 穆	(미상)	(미상)			4	佐命
文 彬	(미상)	(미상)			4	佐命
朴 錫 命	순천	문			3	佐命
李 升 商	경주	문			4	佐命
李 膺	영천	문			4	佐命
宋 居 臣	(미상)	(미상)			4	佐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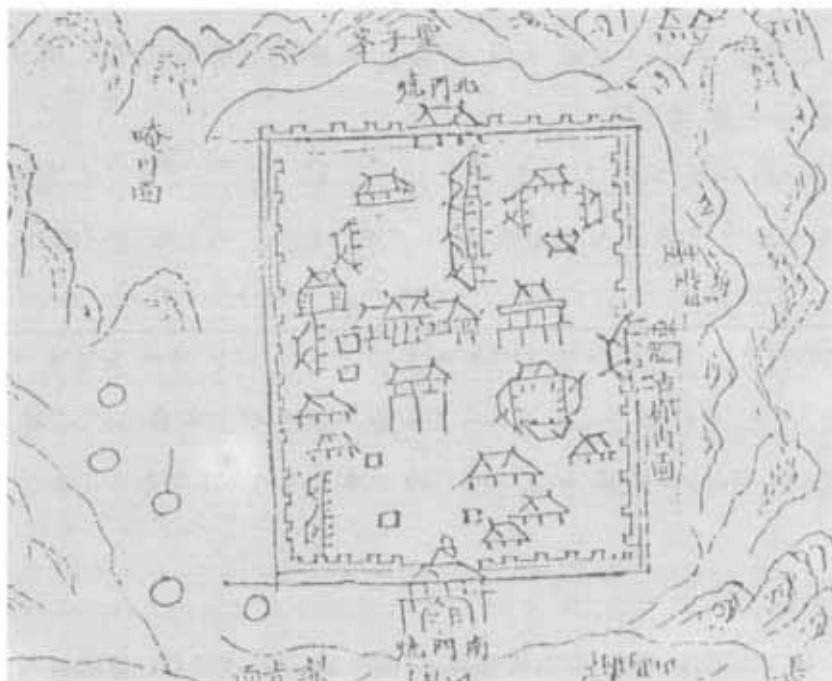
전라 병영성과 마천목 병사

59세의 나이로 부임한 전라병마절도사

전라 병영성의 전략적 지위

전설깃든 마천목 장군의 병영성 창설

병영에 건립된 장군의 사적비



전라 병영성과 마천목 병사

이처럼 마천목 장군은 조선초기의 정국안정에 기여하면서 좌명공신으로 책봉되어 가문의 영광을 누리는 것과 함께, 태종을 비롯한 국왕의 아낌을 받으면서 관리로서도 많은 공적을 쌓는다.

마천목 장군은 55세 되던 1412년(태종 12) 전라도 병마도절제사로 임명되어 변방의 군사책임자로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때 태종은 마천목 장군에게

“내가 경을 서울에 두고 시위하게 하고 싶으나, 다만 경의 노모가 전라도에 있으므로 모친을 모시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게 하고자 함이다. 경이 일찍이 전라도 시위군에 적을 두고 있었다가 이제 도절제사가 되었으니 또한 영광이 아닌가”

라 하면서 옷 한 벌과 활을 하사하였다고 태종실록은 전한다(「태종실록」 12년 5월 11일조). 태종의 이같은 물품 하사는 연이어 이루어지는데 태종 13년 9월에는 말 1필, 같은 해 10월에는 비단 1필, 태종 14년 9월에는 연회를 열어 위로하기도 하였다

59세의 나이로 부임한 전라병마절도사

이후 마천목 장군은 56세 되던 1413년(태종 13) 자헌대부로 승진되고, 이듬해에는 회령군에서 장흥군으로 봉해졌고, 59세 되던 1416년(태종 16)에는 다시 초대 전라병마도절제사로 부임하여 우리가 주목하는 전라병영성을 축조하게 된다.

1416년 회갑을 한해 앞둔 노년의 나이로 마천목은 전라도 병마도절제사로 부임하게 된다. 나라에서는 남해안을 침범하는 왜적을 막는데 가장 적합한 인재로 공을 발탁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강진 병영지역에서 전해지는 바로는 마천목 장군의 선대가 이곳과 많은 관련이 있음을 전해주고 있어 흥미롭다. 즉 마천목 장군은 이웃고을 출신이기도 하지만, 조부인 馬致遠이 장흥의 수령성을 축조하였고, 부친 馬榮 역시 왜구의 침탈을 막아 싸웠던 사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마천목 장군의 병영성 축조 인연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는 고려말부터 이어진 왜구의 빈번한 약탈로 큰 피해를 입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왜구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해안지역의 방비에 주력하게 된다. 그리하여 국가에서는 1397년(태조 9) 5월의 設鎭조치와 1398년의 設營조치로 전국의 변경지역 전략 요충에 營鎭들을 정비하였다. 당시 전라지역의 영진으로는 광산현에 전라병영이 설치되었고, 그 예하에 木浦, 兆陽, 沃溝, 興德에 4개의 진이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같은 편제는 연해지역의 왜구침탈을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방어하는데는 문제점이 많았다. 그것은 수군진영들이 너무 내륙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때문이다. 그리하여 초기의 진영정비는 이들 수군진영들을 점차 적의 진출로에 연한 해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재정비되어 갔다. 예컨대 전라도의 경우 옥구에 있던 수군처 치사영이 1408년(태종 8) 12월 무안의 大堀浦로 이동되는 것이 바로 그같은 예이다. 이같은 변화 속에서 1417년(태종 17) 정월에는 연해지역의 방어를 보다 강화하고 육군과 수군의 협력에 의한 방어를 모색하는 방편으로 내륙 광산현(현 광주 직



강진 병영성의 현존모습

할시 광산구 송정도 고내상성)에 있던 전라병영성도 연해지역인 강진의 병영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처럼 전라병영이 연해지역인 강진 땅으로 옮겨오며 따라 방어진역의 중첩을 피하기 위해 興德鎮은 扶安鎮으로, 木浦鎮은 茂長鎮으로 옮겨지기도 하였다.

태조대에 잠시 주춤했던 왜구들이 태종 때에는 적극적인 회유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침입하여 그 피해가 적지 않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왜구는 고려 후기 충정왕때부터 전라도와 경상도 남해안 지역에 침입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왜구침입기사는 『고려사』에 기록된 것만 해도 30여 회에 달하고 있고 그중 강진만 일대에만도 5회가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왜구 침입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그치지 않았다. 이에 태종은 내륙과 해안의 군사시설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제도를 재정비하여 적극적으로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라

도병영성도 해안에 인접한 강진 병영으로 옮겨오게 되었고 그 변화를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책임질만한 인물로 태종은 마천목 장군을 선발하여 임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라도 육군지휘부로서 위용을 자랑하던 병영성은 현재 강진군 병영면의 소재지로 800여 가구가 모여사는 마을로 변해 있다. 그러나 100여 년전 갑오경장으로 우리의 군사시설이 해체되기 전에는 이곳이 전라도 최대의 군사 주둔지였다. 조선시대 지방군제는 관찰사가 겸임하는 본영과 병마절도사가 관장하는 병영이 있었는데 전라도 본영은 전주에 있었고 이곳이 바로 병영의 주재지이자 병영성이 있던 곳이었다. 이 兵營은 조선조 500년간 전라도 육군의 총 지휘부로서 각종의 내우외환이 있을 때마다 그와 연관된 수많은 일화와 역사를 간직한 채 산 증거로 남아 있는 유서깊은 유적이다.

전라 병영성의 전략적 지위

병영의 전략지리적인 조건은 우선 이곳이 전라도 육군과 수군진 배치상의 요충일 뿐만아니라, 진산이 되는 수인산에 수인산성이라는 천연의 요새지가 있었던 점이 고려되었다. 이와 아울러 병영성 주변의 지형도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병영이 자리잡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즉 작천을 사이에 두고 서쪽의 서전과 동쪽의 병영 들판이 동서로 길게 펼쳐져 있으며 사방으로는 수인산을 비롯한 높은 산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 따라서 병영은 외부로부터 철저히 은폐되어 있으면서도 병영 들판의 땅이 기름져서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초대 병사로 부임한 마천목 장군은 왕에게 상소를 올려 병영성을 남해안 왜구가 오르내리는 길목에 옮기는 것이 전략상 유리함을 임금에게 아뢰어 윤허를 받아 강

진 수인산 밑에 몸소 병영성을 쌓았다. 이 보다 앞서 마천목 장군은 성보의 수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그것은 {세종실록} 1년 1월 9일 김점의 상소 중에서 보인다. 이 상소에서 김점은

노장인 장흥군 마천목이 자기에게 이르기를 “국가가 제방의 축조에 힘을 쓰고 있으니 그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지만, 그 보다 근본적인 것은 성보이다. 변방의 성보를 혹시 수선하지 않고 있다간 만약에 급한 일을 당하면 장차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마천목의 말대로 성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고 변방의 군비 강화책을 강조하고 그 중에서도 강고한 성축이 우선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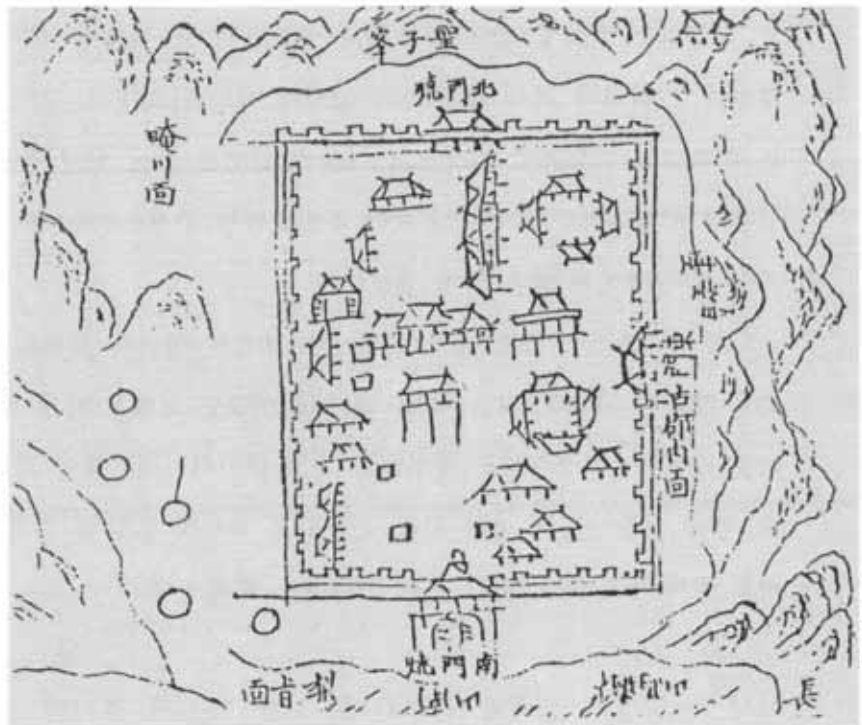
전설깃든 마천목 장군의 병영성 창설

전라 병영성은 일명 ‘雪城’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이러한 지명에는 마천목 장군이 성을 구축할 때의 일화와 관련되는 재미있는 사연이 깃들어 있다. 강진 병영 지역에 전해내려 오는 전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태종때 병영성을 이곳으로 이건설 당시 전라병사는 마천목이었다. 마병사는 병마절도사영을 옮기는 일을 맡아 현지의 지형을 상세히 살피게 되었다. 이때 마병사는 옛 도강현(강진현의 옛이름)의 치소가 있었던 하고리 일대와 ‘개성터’라고 불리우는 지점을 저울질하며 축성의 방략을 짜고 있었다고 한다. 전하는 말 중에는 마병사가 처음 박동리와 하고리 사이의 개성터



『감진현지도』 중의
전라병영성 지도



『호남읍지』 중의
전라병영성 지도

에 성터를 잡고 성축을 진행하다가 중도에 성터를 쌓기에는 마땅한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중단하였다고 하는데, 이 개성터에는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커다란 초석들이 일렬로 남아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농지정리로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다른 병영터를 물색하던 마천목 병사가 하루는 수인산 日望臺에 올라 이 일대를 둘러보다가 문득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백발노인인 앞에 나타나 활을 내놓으면서 활을 당겨보라 하므로 활을 받아 꿈속에서 활시위를 당겼다고 한다. 시위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두러보니 잠깐 졸고 있는 틈에 꿈을 꾸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는 꿈에 화살이 날아간 자리를 찾아간 즉 이상스럽게도 그곳에는 화살이 박혀 있었다.

마 병사가 이상스럽게 여기면서 곰곰이 주위를 둘러보니 화살이 박힌 곳은 족히 병영성의 東軒이 앉을 만한 곳이었다. 그는 이곳을 병영의 중심으로 작정하고 성축할 범위를 요량해 보았으나 또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시 마 병사는 고민에 쌓이게 되었다. 고민 끝에 마병사는 하룻밤을 뜬눈으로 지새우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새 눈이 수북히 쌓였는데 이상하게도 화살이 꽂혔던 동헌자리를 중심으로 마치 금을 그은 것처럼 눈이 쌓이지 않은 곳이 있었다.

그는 이 눈이 쌓이지 않는 곳을 둘러보면서 성곽의 범위로 이곳이 적당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에 '옳거니, 이것은 신께서 내게 성곽둘레를 알려준 것이다'고 생각하고 병사들을 시켜 여기에 성을 쌓아 올리니 어떤 다른 성에 비하여도 손색이 없는 튼튼하고 방어에 합당한 위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병영성은 일명 '雪城'이라고도 불려져 온다

는 것이다. 병영성의 신축과 관련된 또 다른 마천목 병사의 전설은 『兵營營誌』

(1895년)에도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뒷 부분에 약간 다른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다. 즉

처음 성을 쌓을 때에 병마도 절제사 마천목이 병영성의 동쪽 3리 가량의 산기슭 일망대에 올라서서 활을 쏘면서 하는 말씀이 '후세에 활을 잘 쏘는 자라 할지라도 능히 미치지 못할 것이며 적의 화살이나 돌맹이의 피해를 면할 것이다' 하고 화살이 떨어진 곳을 한계로 정하여 성의 둘레를 쌓았다.(병영성의 남쪽 3리 가량의 말동 모퉁이에 축성사적비가 묻혀있다고 전한다)

는 것이다.

마천목 병사가 이때 신축한 병영성은 그 규모가 성의 둘레 2820자, 높이 18자, 성가퀴 303개, 옹성 12개, 포루 2곳이며 남문은 2층 누각이며 동문, 북문은 단층 누각이고 성안 둘레에 연못이 5개인데 그 길이가 60자 폭이 33자, 우물이 모두 9개가 있었다고 『兵營營誌』는 기록하고 있다.

병영에 건립된 장군의 사적비

이같은 마천목 병사의 병영성 창설사적은 강진군과 목포대학 박물관에서 펴낸 「강진 병영성」 조사보고서에 상세하며, 이를 기리기 위하여 1992년 장흥마씨 후손들은 병영성의 옛터에 '강진 병영 초대병사 마공 사적비' (전라병영성복원추진위원회 위원장 房漢基 건립)을 세웠다. 그런가하면 1997년에는 병영성이 국가사적지 제397호로 지정(97년 2월 16일자)되어 이를 경축하는 강진군민들에 의해 초대 병사 마천목 장군의 행차가 가장행렬로 재현되기도 하였다.

〈자료〉 康津兵營 初代兵使 馬公史蹟碑文

공은 長興馬氏로서 휘는 天牧이요 자는 君總이며, 호는 梧川이고 시호는 忠靖이다. 서기 1400년에 上將軍으로 太宗을 도와 朴苞의 난을 戡定하여 佐命功臣에 敍動되고 全羅道兵馬節度使, 羅州牧使, 兵曹判書, 集賢殿 大提學 등 要職을 두루 거쳐 輔國 崇祿大夫 長興府院君에 封하고 領議政이다. 서기 1417년 全羅道 兵馬節度使 시절에 공의 啓請으로 光州에 있던 營을 南寇의 登陸地인 이곳 修仁山 밑에 옮겨 塿소 築城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이곳의 지명까지 병영으로 정착시킨 역사적 인물로서 그 英特한 護國精神과 이 고장에 끼친 餘韻을 길이 후세에 전하고자 주민의 뜻을 모아 비를 세우며 아울러 이 사업에 物心兩面으로 참여한 篤志家의 芳名을 陰記하노라.

西紀 一九九二年 十月 三日

全羅兵營城復元推進委員會 謹啓



강진 병영면에서 재현된
가장행렬모습

온 나라가 애도한 장군의 죽음

노장 마천목의 화려한 관력
온 나라가 애도한 장군의 죽음
곡성에 있는 묘소와 충정묘



은 나라가 애도한 장군의 죽음

노장 마천목의 화려한 관력

전라병영성의 기틀을 다진 마천목 장군은 이후 다시 서울로 돌아와 61세 되던 1418년(태종 18)에는 내시위 절제사가 되어 계속 나라의 큰 동량으로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주요한 마천목 장군의 관력과 특기 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63세 1420년(세종 2) 병조판서

65세 1422년(세종 4) 헌릉비에 각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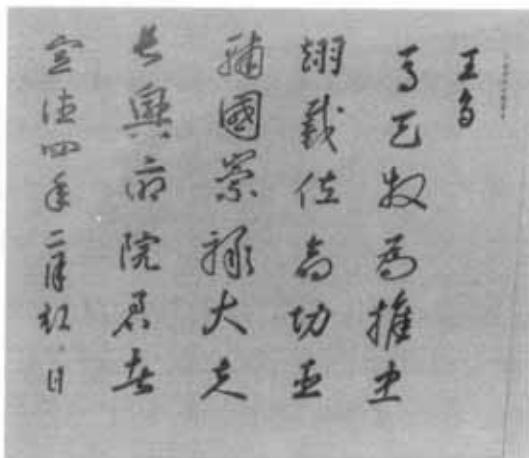
66세 1423년(세종 5) 판 우군도총제부사

67세 1424년(세종 6) 모친상 당함

71세 1428년(세종 10) 집현전 대제학 및 三軍府事

72세 1429년(세종 11) 보국승록대부 장흥부원군, 영돈령부사 겸 영중추부사, 사직

를 치내는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공신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



1429년 輔國崇祿大夫 長興府院君에 임명된 왕지

생전에 내려진 교지로는 다음과 같이 모두 4종이 전해진다.

(1) 1420년의 왕지

馬天牧 爲推忠胡戴佐命功臣正憲大夫兵曹判書者

永樂十八年七月十五日

(2) 1428년 왕지

馬天牧 爲推忠胡戴佐命功臣崇祿大夫行集賢殿大提學兼判三軍府事者

宣德三年七月十二日

(3) 1429년 왕지

馬天牧 爲推忠胡戴佐命功臣輔國崇祿大夫長興府院君者

宣德四年二月初三日

(4) 1429년 왕지

馬天牧 爲推忠胡戴佐命功臣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兼領中樞府事者

宣德四年二月初三日

한편 생전에 태종과 긴밀했던 정으로 1422년(세종 4) 현릉(태종과 원경왕후의 능 :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구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이 완성되자 그곳의 현릉비음기(尹淮 찬)에 공신으로서 마천목 장군의 이름이 새겨지는 영예를 누린다.

이같은 예우는 세종대에도 계속되어 1424년(세종 6) 마천목 장군의 모친인 평산 신씨가 돌아가자 세종께서는 종이 1백권과 초 10정, 쌀과 콩 20석을 하사하고 위로하였다. 그리고 72세 되던 1429년(세종 11) 2월 영돈령부사 겸 영중추부사를 사직하고 고향으로 퇴관하려 하자 세종은 황보인을 시켜 예조에서 전별연을 베풀어 주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온 나라가 애도한 장군의 죽음

향리에 돌아온 마천목 장군은 2년 뒤인 1431년(세종 13) 정월 25일, 74세를 일기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 세종대왕은 부음을 듣고 크게 애도하여 禮曹에 명하여 國葬을 치르게 하였다.



현릉 전경



마천목 장군의 이름이 새겨진 훈릉비각

『조선왕조실록』세종 13년 2월 1일 기사에는 그의 줄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장흥 부원군(長興府院君) 마천목(馬天牧)이 졸하였다. 천목은 장흥부(長興府)의 속현(屬縣) 회령(會寧) 사람으로, 홍무(洪武) 신유년에 산원(散員)에 보직되어, 누차 승진 천전(遷轉)한 끝에 대장군(大將軍)에 이르렀다.

기묘년에 상장군(上將軍)으로 전임되고 신사년에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의 칭호를 내렸으며, 곧 이어 동지총제(同知摠制)로 승진, 임진년에 전라도 병마 도절제사·판나주목사(判羅州牧使)로 나갔고, 갑오년에 장흥군(長興君)에 봉해졌다. 병신년에 도총제(都摠制)가 되었다가 다시 전라도 병마도절제사로 나갔고, 계묘년에 판우군부사(判右軍府使)로 승진되었다.

기유년에 치사(致仕)하기를 비니 특히 장흥 부원군(長興府院君)을 제수하고, 예조에 명하여 잔치를 배설해 전별하게 하고 녹봉을 전과 같이 주게 하였는데, 향년이 74세이다. 부음(訃音)을 아뢰니 조회를 3일간 정지하였으며, 내

사(內史)에게 명하여 가서 조문하게 하고, 쌀·콩 아울러 30석과, 종이 1백 권을 부의(賻儀)로 내렸다. 또 예관에게 명하여 치제(致祭)를 내리니, 그 교서(敎書)에 이르기를,

“신하로서 큰 공로가 있어 이미 시종(始終) 변함이 없었으니, 나라에는 상전(常典)이 있는지라 오직 훈전(恤典)을 특히 더하노라. 생각하건대, 경은 흉금(胸襟)과 도량이 크고 깊으며, 천성이 순수하고 행검(行檢)이 독실한데다가, 외적을 막는 재능이 뛰어나고 계략(計略)의 지혜 또한 구비하였으니, 실로 군왕의 우익(羽翼)이요, 국가의 주석(柱石)이라 이를 만하도다. 우리 태종(太宗)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에 사졸(士卒) 속에서 경(卿)을 발탁하사 군기(軍機)를 맡기시니, 경은 과연 대의(大義)를 따르고 사(私)를 잊었으며, 충성과 노력을 다하여 위험이 절박했던 그날에 창업(創業)을 도와 이루었고, 창졸간에 일어난 변란을 다스려 나라를 바로잡았던 것이니, 경의 충성, 그 용맹은 의당 산하(山河)에 맹세하고 이정에 새겨야 할 것이로다.



충정공 예장 묘소 전경 / 묘비

누차 총제(摠制) 직에 등용되고 인하여 장흥군(長興君)에 봉하니, 그 임용(任用)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사랑과 대우 또한 갈수록 후하여져 부덕한 내가 즉위함에 이르러서도 간성(干城)같이 의중(倚重)해 왔도다. 드디어 치사(致仕)하고 아버이를 봉양할 것을 원하였고, 곧 질병에 걸려 직사(職事)를 사양하기에, 부원군(府院君)의 숭품(崇品)으로 승진시키고 만년의 휴양을 바랐더니, 이 무슨 갑작스런 부음(訃音)이란 말인가. 아득한 저 하늘이 이 한 원로마저 남겨 두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마음 아프도다. 이에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전(致奠)하고 영령(英靈)에 고하여 나의 심회를 펴보는 바이노라. 아아, 슬프도다. 기뻐도 슬퍼도 정의는 같은지라 어찌 경의 옛 공적을 잊으며, 유명(幽明)을 달리 했어도 이치는 일반이니 나의 지극한 이 회포를 살피리라 믿노라.”

라고 하여 극진한 예우를 하여 谷城 通明山 癸坐原에 안장하였다.



신도비와 묘소도

곡성에 있는 묘소와 충정묘

충정공 마천목 장군의 예장묘소는 곡성군 석곡면 通明山 남쪽 10리 지점의 芳州洞에 위치한다. 이 묘소의 지형은 大明山의 東近峙로부터 내려뺀은 통명산의 남쪽으로 10리를 뺀어오다가 鷹峯이 섰고, 남으로 향하여 묘소가 있다. 산세는 전하는 바로는 “산뱀(蛇)이 미구리(蟻)를 쫓는 격”의 명당으로 일컬어지며, 栗木亭 쪽 아래의 봉우리가 안룡이 되니 계곡물이 왼편으로 흐르고 운흥사의 골짜기 물이 오른편으로 흘러와 서로 합류하는 형국이다.

충정공의 묘역은 남한 8대 명당의 하나로 전해지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묘역의 청룡능선은 명나라 이여송 장군이 임진왜란때 지원군으로 왔다가, 이곳에서 후일 중국을 침략할 인재가 태어날 곳이라 하여 그 혈맥을 절단했다고 한다.

당시 절단했다는 이 능선(길이 3m 폭 4m 넓이 6m)을 장흥마씨 중앙중회에서



충정묘 전경



정경의 영정 마전복 마정공



유림들의 충정묘 제향 광경



영모재 전경(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영모재 현판과 영모재기(1922년 尹肅求 찬)



영모재 앞의 구 신도비지와 증수된 신도비

복원 준비중에 있다.

묘소에는 석인상과 장명등, 묘비가 있다. 부인 경주이씨(1371- 1437)는 공이 죽은 다음해에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 이곳에 함께 모셨다. 위의 묘소가 충정공 묘소이고 아래가 정해택주 경주이씨의 묘소이다.

한편 마천목 장군 사후 5년 뒤인 1436년(세종 18)에는 領議政 兼 領經筵에 증직되고(교지 내용 : 馬天牧 爲推忠翊戴佐命功臣輔國崇祿大夫贈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 耆 正統元年四月 日). 이듬해인 1437년(세종 19)에는 예장 묘소의 사방 10리를 사패지로 하사하고, 1438년(세종 20)에는 부조묘를 명하여 이듬해부터는 곡성현에서 사림들이 춘추제향하도록 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적장종손으로 제사를 모심에 하자가 없도록 산지기(4호)를 특별히 구획하여 수호토록 하였다.

1438년의 부조묘가 허락됨에 자손들은 이곳 방주동에 부조묘를 짓고 위패를 모

서 오다가 1445년부터는 영정을 불안하게 되었다. 원래 충정공의 영정은 1401년(태종 원년) 좌명공신에 훈록될 때 태종이 훈부에 도상을 그리도록 명하여 완성되었던 것인데, 1445년(세종 27년) 후손 得致가 상소하여 영정의 부본을 봉안하고자 함에 부본을 하사받아 부조묘에 보관하게 되었다. 현재의 이름인 충정묘는 세조 3년(1457)에 '忠靖'이라는 시호를 내림으로서 비로소 불려지게 되었다. 1438년 창립된 이 충정묘의 건물은 그후 수차례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아쉽게도 그 자세한 사정은 알려지지 않고, 다만 현재 확인되는 바로는 1810년(순조 10)에 중수되었다가 1992년 대대적인 보수와 단청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충정공의 묘역은 일제시기까지만 하여도 아람드리 소나무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혀 있었다. 현재는 그 옛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못하여 후손들의 아쉬움이 큰 바 여기에는 6·25동란의 깊은 상처가 배어 있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후 남한에 고립되었던 북괴군이 이곳 통명산 아래 각 마을에서 식량을 약탈하고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정부에서는 충정공 사당을 비롯한 7~8개 마을 300호를 소개시키고 건물들을 소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마용화(馬龍華)는 청년으로서 당시 곡성 경찰서 崔龍恒 서장을 방문하여 충정공의 공덕과 위인됨을 설명하고 간절하게 유적지를 소각할 수 없음을 항의하였다.

이에 감복한 崔서장은 충정공사당 소각을 재고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마용화는 사당 건너편 안산에 있는 고지가 군경의 주둔지로 적합하며, 마침 이곳은 충정공 사패지이므로 그곳을 이용한다면 장흥 마씨 문중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이 제의를 받은 최서장은 즉시 현지를 직접 답사하고는 그곳에 경찰관 60여명을 20개월 동안 주둔시켜 충정공사당과 영모재, 장흥마씨 종가 유적과 인근 민가 300여호가 보존될 수 있었다. 당시의 급박했던 사정을 기억하는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고향과 재산을 소각 당하지 않은 것이 충정공 마천목 장군의 덕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현 곡성 석곡북초등학교 분교는 1938년 간이학교로 설립된 것인데, 이 학교 부지 3,200평도 충정공 마천목장군에게 하사된 사패지를 장흥마씨들이 기부한 것이

다.

그리고 급기야 1457년(세조 3)에는 '忠靖'이라는 시호를 하사받기에 이르러 마천목 장군의 후대 추숭은 절정에 이르게 된다. 충정이란 시호기는 "위험한 속에서도 어려운 것을 사양치 않는 것을 충(忠)이라 이르고, 관후(寬厚) 화평하며, 착한 이름을 지니고 세상을 마친 것을 정(靖)이라 한다(險不辭難忠 寬樂令終靖)"라 하였다.

한편 묘소의 입구에는 영모재가 있는데 종가와 부조묘(충정묘)가 있던 탓인지 재실이 없던 중에 1922년 가을 문회의 결정으로 창건한 건물이다(1922년 尹審求찬의 영모재기).

영모재의 전면 우측에는 구 신도비지를 알려주는 비가 세워져 있다. 이 비는 임진왜란 때 왜적들에 의하여 훼손되었다고 전한다. 충정공 마천목 장군의 신도비는 1917년에 건립한 이후, 1946년에 중수하였고, 현재의 신도비는 1992년 중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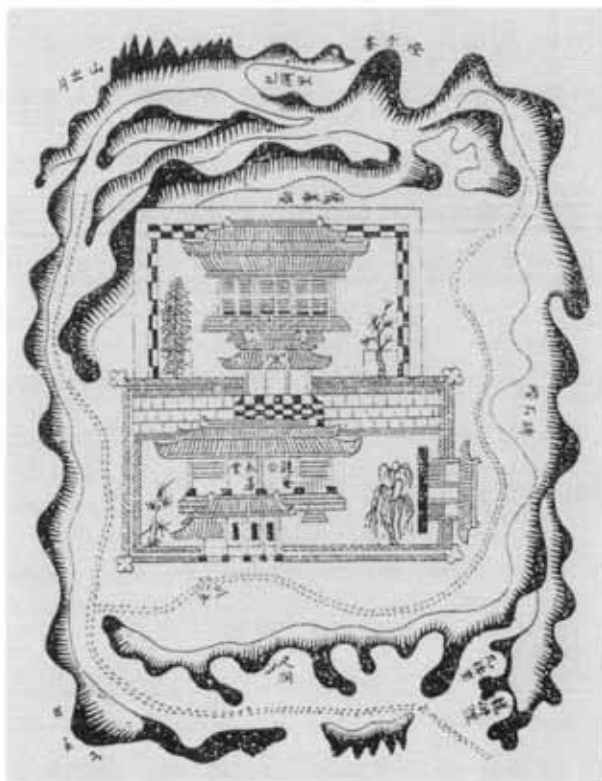
이 구 신도비는 세종대왕께서 하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군을 뒤이은 후예들

장남 文簡公派의 인물

차남 鈞隱公派의 인물

삼남 縣監公派의 인물



장군을 뒤이은 후예들

이상에서 우리는 마천목 장군의 일생과 나라의 동량으로서 그가 세운 여러 공적들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한 인물의 배출은 결코 한 시기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훌륭한 조상과 가문의 전통은 대를 이어가면서 새롭게 발휘되고 빛을 발하는 것이 보통이다. 마천목 장군의 가문도 그런 점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의 후손들은 마천목의 공훈을 바탕으로 후대에도 계속하여 국가에 대한 충절과 지극한 효성으로 가문의 영광을 이어갔다.

마천목 장군은 부인 경주이씨와의 사이에서 4형제를 두었는데 장남 勝은 慶州府尹, 開城留守를 거쳐 肅正대부에 올라 長興君에 봉해지고 文簡이라는 시호를 받는다. 차남 肱은 단양군수를 지내고 資憲大夫에 이르렀으며, 삼남 肱은 通訓大夫로 求禮縣監을 지냈고, 사남 月春은 鏡城에 유배되어 정착하였는데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이제 본장에서는 마천목 장군의 가계를 이어서 배출되는 충효 인물을 편의상 각 파별로 나누어 간략히 소개하여 보고자 한다.

장남 文簡公派의 인물

마천목 장군은 1393년 36세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장남 勝(1393~)을 보았는데,

〈십도〉 마천목 장군의 후손 가계도



勝은 곡성군 오지면 당산마을에서 탄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품체가 단정하며 도량이 크고 재주와 슬기와 뛰어나 마천목 장군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또 성품이 효성스러워 평소에도 부모를 극진히 모셨으며 사후에는 시묘 3년을 정성과 공경으로 다하였다 한다.(1922년 鄭承鉉 찬, 문간공 행장)

그는 21세 되던 1413년 부친의 공훈을 이어 병조좌랑에 임명된 뒤, 1415년에는 춘추관 편수관으로 승진하고 1417년(태종 17)에는 삼공신의 적장자들이 모여 회맹

하는 자리에 나가 종묘사직에 충성을 고하기도 하였다. 그후 세종때 상호군·대호군 등의 무반직을 역임하다가 문종 2년 개성유수로 승진하고 단종 2년에는 경주부윤에 이르렀다.

단종이 폐위되고 세조가 즉위한 뒤 전라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왕궁쪽을 바라보고 통곡하였다고 한다. 이후에도 세조가 여러번 높은 벼슬에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는데 이는 먼저 섬기던 단종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훗날 세상사람들이 그의 절개를 일컬어 '사육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생육신에는 부끄러울 바가 없다'고 하였다.

1456년(세조 2)에는 5공신 및 자손 회맹에 참여하였고, 1457년에는 승정대부에 승진되고 장흥군에 봉해졌다. 1459년 문간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1463년 71세로 서거하였다. 묘소는 석곡면 방주동 충정공 마천목 장군의 묘하에 함께 있고, 경북 의성의 崇節祠(禾山書院)에서 마천목 장군과 함께 제향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 단촌면 하화동 화곡에 위치하는 송절사(화산서원)는 충정공 馬天牧과 장자인 문간공 馬勝을 모시는 사우로 1925년에 창건되었다. 의성일대는 충정공의 6세손인 生海(1518-1577)가 그의 아들 雲宗 등 3형제를 이끌고 1602년 이거함으로서 터전을 마련한 곳이다.



문간공의 묘소전경

이 崇節祠(禾山書院)가 창건되는 유서는 이 지역에 세거하여온 문간공의 후예들이 충정공의 영정을 봉안하기로 뜻을 모으고 호익·호경이 곡성 종손택에 보존된 영정을 이모하여 1855년(철종 6) 梧川影堂을 건립한데서 비롯된다.

일제시대인 1925년 개수하면서 송절사라고 개칭하고 1970년에는 지방 유림의 발의로 충정공의 장자인 문간공까지 제향하게 되면서 다시 화산서원으로 이름을 고친뒤 1986년에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자료편 참조)

문간공의 가계에서 배출된 후예로는 馬成勳과 馬雲宗, 馬溫宗, 馬之龍 등을 들 수 있다.

馬成勳(1533- ?)은 충정공 마천목의 7세손으로 浮海의 아들이다. 1533년 곡성 석곡면 지신동에서 태어났으며, 지극한 효성과 지조와 절개가 탁월하여 칭송을 받았으며, 음직으로 총좌위 부사용이 되었다. 왜란이 일어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죽으려 하였으나 노친이 계시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야로 나라를 걱정하며 향을 피워 하늘에 빌었다고 한다.

이때 齋峯 高敬命이 찾아와 공의 지혜와 덕망을 칭송하며 의병을 거느려 줄 것



송절사 현판



송절사(화산서원) 전경

을 청하였다. 공이 부친의 봉양을 생각하고 머뭇거리자, 부친 사적공(浮海)이 말하기를 '충과 효는 근원이 같다. 어찌 국난을 당하여 충성하지 않을 것이냐' 하고 독려했다 한다.

이에 그는 종제인 룬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감군이 되었다. 그러나 미구에 사직하고 고경명에게 말하기를 나는 장차 부모를 봉양하려 하니 공이 난리를 평정하라 하고 향리에 돌아와 부모 봉양을 하였다. 이같은 행적을 고경명의 후손으로 곡성현감에 부임하였던 高廷憲은 馬成勳의 行狀 중에서 "비록 싸우다 죽지는 않았지만, 충효를 하나로 본 충의가 가상하며, 국가로 부터 포장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 뜻이 크며 사람들이 애석하게 생각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문간공의 후손중 生海의 계통은 1602년 충정공의 6세손 生海가 아들 雲宗 3형제와 함께 의성지역으로 이거하여 대대로 세거하였는데, 이거 직전의 雲宗(1544-1620)과 溫宗의 의병 행적이 알려지고 있다.

雲宗은 生海의 아들이자 앞에 소개한 성훈의 종제이다. 1544년 곡성군 석곡면 지

신동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기개와 도량이 당당하였다고 한다.

충의위 부사직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중형제들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사는 동안 천지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공신의 후손이다”라 하고 슬기로운 계책으로 적을 여러 번 공격하여 격퇴하였다. 이로써 원종 공신록에 올랐는데 공신록에는 “적의 무리가 두려워 항복함에 나라가 태평하니 위풍이 당당하여 지금까지도 일월같이 분명하도다”라 하였고, 『호남삼강록』에도 이와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602년에 두 동생과 함께 의성으로 이거하여 은거하였고, 후에 가선대부에 증직되었다(李鐸 찬 행장). 동생 溫宗(1546-1611)도 같은 행적이 『호남삼강록』에 적혀 있다.

한편 이 문간공의 가게에서 또 하나의 충절인물을 배출하니 그는 충정공의 10세 손인 馬之龍(1602-1642)이었다.

마지룡은 호를 竹菴이라 하였으며 선전관을 지낸 마태백의 아들로 김제 반산 태동에서 1602년 출생하였다. 서예에 능하였고 장성하면서도 용맹스럽고 힘이 남달랐고, 말타고 활쏘는 등 문무에 능통 27세에 급제하여 어영장군에 이르렀다.



馬嘉璣의 遺墟碑 (경남 합천군 봉산면 노곡리)



馬之龍의 정려(전북 김제시 죽동)



경남 함양에 있는 馬挺立의 정려



馬慶璉과 馬嘉璉, 馬伯淑을 기리는 忠義閣.

병자호란으로 효종이 봉림대군으로 심양에 갔을 때 공이 발탁되어 대군의 행차를 호위하게 되었다. 이때 청의 요구로 명나라를 공격하게 되었는데, 이때 공은 부하들에게 명나라는 우리를 도왔던 원군이니 살족이 없는 화살과 총탄없는 총을 쏘라고 비밀로 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이 탄로되어 1642년 그곳에서 피살되었다. 1694년(숙종 20) 2자인 만호 冀賢이 상소하여 정려를 포장받았다. 마지룡의 정려는 현재 전북 김제시 죽동에 소재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가계에서는 7대손으로 곡성에서 서울로 이거한 가문에서 7세손 馬挺立이란 충절인물이 배출된다. 그는 1582년 출생하여 1633년 단양군수를 역임하고 1636년 병자호란때 갈파진 침사로서 마천령에서 청군과 싸우다 순절하였다. 고종 29년(1892) 충신의 명이 내려 경남 함양군 함양읍 기동 마을에 정려를 건립하였다. 정려기는 경상감사 이현영과 충청감사 정태현이 지었는데 이 두글을 1983년 후손들이 하나의 비석에 새겨 건립하였다. 한편 정유재란때 황석성 싸움에서 함께 순절한 馬慶璉과 馬嘉璉형제, 그리고 마가련의 아들 馬伯淑의 행적도 주목된다. 경남 함천군 봉산면 노곡리에 이들의 충절을 기리는 忠義閣이 있다.

차남 鈞隱公派의 인물

마천목 장군의 차남은 馬月典(1395- ?)으로 자는 厚卿이요 호는 鈞隱이다. 丹陽 貝을 역임하고 자헌대부에 가자되었다. 세조 2년(1456)에 咸陽군수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 하였으며 또한 平安道按廉使에 임명되고도 역시 나아가지 아니 하였다. 만년에 장흥부 泮陽江上에 은거하면서 성리학 탐구에 전념하였다. 남아 전하는 글로는 戒子銘과 시 南歸詠懷 등 수편이 전하는데 이중 「戒子銘」은

생각하니 내 아버지 충정공께서는 나라에 가장 큰 공훈을 세워 좌명공신의 영광과 높은 벼슬에 올랐으며, 또한 벼슬이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그

런데 “그릇은 차면 반드시 넘치는 법이요, 겸양은 더할수록 유익하다”는 진리를 생각하라. 세상이 변하여 새로운 사조가 성하여 견잡을 수 없으니 걱정이 다. 너희들은 마음을 돌려 탐욕에서 벗어나고 권세를 피하라. 또 분에 넘치는 부귀는 상스럽지 못한 것이니 오직 학문에 힘써서 높은 벼슬을 하되 뒤집히는 욕됨이 없게 하라 이를 너희들의 글방 좌우명으로 하기 바란다

라는 내용으로 자손들에게 부귀와 권세를 탐하지 말라고 훈계하고 있다. 이 가계에서는 馬河秀로 대표되는 충절인물들이 배출되었고 현재 장흥 충현사에 충정공 마천목 장군과 이 가계에서 배출한 인물들이 제향되고 있다.

장흥 안량면 학송리는 마천목 장군의 차남인 釣隱 馬腆의 후예들이 세거하는 곳으로 이곳에 충현사가 처음 건립되는 과정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충정공 마천목 장군의 영정을 봉안했던 영당으로 시작되었다(1840년 현감 兪星柱 찬의 忠顯祠記 참조).

그러나 불의의 화재로 이 영당이 소실되자 영정만을 보존해 왔다고 한다. 그러다가 정조 20년(1796)에 도내, 장흥의 유림들이 상응하여 사우 건립을 발의하게 되었지만, 어떠한 연유가 있었던지 미처 성사시키지 못하다가 35년 후인 1830년(순조



장흥 충현사 전경

30) 9월에야 학송리 華蓋山 밑에 사우를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충정공 마천목을 주축으로 하여 장흥에서 배출된 충절인 7세손 주촌공 馬河秀, 9세손 果窩 馬河龍을 추배하기에 이르렀으며, 대원군의 서원 훼철이후 광무 6년(1902)에 설단하면서 충정공의 제2자인 鈞隱 馬膺을 제향하기에 이르렀다.

馬河秀(1538-1597)는 충정공 마천목의 7세손으로 자는 先天이요, 호는 舟村이며 副司直 麟瑞의 아들이다.

부친인 馬麟瑞(1512-1594)는 부안 변강에서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가 순절하여 초혼장을 치룬 인물로 후일 부사직에 증직되었던 인물이다. 중종 33년(1538)에 장흥 주암촌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기개가 남달라 무릇 여러 아이들 중에서 단연 빼어났다고 한다. 南溪 金胤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학업이 이루어졌는데, 스승 남계는 후일 대성할 재목이라고 늘상 말하였다 한다.

명종 19년(1564)에 별시무과에 급제하여 선조 18년(1585)에 선공감 주부가 되었으나 곧바로 사직하고 집에 돌아와 부모를 봉양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공은 분개하여 사생결단으로 왕을 섬기고자 하였으나 노친을 모신터라 대신 아들 爲龍을 장흥출신의 선산군수 丁景達에게 보내 의병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선조 28년(1595)에 장흥군수 裒興立이 항병을 이끌고 적을 토벌하고자 공에게 부장의 자리를 청하였으나 노친이 계시므로 사양하니 아버지 사직공이 이르기를 “君父는 일체니 오직 나라에 충성함은 그 어버이의 영예라” 하고 쾌히 허락하였다.

장자 成龍으로 사직공을 받들어 병란을 피하게 하였지만, 부친이 적에게 피살되는 불운을 당하자 복수를 맹세하고 정유재란(1597)에 이충무공과 회령포에서 만나 적을 토벌할 계책을 협의하고 같은 고을 사람들인 松湖 白振南, 霽巖 鄭鳴說, 休庵 文英凱 등 10여 인과 더불어 鄉船을 모아 왜적과 싸웠고, 명량해전에서 또한 향선을 거느리고 항전하다가 이충무공이 적에게 포위됨을 바라보고, 두 아들 성룡, 위룡 등 3부자가 함께 돌격 적진하다가 순절하였다.

장자인 成龍(1564-1631)은 호를 竹窓이라 하였는데 정유재란때 부친을 도와 아우 위룡과 함께 향선 10여 척을 모아 충무공 이순신의 후원군으로 명량전투에 참가하

였다. 부친이 이곳에서 전사하자 부상당한 몸으로 상처를 부친의 시신을 거두어 배에 안치한후 아우와 함께 적에게 돌진하여 대파하였고, 이때에 입은 상처가 악화되어 죽었다.

마하수의 2자인 爲龍(1576-1638)은 호를 松坡라 하였는데, 부친의 명으로 입진왜란때 정명열의 선산군영에 들어가 공을 세워 관관에 제수되고 첨정에 승진하였다. 정유재란때 부친을 도와 형 성룡과 함께 충무공의 막하로 들어가 명량해전에 참가하였다. 부친이 이 전투에서 순절하시자 시신을 거두어 염한 후 복수를 하고자 상복을 입고 다시 진중으로 들어가서 싸우다 충무공이 순절하자 시묘하며 상복을 입었다고 한다. 아들 時雄과 아우 而龍은 병자호란때 의병을 일으켰다.

삼남인 馬而龍(1581-1653)도 17세에 부친 마하수가 명량해전에서 순절하자 통분을 이기지 못하여 원수를 갚고자 병서를 연구하여 모래위에 집법도를 그리고 천문지리학을 연구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광해군 4년(1612) 무과에 급제한뒤 인조 6년(1628) 녹포진관이 되었다.

1636년에 전라좌수영 우후가 되어 조카인 時雄을 데리고 호란에 출병하였다가 우수영에서 화의 성립의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1638년(인조 16) 사임 귀향하였는데 어사 민정중이 천거하여 낙안군수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위룡의 아들인 馬時雄(? -1674)은 음사로 직장에 올랐는데 병자호란때에 중부인 우후공 而龍을 도와 좌수영에 있다가 그와 함께 병자호란에 출병하였으며 화의가 성립됨에 돌아왔다.

삼남 縣監公派의 인물

강진은 마천목 장군이 초대 전라병사로서 병영성을 창설한 유서가 있는 곳으로 이 지역에는 마천목 장군의 3자인 馬胖(통훈대부 구례현감)의 후손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대대로 세거지인 강진군 작천면 척동에는 현재 충정사가 위치하여 장군과 후손들의 유서를 기리고 있다.

강진 충정사는 마천목 장군과, 후에이면서 역시 충절로 이름을 날렸던 馬應房(1524-1597)과 馬應井(1532-1597)을 제향하는 사우이다. 원래 이 사우는 1854년(철종 5)에 충정공의 영정을 봉안하기 위하여 용암 마옹방이 평일 후학들을 강학하던 곳에 영당을 마련했다가 3년 뒤인 1856년 정월 25일 후손과 사람들이 힘을 합쳐 사우로 발전시켰다.

충정공 마천목의 7세손인 馬應房(1524-1597)은 참봉 希禎의 아들로 강진에서 태어났다. 자는 精叔, 호는 龍菴이라 하였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고 명종 4년(1549)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1566년(명종 21) 문학 효렴으로 천거되어 1567년에는 진안현감, 1569년에는 흥덕현감으로 임명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 남원성이 적에게 포위되자 종제인 마응정과 함께 병사 이복남에게 이르기를 “전세가 다하고 힘이 없으니 살아서 나라에 보답하지 못할진대 죽어 마땅히 원귀가 되어서라도 적을 섬멸하겠소”라 하고 적진에 돌진하여 수십 명의 적을 참살하고 적탄에 맞아 순절하였다. 이복남 병사가 이를 보고 칭송하기를 “이 노인이 노익장의 기개를 지녔다”고 하였다.

이같은 용암 마옹방의 충절을 기리려는 강진 유생들의 노력으로 1806년(순조 6) 호남사람들이 상언하여 좌승지의 증직을 받고, 1809년에는 다시 이조참판으로 증직



강진 충정사 전경

되며 1829년에는 충신의 정려를 하사받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830년에는 도내 유림들이 사우의 건립을 駕前上疏로 청원하였으나 성사시키지 못하였으나, 척동에 충정공의 영당이 건립되고 1856년 사우로 변화됨을 계기로 충정공과 용암 마응방을 배향하게 되었다.

그의 종제인 馬應井(1532-1597)은 希祥의 아들이며 자는 奎甫, 호를 雲菴이라 하였다. 공은 절개가 굳고 효성이 지극하였고, 정유왜란이 일어나자 가동들과 의병을 인솔하고 종형 마응방과 남원에 가서 성을 방어하다가 순절하였다. 순조 7년(1807) 좌참찬에 증직되었고 강진 충정사에 배향되었다.

한편 이 가계에서는 학행으로 이름을 날렸던 馬河龍(1697-1783)도 배출된다. 그는 충정공 마천목의 9세손으로 자는 澄瑞요, 호는 果窩이며, 之綱의 아들로 숙종 23년(1697)에 강진 작천면 구상리에서 태어났다. 陶庵 李縉 문하에서 취학하여 과거 시험보다는 오로지 爲己之學에 전념하여 문학과 行誼로 세상에 알려졌다. 漢湖 金元行, 雷淵 南有容 등과 더불어 도의지교를 맺고 일찍이 장흥 가지사에서 후학들을 강학하였고, 거처하는 室의 서재이름을 果窩라 하였다.

□ 자료 □

마천목 장군 관련자료와 유적·유물

1. 마천목 장군의 행적기록

- | | |
|--------------|-----------|
| (1) 年譜 | (2) 神道碑文 |
| (3) 行狀 | (4) 墓碑銘 |
| (5) 梧川遺事 | (6) 杜溪箭記事 |
| (7) 谷城誌 杜溪箭 | (8) 神虎報恩說 |
| (9) 全羅兵營設城記事 | |

2. 마천목 장군의 유문과 유물

- (1) 충정공 유시
- (2) 왕지
- (3) 공신녹권·교서

3. 마천목 장군 관련 유적

- | | |
|-----------------------|-------------|
| (1) 충정묘 | (2) 묘소와 永慕齋 |
| (3) 신도비 | |
| (4) 康津 兵營城과 마천목장군 史蹟碑 | |
| (5) 의성 송절사(화산서원) | (6) 장흥 충현사 |
| (7) 강진 충정사 | (8) 청원 충정사 |

□ 자 료 □

마천목 장군 관련자료와 유적·유물

곡성이 자랑하는 마천목 장군은 1358년(공민왕 7)에 태어나서 1431년(세종 13)에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치신 고려말·조선초의 무신이다.

본관은 장흥(長興)으로 현재의 보성면 회천면 모원촌에서 태어나 15세 때에 외가가 있는 곡성 오지면 당산촌으로 이거하여 곡성 땅과 인연을 마련하였다. 장군의 집안은 조상들이 대대로 장흥부 회령현(회천면과 웅치면 일대)의 저명 토성 가문으로 고려시대의 고관을 역임하였던 가문이다.

마천목은 1381년(우왕 7) 산원(散員)이라는 무관직으로 처음 관직에 나아갔는데, 鄭地 장군의 휘하에서 활약하였다는 실록의 기록을 토대하면 아마도 이때에 왜구의 침략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후 여러 차례 승진하여 조선 건국을 이루는 태조 초에는 대장군(大將軍)이 되었다. 1398년(태조 7) 제 1차 왕자의 난 때에는 정안군(靖安君)을 도와 공훈을 세웠다.

1399년(정종 1) 상장군(上將軍)이 되고 이듬해 제 2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자 정안군의 선봉이 되어 크게 공헌하여 1401년(태종 1)에는 좌명공신(翊戴佐命功

臣) 3등에 녹훈되면서 회령군(會寧君)에 책봉된다. 당시 내려졌던 공신녹권과 교서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한편 1409년에는 고향인 곡성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이해 9월 감순청(監巡廳)의 아전이 죄를 짓자 이를 문초하다 치사한 사건으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태종의 배려로 고향인 곡성(谷城)에 유배됨에 그쳤던 것이다.

그후 그는 전라도도절제사, 용기사위사절제사(龍騎侍衛司節制使), 전라도 병마도절제사 판나주목사(全羅道兵馬都節制使 判羅州牧使) 등 무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다.

1414년에는 장흥군(長興君)으로 개봉(改封)되고, 1416년에 전라도병마도절제사로 파견되어 강진 병영성을 축조하게 된다. 이후에도 여러 관직을 역임하다가 1424년 3월 편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다시 곡성으로 하향, 곧 어머니상을 치렀으며, 이듬해에 연로를 이유로 치사를 청하였으나 도리어 장흥부원군(長興府院君)에 봉해진다. 사후 국가의 예장이 치루어졌으며, 부조묘가 내려지고, 충정(忠靖)이라는 시호도 받았다.

본 자료편에서는 이같은 마천목 장군의 일생관련 기록, 유고와 유물, 유적들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1. 마천목 장군의 행적 기록

(1) 연 보

	공민왕 7년(1358)	장흥부 모원에서 탄생. 별레가 나뭇잎에 '天牧'이라 새김
5세	공민왕 12년(1363)	스승에게 나아가 공부하다. 재예가 총명하다고 평하다.
15세	공민왕 21년(1372)	부모를 따라 곡성군 오지면 당산촌으로 이사.
17세	우 왕 원년(1374)	순자강 두계천에서 은어를 잡아 봉양하여 지극한 효성으로 칭송.
19세	우 왕 2년(1376)	도깨비의 두계천 어살 설치와 호랑이의 도움 전설.
21세	우 왕 4년(1378)	경주이씨(父 목사 彬)와 혼인.
24세	우 왕 7년(1381)	散員에 임명
28세	우 왕 11년(1385)	부친상을 당함
36세	태 조 2년(1393)	장남 勝이 출생
37세	태 조 3년(1394)	司直에 승진
38세	태 조 4년(1395)	차남 腴이 출생
41세	정 종 원년(1398)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함. 삼남 胖이 출생. 대호군에 승진
42세	정 종 2년(1399)	절충장군에 승진함
43세	태 종 원년(1400)	태종을 도와朴苞의 난을 평정함
44세	태 종 1년(1401)	좌명공신에 서훈, 同知摠制, 金帶 하사. 혼부에서 도상을 그림
45세	태 종 2년(1402)	회령군에 봉함. 태종이 말 1필 하사
46세	태 종 3년(1403)	사남 腠이 출생함
47세	태 종 4년(1404)	개국공신, 정사공신, 좌명공신이 회맹.
49세	태 종 6년(1406)	행 영변 대도후보사에 임명

50세	태 종 6년(1406)	龍驤龍騎龍武司 上護軍이 됨
51세	태 종 8년(1408)	건원릉비에 삼공신과 함께 공훈과 이름이 새겨짐
52세	태 종 9년(1409)	9월 전리의 일로 곡성에 유배, 10월 전라도 도절제사
55세	태 종 12년(1412)	전라도 병마도절제사 판나주목사에 임명
56세	태 종 13년(1413)	자헌대부에 승진
57세	태 종 14년(1414)	장흥군으로 改封(음호 회령을 장흥으로 개칭)
59세	태 종 16년(1416)	도총관 전라도 병마도절제사
60세	태 종 17년(1417)	전라도 병영성 쌓음.
61세	세 종 원년(1418)	內侍衛 節制使
63세	세 종 2년(1420)	정현대부 병조판서에 임명됨
65세	세 종 4년(1422)	헌릉비에 삼공신과 함께 공훈과 이름이 새겨짐
66세	세 종 5년(1423)	판우군부사에 전임
67세	세 종 6년(1424)	모친상을 당함
71세	세 종 10년(1428)	집현전 대제학 겸 삼군부사에 임명
72세	세 종 11년(1429)	보국승록대부, 장흥부원군에 봉함, 영돈령부사 겸 영중추부사에 임명
74세	세 종 13년(1431)	정월 25일 별세. 세종이 예관을 보내어 치제(사제문·춘추제향 축문)
	세 종 17년(1435)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에 증직 됨
	세 종 19년(1437)	예장묘소 사방 10리를 사패지로 하사함.
	세 종 20년(1438)	곡성 석곡 방주동에 부조묘를 건립하고 적장손이 지키도록 명함
	세 종 21년(1439)	곡성현에 춘추제향을 명함
	세 종 27년(1445)	훈부에 보관된 영정 부분을 곡성영당에 보관하도록 허락
	세 조 3년(1457)	'충정'이란 시호를 내림

(2) 신도비문(忠靖公 神道碑文)

※ 후술하는 마천목 장군 유적 중의 “신도비” 참조

(3) 행장(忠靖公 行狀)

五、依命功臣 長興府院君 馬天牧

(1) 忠靖公行狀 (忠靖公이 생생히 지낸 일들이 복한 글)

公姓馬氏諱天牧徽陽之三曰有椿晉澤井出離成字曰天牧皇考曾公見而其之因而錫名君樹梧川其字若號也始祖殿陽城人馬浼系出長興高麗判國城尹繼仁爲一世祖世暨冠冕三傳諱希捷門下侍中諱文範是生諱仲奇政堂文學諱文剛於公爲六世高祖諱智伯戶部尚書實文閣學士曾祖諱壽孫平章事祖諱致遠宗簿令封冠山君考諱榮奉宗卿贈左贊成封會寧君妣貞徽夫人平山申氏大將軍用村女公以恭愍戊戌生子長興顯岳山下草原村具泉骨格魁偉才藝聰敏年未就傅博通經史鄉里觀者咸以邁大期之中歲隨贊成公移居谷城之雲山村事親至孝遂日進釣于鶴江下流杜溪川上以供甘旨一日墓路拾青黃怪石而歸夜有鬼半數于羅拜于庭曰徒等方山甲也今日大監所檢之石乃徒等之帥黃石公也繼爲出給公曰吁白面書生以大監何也甲又曰異日當爲府院君大監故也公曰汝往杜溪築爵而選則當出給右石兵鬼卒唯唯而去說即告訖翌朝往視則果完器焉既長贊力邊備武略超等以英雄豪傑之資懷效君澤民之志 建文庚辰以雄武侍衛司上將軍佐 太宗既定朴苞之亂平已錄推忠奮義莫敢佐命勳三等贈形顯顯勳功勳奉其 教書略曰不遇盤桓何以誠利器不賴良士無以定國亂惟爾不羈之才秉難奪之節力可以扼虎勇可以兼人通變適用徇義忘身服勞王家夙著成績且精於射藝發而必中所謂懸懸之士爪牙之才者也當選臣朴苞等陪侍宗親編亂之日 社稷之危聞不容髮爾乃不受驅命以徇大義奮臂而群凶攝伏長吁而大驚克清扶 社稷於累卵之危措國家於泰山之安仍 命有司紀績錫碑賜上田畝獲銀帶一襲表裏一垂旒馬一匹兼有父母妻封贈子孫蔭職省及後世之教 太宗甲申封會寧君修會盟錄戊子授元陵 聖碑公名亦載陰記虎寅寅爲寧遠府事題詩藥山東臺有江山蕭風鳴木天地精神月掛秋之句壬辰爲羅州牧使發已陞資憲 朝廷以公有竊達才了百餘全羅兵使之時管在光州公以康津爲南寇登陸之處且有形使 啓請移營于康津修仁山下創畫城址發日望臺射之曰後世射者鮮能及此賊之矢石亦可免矣限落箭處設城厚陞正憲拜兵曹判書有詩云半空宮道佳人親千里風飄大將旗 宣德戊申召入 獻陵諱陰記行幕督殿大提學兼判三軍府使已百餘輔國李樸大夫封長興府院君乙卯林茂敦宰府事兼判中樞院事 世宗辛酉正月二十五日考終于寢享年七十四計開世宗宣宗兩朝 贈大匡輔國李樸大夫議政府領議政兼 領經筵諡忠靖 命地師卜地禮葬于谷城通明山南麓石谷面芳洞洞祭坐房臨碑四方十里之地仍 命不施之典又 賜畫具一本配定惠宅主慶州李氏牧使相女學四男長曰麟號智谷官至奉政封長興君諱文簡次曰麟號約遜官資憲次曰麟通訓大夫次曰麟 贈兵部士林基公忠義建忠廟祠于長興鶴松里康津尺洞忠靖祠而祖且之 高宗戊辰見撤而只有講堂焉嗚呼今距公之世爲四百九十九有餘年平日言行必多可書而兵燹之餘文獻多闕碑誌歎稿亦且未遠是固可恨然公之所以不朽者惟扶 聖躬排患難功存宗枋名垂竹帛是莫大之樹立而當與日月由岳同其輝 久則餘皆可莫真不世出之豪英也使公而生在今日則掃除奸克興復漢室豈不與以稅回一治之運耶嗚呼矣主德孫孫華議不明不仁之成使孫人大覺龍河千里踏頭來詢狀德之文獻惟懼教賊品又味識見烏能橫寫其萬一哉固辭不獲謹據實紀願其大者如右云 玄熙間茂基奉者前院節月城崔永作謹狀

(번역) 공의 성은 長興馬氏요 이름은 천목이다. 태어난지 삼일만에 오동나무 잎이 우물에 떠있는데 벌레가 오동잎을 갉아 天牧이라 새겨져 있으므로 아버지 찬성공(榮)이 보고 기이하게 생각하고 이를 이름으로 하였다. 君戀은 공의 字요 梧川은 호이다.

공의 시조는 殷陽城人 馬浣이며 고려조의 판개성윤 赫仁을 一世祖로 하여 대를 이어 벼슬을 이어받고 3대의 휘는 希援인데 문하시중을 지내고 시호가 文毅이며 아들은 仲奇로 정당문학을 지내고 시호가 文剛이니 공의 6대조다. 고조는 智伯인데 보문각 학사 및 호부상서를 지내고 증조 壽孫은 平章事를 지내고 祖는 致遠인데 종부의 淑을 지내고 冠山君에 추증되고 부는 榮인데 奉常大夫를 지내고 의정부좌찬성 會寧君에 추증되었다. 어머니는 정경부인 평산신씨이며 그 부는 대장군을 지낸 用材이다.

공은 고려 공민왕 무술년(1358)에 장흥 獅岳山 밑 茅原村 眞泉에서 탄생하셨는데 체격이나 얼굴생김이 뛰어나게 훌륭한데 재능과 기예가 총명하고 민첩하더니 나이 어려서부터 경서와 사서에 통달하여 향리에서 모두 큰 인물이 되기를 총망하더라. 중세에 아버지를 따라 곡성의 堂山村에 이사하여 살면서 어버이에 효도하고 날마다 순자강 하류 杜溪川에서 고기를 낚아서 부모를 봉양하는데 하루는 날이 저물어 돌아오는 길에 청황색의 괴상한 돌을 주워 왔더니 그 날밤 귀졸 수천이 뜰아래 엎드려 절하며 말하기를 '저희들은 근방의 산에 있는 귀졸 아무개입니다. 오늘 대감께서 주워오신 돌이 우리들의 장수 黃石公입니다. 돌려주소서' 하니 공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글만 알고 세상일에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대감이라 부르느냐?' 고 물은 즉 귀졸들이 말하기를 '장차 부원군 대감이 될 것입니다' 하니 공의 말씀이 '너희들이 두계천에 발을 막아주면 너희 장수를 돌려주리라' 하니 귀졸들이 '예! 예!' 하고 달려갔다가 바로 바로 돌아와서 발을 다 막았다고 하므로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 과연 발이 설치되어 있더라.

공이 장성하니 완력과 담력 그리고 무력이 또래에서 뛰어나 영웅호걸의 자격을 갖추더니 군자가 되어 민생을 윤택하게 할 뜻을 품더라. 경진년(1400)에 雄武侍衛司 上將軍으로 태종을 도와서 朴憲의 난을 평정하니 다음해에 정의와 충정을 드러낸 포장을 천거하니 익대 좌명공신에 서훈하여 훈장을 내리고 영정을 그려 공신도감에 모시고 鐵券을 내리고 그 교서에 가로되 쓸모있는 재능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쓰지 못하는 법인데 어찌 재능있는 어진 신하에 힘입지 아니하고 국난을 평정할 수 있으리요, 생각컨대 그대는 호연지기로 난리를 바로잡고 절개와 힘은 가히 범을

잡을 만 하고 용맹은 가히 몇 사람을 당할만하여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의를 좇아 나라에 공헌하였으니 이는 일찍이 문무를 닦아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서 이른 공이리라. 또한 활쏘는 무예에 정통하여 쏘면 반드시 적중하니 이른바 능름한 무사요, 없어서는 아니 될 재목이로다.

역신 박포 등이 몰래 종친을 꺾어 난을 일으켜 조정의 위태함이 경각에 있을 때 그대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대의를 좇아 맹위를 날려 충성을 다하여 변혁을 꺾하는 무리들이 두려워 항복하게 하였으니 조정을 누란의 위기에서 구하여 나라가 태산같이 편안케하였다. 이에 유사에 명하여 공적을 비석에 기록하고 토지와 노비와 은대와 옷감 한벌과 말 한필을 하사하고 또 부모와 처에게 관작과 작위를 주고 자손에게는 음직을 주고 자손이 혹 죄를 범하더라도 영원히 용서한다는 교서를 내리셨다.

태종 갑신년(1404)에 會寧君에 봉하여 회맹을 하고 무자년(1408)에 健元陵碑에 공신들의 공훈과 이름이 새겨지고 경인년(1410)에 영변부사가 되어 약산동대에서 시를 쓰니 '삼천리 강산의 엄숙한 기운과 기쁨에 나무가 우니 온 세상의 정기와 먼 미래는 세월에 걸렸더라' 하였다.

임진년(1412)에 나주목사, 계사년(1413)에 자헌대부에 올랐다. 조정에서는 공이 남해안을 침범하는 왜적을 막는데 적제라 하여 정유년(1417)에 전라도 병마도절제사로 발령하였다. 당시 병사의營이 광주에 있었는데 왜구의 상륙지역인 강진의 수인사 밑으로 옮기는 것이 전략상 긴요함을 상소하여 윤허를 받아 영을 옮겨 성을 쌓을 때 일망대에 올라서 활을 쏘아 가로되 '이 화살이 떨어지는 곳을 기준하여 성을 쌓으면 이후에 그 누구의 화살이나 돌맹이도 이 성까지 미치지 못할 것이라' 하여 화살이 떨어지는 곳을 한정하여 성을 쌓았다. 그후 정헌대부에 승진하여 병조판서에 제수되었다. 그 때에 시를 읊어 가로되 '공중에서 뿌리는 눈보라는 가인의 칼춤이요, 천리 먼길에 대장기가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나부낀다'

세종 무신년(1428)에 개국공신, 정사공신, 좌명공신을 헌능비에 새기고 집현전 대제학 겸 삼군부사를 제수하였다. 기유년(1429)에 보국숭록대부에 승진하여 장흥부원군에 봉하여진 후 세종 신해년(1431) 정월 25일 타계하시니 향년이 74세였다. 세

종이 부음을 듣고 크게 슬퍼하여 예관을 보내어 장례를 돕게 하고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을 추증하고 충정이란 시호를 내리셨다. 그리고 지관을 명하여 좋은 묘자리를 잡아 예식을 갖추어 국장으로 치르니 곡성의 통명산 남쪽기슭 석곡면 방주동 祭坐原이다. 묘소를 중심하여 사방 십리의 땅을 내리시고 거듭 不祔之典을 베풀고 영정 한 폭을 내리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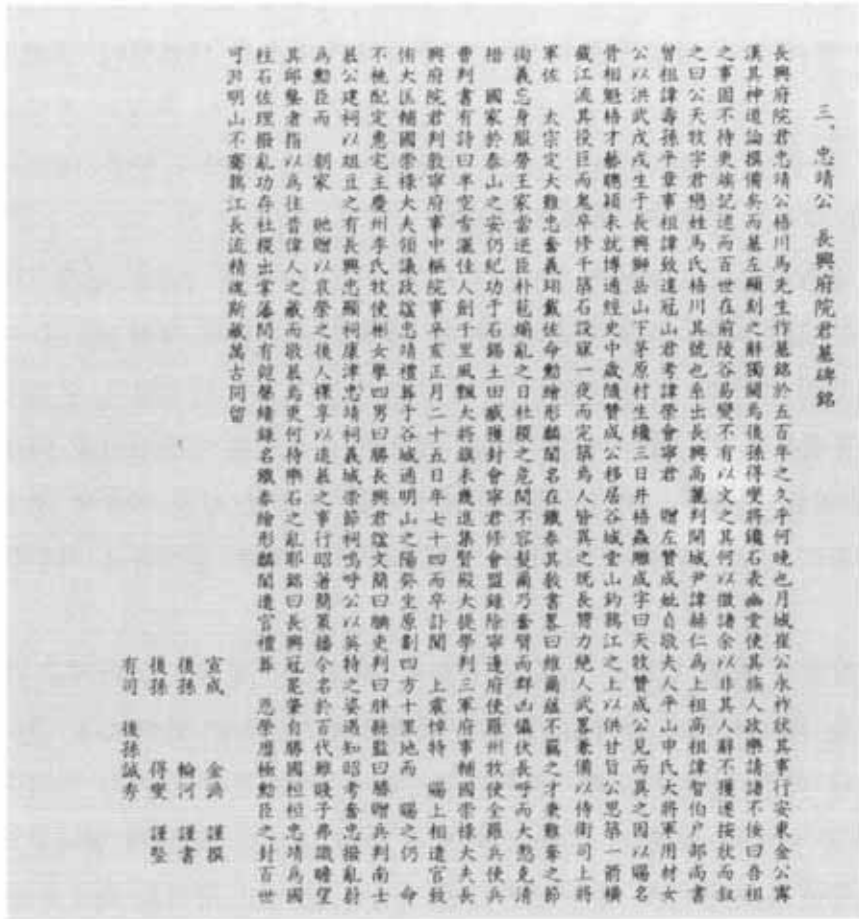
부인은 定惠宅主 경주이씨로 부는 목사를 지낸 彬이다. 4남을 낳으시니 장남이 勝으로 호는 智谷이요, 벼슬은 승정대부에 이르고 장흥군에 봉해졌으며 시호가 文簡이다. 차남이 腆인데 호는 釣隱이고 벼슬은 자헌대부에 이르렀다. 삼남이 胖이며 벼슬은 통훈대부로 현감을 지내고 4남은 肅으로 증직으로 병조참판을 받았다. 유림이 공의 충의를 사모하여 장흥 학송에 충현사를 세우고 강진 척동에 충정사를 세워 제향하였다. 고종 무진년(1868)에 서원철폐령에 따라 헐려지고 지금은 강당만 남아 있다.

오호라 평생에 공의 언행을 기록한 문헌이 많았으나 병화로 없어지고 비문 역시 미처 겨를을 내지못하여 다시 갖추지 못하였으니 이 또한 한이로다. 그러나 오직 덕이 뛰어난 어진 임금을 도와 국난을 평정하여 그 이름과 공적이 청사에 빛나니 이 큰 공훈은 마땅히 해와 달 그리고 태산과 같이 영원할 것인 즉 불세출의 영웅호걸이로다. 공께서 지금까지 살아 계신다면 간혹을 없애고 사적을 회복하여 족히 평생의 시운을 이루지 못하랴. 슬프다. 대종손 騏華가 죽인 大變, 龍河씨로 하여금 천리길을 와서 덕행과 행장을 지은 긴 글을 보이기애 살펴보니 식견이 없는 초부로서 어찌 그 만에 하나라도 묘사하여 쓰리요. 굳이 사양하다가 마지못하여 실기를 보고 이와같이 쓰노라.

임술년(1922) 前寢郎 월성 崔永祚 쓰다.

(4) 묘비문(忠靖公 長興府院君 墓碑銘)

(번역) 장흥부원군 충정공 梧川 마선생 묘비를 세우는 일이 어찌 오백년이나 늦었느냐! 그간 月城 崔永祚가 쓴 행장이 있고, 安東 金漢이 쓴 신도비문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묘비만 없었는데 후손 得變이 장차 비를 세우려고 그 族人 政樂이 재주가 모자란 나에게 비문을 청하며 말하기를 “선조의 사적이 진실로 푸대 접 받았으나 墓域은 변함이 없으니 이제 새로이 비문을 기록하여 백세에 전하고자 하며 어찌 비문을 모두 징험하리요!” 하므로 그 뜻을 거절하다 못하여 드디어 行狀을 살펴보고 서술하여 가로되 공의 휘는 天牧이요, 자는 君懋, 호는 梧川이며, 성은 마씨로 본관은 장흥이다. 고려때 판 開城尹을 지낸 휘 赫仁이 증시조요 고조 휘 智伯은 戶部尙書를 지내고 증조 휘 壽孫은 平章事를 지냈으며 조부 휘 致遠은 증직이 崇政大夫 冠山君을 封하고, 考 휘 榮은 증직이 의정부 左贊成으로 君號는 會寧君이며 妣는 정경부인 평산 申氏이다.

공은 戊戌年 고려 공민왕 7년(1358) 장흥 사악산 밑 모원촌에서 태어나시니 출생 후 3일에 우물에 오동잎이 떠 있는데, 벌레가 먹어 天牧이라 새겨져 있으므로 아버지 찬성공이 기이하게 여기고 공의 이름을 天牧으로 命名하였다. 골격과 얼굴 생김이 위대하고 재주와 기예가 뛰어나게 총명하여 스승에게 나아가 배우기 전에 이미 經書와 記에 통달하더라. 증세에 부친을 따라 谷城의 堂山村에 이사하니 순자강에서 고기를 낚아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는 한편 강물에 발을 막아 고기를 잡으려고 대책을 생각중인데 하루밤에 귀졸 수 천이 나타나 발을 完築하니 모두가 기이하다고 놀라더라.

이미 성장하니 힘이 뛰어나고 군사전략을 아울러 갖추더니 侍衛司 上將軍으로 太宗을 도와 변란을 평정하니 翊戴佐命功臣에 敍動하고 형상을 그려 충훈부에 모시고 이름이 鐵券에 올랐다. 教書에 이르기를 '그대는 남에게 매이지 아니한 호연지기로 난리를 바로잡고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의를 좇아 나라에 공헌하였도다.'라고 기록하였다. 역신 朴筵가 난을 일으켜 조정의 위태함이 경각에 있을 때 대의를 좇아 맹위를 날려 충성을 다하니 반역의 무리들을 두려워 항복케하여 조정을 누란의 위기에서 구하여 태산같이 편안하게 하였으니 그 공훈을 비석에 기록하고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고 또 회령군에 봉하여 功臣會盟에 참여하고, 영변부사, 나주목사 겸 전라도 병마도절제사를 지내고 병조판서에 임명받고 읍은 시에 이르기를 半空雪灑佳人劍 千里風飄大將旗(공중에서 뿌리는 눈보라는 고운 남자의 칼춤이요, 천리 먼 길에 대장기가 회오리바람을 일으킨다)라는 시가 있다.

그후 머지 않아 집현전 대제학 三軍府事를 거쳐 보국승록대부 장흥부원군에 봉하고 영돈령부사 겸 영중추부사를 지내고 辛亥 정월 25일 74세를 일기로 서거하시니 세종대왕이 부음을 듣고 크게 哀悼하시며 禮曹에 명하여 國葬을 치르게 하고 議政府 領議政을 추증하고 諡號는 忠靖이다. 谷城 通明山 癸坐原에 안장하고 사방 十里의 賜牌之地를 내리시고 不祧之典을 명하시다. 配는 完惠宅主 慶州李氏로 生四男하시니 장남이 勝으로 君號가 長興君이요 시호는 文簡이며, 이남은 腆인데 贈吏曹判書요, 삼남은 胖은 通訓大夫 行 구례현감을 지내고 사남은 胖으로 兵判을 지냈다. 영남·호남의 사림이 공의 충절을 흠모하여 장흥 충현사, 강진 충정사, 의성

승절사에 배향하고 있다. 오호라, 공의 영특한 성품과 인격, 학식을 세상이 밝게 알아서 대우하는 것이로다. 힘껏 싸워 충성을 다하고 변란을 평정하니 勤臣으로 받들고 후세 사람들이 제사를 모시고 사모하니 뚜렷한 行誼와 명예가 백세까지 전파될 것이며, 비록 비천한 자손이라도 조상의 산소를 바라다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옛적 위인을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어찌 樂石之亂만 기다리랴!

비명에 이르기를

장흥부원군은 일찍이 조선조 초기에 씩씩하고 늙름한 기대로 변란을 평정한 공훈으로 좌명공신에 서훈되어 공적을 철권에 기록하고 영정을



충정공 예장 묘소 전경 / 묘비

충훈부에 모시고 나라의 요직을 두루 거쳐 動臣으로 封하고 禮葬과 不祧之典의 은총을 입었으니 아름다운 영화와 명예가 통명산과 더불어 가히 백세에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며 순자강 긴 물줄기가 혼백을 간직하고 만고에 함께 머무르리рода.

(5) 梧川隨事(서문)

(번역) 군자에게는 세 가지 불후가 있으니 그 첫째는 덕을 세우는 일이고, 둘째는

○ 梧川隨事 梧川公 諱 孫 履 公 之 爲 孫 履 公 遺 事 采 乞 一 言 于 余 夫 立 言 固 不 如 立 功 余 職 隨 而 辭 拙 尚 不 敢 自 此 立 言 之 士 况 公 之 所 以 不 朽 有 不 待 言 者 乎 余 於 是 辭 不 敢 爲 文 彦 橫 三 請 益 勤 既 又 作 而 言 曰 歲 月 浸 遠 文 獻 泯 泯 兩 陵 之 碑 屹 然 而 今 世 之 知 公 者 已 罕 矣 且 公 之 功 如 彼 而 公 之 所以 爲 功 者 雖 子 孫 其 能 得 其 詳 窺 閣 大 夫 嘗 掌 國 史 且 以 博 雅 名 顯 從 大 夫 得 公 之 佚 事 遺 文 應 足 以 顯 揚 公 者 可 乎 余 曰 不 然 余 固 不 能 知 國 史 然 國 史 亦 不 待 敘 也 余 聞 天 下 有 進 解 無 枝 葉 惟 其 實 而 不 飾 故 一 言 之 出 皆 足 以 信 於 後 而 况 閣 閣 之 初 乎 拜 官 之 數 盟 府 之 書 斯 固 百 世 之 信 史 也 又 安 用 多 爲 故 彦 橫 起 敬 容 而 言 曰 唯 唯 誠 如 大 夫 之 言 然 與 大 夫 之 私 以 告 于 余 不 若 大 夫 之 著 之 于 書 以 興 世 人 共 誠 之 也 願 大 夫 之 外 圖 之 全 無 以 復 辭 運 爲 之 書 通 政 大 夫 行 承 政 院 同 副 承 旨 兼 經 筵 密 贊 官 春 秋 館 修 撰 官 奎 章 閣 檢 校 直 閣 知 製 教 重 山 洪 幾 周 撰

공을 세우는 일이고, 셋째는 언행을 세우는 일이다. 충정공은 이 가운데 공을 세웠으니 바로 이것이 불후의 명예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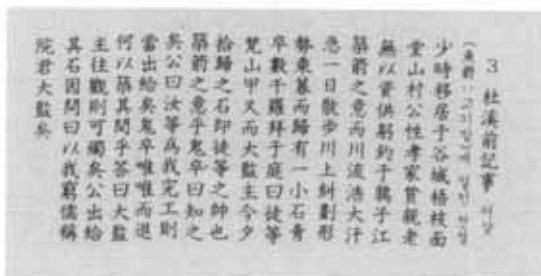
대장부가 참되고 밝게 살피 군주를 받들어 도와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으니 그 뚜렷한 공과 이름이 나타나고 彝鼎(사람으로서 떳떳이 지켜야 할 교훈)으로 기록될 것이다. 나라가 천명을 받드니 한 때 영웅같이 뛰어난 선비가 기회를 얻어 흥성함에 이르고 각기 지혜와 용맹으로 공을 세워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그 수가 많더라. 태조대왕의 명에 따라 그 충절과 재능 그리고 뚜렷한 공훈과 이름을 건원릉비에 새기고 뒤에 현릉비에도 같이 새겼으니 오호라 이것이 바로 영원히 전하여 없어지지 않는 명예로다.

비에 새겨진 자가 전후 70여명인데 장흥부원군 마천목은 두 번이나 기록되고 왕이 말씀하시기를 '마천목은 지식이 심오하고 매이지 아니한 호연지기로 국난을 바로잡았다' 하고 또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대의를 좇아 맹위를 날렸다'고 충훈부에 기록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서로 힘을 합하고 지성으로 충성을 더하여 천명을 받은 공훈을 성왕이 아는 바요 권장하는 바니라' 하시다.

공이 돌아가신지 4백 여년에 이른 이때 후손 彦模가 유사를 가지고 와서 내게 글을 청하기에 내 아는 것이 부족하여 충정공의 큰 공훈을 어찌 다 말하리요. 사양하니 언모가 세 번이나 간청하며 하는 말이 '세월이 오래되고 문헌은 없어졌어도 건원릉비와 현릉비는 높게 우뚝 솟았으나 근세에 비문을 아는 이가 드물고 후손들도 역시 자세히 아는 이가 많지 않은데 통정대부께서는 일찍이 국사를 맡으시고 또 이름이 높이 나 있으니 우리 충정공의 유사를 사실대로 써서 그 공훈이 들어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므로 내말이 '그렇지 아니하오 나는 본래 국사를 잘 모를 뿐더러 충정공의 공훈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일이므로 그 본질을 아는 이가 많고 또 나라를 세운 초기에 벼슬을 받았고 충훈부의 기록은 오래도록 전해질 역사적 기록인데 어찌 여러 말을 하리요' 언모가 공손히 말하기를 '웁습니다. 통정대부의 말씀대로 세인이 다 아는 바이니 그대로 써주소서' 하기에 다시 사양하지 못하고 이와같이 쓰노라.

통정대부 승정원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규장각 직각 지제교
洪奭周 지음

(6) 杜溪箭記事



(번역) 충청공이 젊어서 곡성 오지면 당산마을로 이사한 뒤에 부모에 대한 효성이 더욱 지극하였다. 그러나 생활이 넉넉지 못하여 순자강 하류 두거천에서 몸소 고기를 낚아서 부모를 공양하고 있기 때문에 어살을 막을 뜻이 있으나 강이 넓고 흐름이 급하여 하루는 이런 저런 궁리를 하면서 강둑을 거닐며 형세를 살피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오는 길에 둥글게 생긴 작은 돌이 푸르고 기이하기에 주어왔다. 그런데 그 날밤에 잠귀 수천이 뜰아래서 절을 하면 말하기를 '우리들의 장수이오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니 공이 말씀하기를 '내가 두거천에 어살을 막으려하는데 너희들이 밭을 막아 준다면 너희 장수를 돌려 주리라' 하니 귀졸들이 '예!, 예!' 하고 물러가더니 잠깐 후에 돌아와서 다 막았다고 고하니 공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비상한 재주가 있다하나 어찌 잠깐사이에 막았단 말이나' 하니 '대감께서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하므로 공이 돌을 내어주며 '나같은 곤궁한 서생을 대감이라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이나' 고 물으니 귀졸들이 말하기를 '장차 부원군 대감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다고 전한다.

(7) 谷城誌 杜溪箭

(번역) 두계천 발은 곡성의 동쪽으로 2십리 순자강 하류에 있다. 장흥부원군 마



천목이 귀족을 불러 막은 것이다. 본래 공성현인데 정유왜란 이후 남원군에 속하다가 중간에 다시 곡성현이 되었다. 마천목이 벼슬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소시에 이 발로 고기를 잡아 부모를 봉양하였는데 이제는 임금에 올리는 것이 옳다' 하여 은어를 진상하였다. 공이 별세한 후에 곡성의 수령이 충정공의 기제사와 묘제에 두거천의 은어를 해마다 바쳤다. 그러나 뒤에 그 예가 해이해지자 자손들이 은어를 갖추어 제를 지내니 관에서 다시 그 예를 따르다.

(8) 神虎報恩說



(번역) 충정공이 어린시절 효성이 지극함에 감동한 호랑이가 있어서 자주 짐승을 잡아 사립문 안에 던져 보내므로 맛있게 요리하여 어버이를 공양하였다. 하루는 꿈에 노인이 나타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므로 잠을 깨어 그곳에 가보니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거의 죽어감을 보고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함정주인에게 호랑이를 사서 살려보내어 서로 보은했다 전한다.

(9) 全羅兵營設城記事

(번역) 고려말부터 조선초에 이르러 남쪽에 왜구의 침입이 있었으므로 조정에서는 충청공이 변방을 방위하는 재능이 뛰어나다하여 태종 임진년(1412)에 전라도 병마도절제사에 임명하다. 그때 병영이 광주에 있는데 공이 살펴보니



남해안으로부터 상륙하는 왜구를 막는 요충지가 바로 강진임을 확인하고 이를 승인을 받아 정유대에 올라서서 활을 쏘며 말씀하시기를 '후세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도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적의 화살이나 돌맹이의 피해를 면할 것이다' 하시며 공이 쏜 화살이 떨어지는 곳을 한정하여 성을 쌓게 하였다.(병영성의 남쪽 삼십리 가량의 말동 모퉁이에 축성사적비가 묻혀 있다고 전한다)

2. 마천목 장군의 유문과 유물

(1) 遺 詩

마천목 장군의 유고문집은 연산군 때에 피화를 입은 후, 임진-정유왜란에 병화를 입고, 또다시 숙종-영조 때 화재로 거의 소실되어 현재 남은 것은 다음의 遺詩 3수뿐임.

○ 題慶州金山寺(충정공이 경주 금산사에 들렀을 때 남긴 시)

訪舊行裝付一鞭	옛 신라도읍지를 찾는 행장을 채찍 하나에 부치고
金陵秣馬渡西川	金陵에서 말을 먹여 西川을 건너가니
千年遺跡洪鐘老	천년 유적을 큰 종도 늙었고
萬古餘聲玉笛傳	아득한 옛날에 남긴 소리는 옥피리가 전하더라
鮑石亭空啼社鬼	포석정은 텅비어 도깨비가 모여 울고
鳳凰臺廢泣童仙	봉황대는 황폐하여 仙童이 울더라
憑欄欲問前朝事	난간에 기대어 前朝事를 물으려 하니
宿鳥投林月上天	새들도 숲에 잠이 들고 밝은 달은 하늘에 떠 있더라.

○ 題寧邊藥山東臺(충정공이 영변부사 시절 약산 동대에서 지은 시)

○○○○○○○	
江山肅氣風鳴木	삼천리 강산의 엄숙한 기운과 기풍에 나무가 우니
天地精神月掛秋	온 세상의 정기와 먼 미래는 세월에 걸렸더라
○○○○○○○	

○ 兵曹判書 拜命詩(충정공이 병조판서에 임명되어 읊은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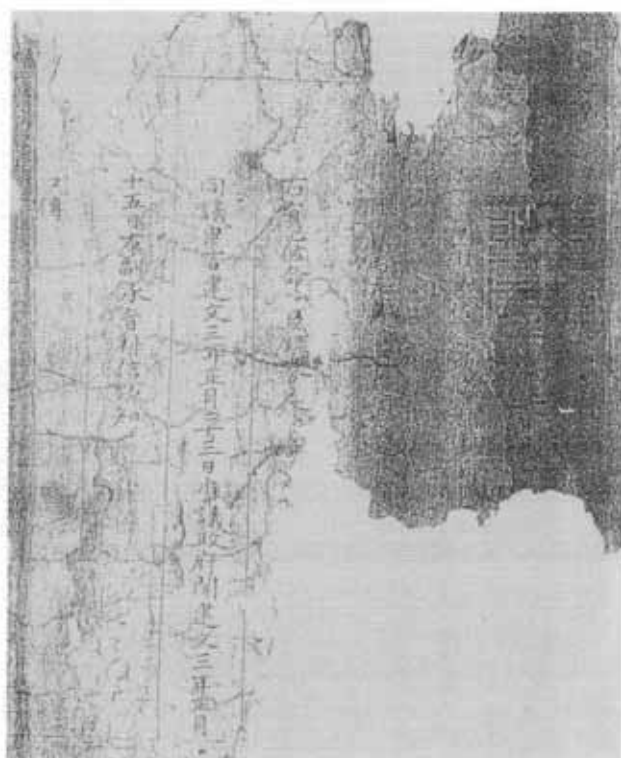
○○○○○○○	
半空雪灑佳人劍	공중에서 뿌리는 눈보라는 가인의 칼춤이요
千里風飄大將旗	천리 먼길 대장기가 회오리바람을 일으켜 나부긴다
○○○○○○○	

(2) 왕지



〈자료〉 장흥부원군에 봉해지는 왕지(곡성 馬元澈 소장)

(3) 공신녹권·교서



宗社奉命所不谷...
 下左致出河益...
 左軍物制叔著中軍物制無...
 右無庚等協心...
 宗社盡忠依命...

伯石...
 辰正和三...
 村...
 門下...
 使...
 承...

陛下

聖德神功

元與人歸所致忠義之臣同心協力盡忠佐

命克冠危難以至今休誠如

王旨功勞重大永世難忘理合

稱下佐命一等功臣立闕圖形樹碑紀功封爵賜土父母妻起

三等封贈直子起三等散職無直子者甥姪女婿起三等

田錢給與碑錢口九史七名貞拜把領等名詳初入仕補長世

贊不徒其孫子孫其其孫而命一等功臣其之後雖有孫

化育及永世藝文春秋雜學士李米倫義志私開樂首

告以防禍難蓋忠佐

命以有今日義安公和寔山侯天祐等開慶赴急以制禍難則戴佐

命以至今日誠如

王旨功勞重大永世難忘理合

稱下佐命一等功臣立闕圖形樹碑紀功父母妻起三等封贈直

子起三等散職無直子者甥姪女婿起等田錢給與碑錢口

九史五右拜把領八右許初入仕曠長世能大不絕其孫子孫
則記于政業曰汝命二等功臣其之後雖有罪祀者亦永世

留宰伯成石瑋兄川君淑門下侍即贊成事奉之蘭閣城留

後同留後黃君正知三軍府事尹拯金英烈右軍同知總制

尹坤利曹典書朴嘗都承旨朴錫命上將軍馬天牧到殿

中書事趙希閔奉常柳柳許等推誠戮力忠義曾効忠誠感

命以至今日誠如

正官功勞重大永世難忘理合

能上將軍李從茂奉廣沈龜谷大將軍述嗣宗韓璉金宇
文樹前右軍將軍尹禮等輸誠協贊久勤調護明義佐

命以至今日軍器火監宋居信在

殿下潛謀之時當厄救患翊戴佐

命以至今日誠如

正官功勞重大永世難忘理合

稱下位命也等功臣立閣圖於樹碑紀功父母妻封贈宜于後

徹田幾結以碑義以立史一名拜把領四右許初入仕曠長

稱下位命三等功臣文閣圖飛樹碑紀功父等要起一等計贈其子
 超一等從職文閣圖飛樹碑紀功父等要起一等計贈其子
 三等正拜把領六名許初入伍填長世襲不能其後子孫則記
 于政業四位命三等功臣其後雖有罪犯宥及永世世襲門
 下將軍超環三司左使超溫超恭門下府事權近三等若使
 本李穆森知三軍府事柳范中軍總制趙卿左軍總制金
 承雲左軍副知總制徐盡前副知總制洪恕共曹世書尹子
 當左承曹李原右承曹李升滿漢城尹金鼎師石劉永會

世襲不能其後子孫則記于政業四等功臣其之
 後雖有罪犯宥及永世大項功臣履賞事律一依定
 杜知臣之例移文各掌官舉行為良如教喻乃謹錄申
 開為口乎亦中述文三年正月二十四日左副承旨通政大
 大經筵官寶文閣直學士知制誥教光範文春秋
 館編修官知禮曹事臣朴信伏奉
 王旨依申教兵一等功臣已良當百五十結奴碑合十三口合白銀五
 十兩長裏合一段內廐馬合匹武以賞賜為齊二等功臣

良田各一百結收碑各十口各田總二十五兩表裏各一段內脫
 馬各一匹或以青驕為齊三等以臣呂寧伯石璠完川
 君淑門下侍郎贊成事之蘭開城留後司留後居正和
 三軍府事尹拯英副右軍同知總制尹坤等良田各
 八十結收碑各八口副銀各二十五兩表裏各一段內脫馬
 各一匹刑曹典書朴亨都承旨鑑命上摺軍天牧判殿中
 寺事喬閔奉常柳沂等良田各八十結收碑各八口
 張公等一腰表裏各一段內脫馬各一匹或以青驕為平

四等以日恭贊門下府事趙燮三司左使趙源恭贊門
 下府事權近三司右使李穆泰知三軍府事柳亮中軍
 總制趙脚左軍總制承宣左軍同知總制徐孟前同
 知總制洪德漢城尹能脚等良田各六十結收碑各六口白
 銀各三十五兩表裏各一段內脫馬各一匹刑曹典書子
 當左承旨李原右承旨朴商右副承旨徐愈上將軍處
 俊李解親給大將軍嗣宗韓廷文彬金宇前右軍府
 軍尹禮等六十結收碑各六十口

(번역)

○ 敍勳教書

절충장군(정삼품) 응무시위사 상장군 마천목을 익대 조명공신에 서훈함.

태종대왕이 말씀하기를 “아무리 훌륭한 재능이 있더라도 세상에 쓰이지 아니하면 쓸모가 없는 것이요 매우 어려운 사건(盤根錯節)이 없었다면 어찌 날카로운 재능을 시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진 선비에 힘입음이 없이 국난을 평정할 수 있으리요.

생각하건데 너는 지식이 심오하고 매이지 아니한 호연지기로 국난을 바로잡고 절의와 힘은 가히 범을 잡을 만 하고 용맹은 가히 몇 사람을 당할만하여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의를 좇아 나라에 공헌하였으니 이는 일찍이 문무예를 닦아 이름이 세상에 높이 드러나서 이른 공이로다. 또한 활쏘는 무예에 정통하여 쏘면 반드시 적중하니 이른바 능륜한 장사요 없어서는 아니 될 재목이로다.

역신 朴堧 등이 종친(임금의 친척)을 몰래 피어 난을 일으키니 조정의 위태함이 경각에 있을 때 너는 이에 목숨을 걸고 大義를 좇아 맹위를 날려 충성을 다하니 변혁을 피하던 무리들이 두려워 항복하니 조정을 누란의 위기에서 구하여 나라가 태산같이 편안하게 하였으니 나는 경사로운 그 날의 두터운 충성 빛들에 셋길 것이며 겸하여 전담과 노비 은요대(관대) 그리고 옷감 한 봉과 말 한필을 하사하노라. 아아! 이와같이 수차의 국난을 응징하는 빛나는 공훈을 세웠으니 마땅히 그 영웅다운 큰 뜻을 드러내 칭찬하고 벼슬을 주며 또 그 부모에게도 벼슬을 추증하노니 내 이 뜻을 자세히 알 것으로 믿으며 이같이 교시하노라.

태종 1년(1401) 2월 일 (태종대왕의 도장을 찍음)

○ 佐命功臣勳錄

공신도감의 좌명공신에게 내린 훈장의 공훈기록

익대 좌명공신 응무시위사 상장군 馬天牧 본관

우 관리를 좌명공신록에 착오 없이 기재함.

태종원년(1401) 정월 15일

태종대왕이 말씀하시기를 지난번에 역신 朴苞가 원한을 품고 몰래 회안대군(芳幹) 부자를 꺾어 우리혈족(왕의 父子 兄弟)을 해치려고 드디어 반군을 일으켜 방자하게 대궐로 향함에 이르니 종묘와 사직의 안위가 위급천만이었는데 상당후 李衍, 문화좌정승 李居易, 우정승 河崙, 판삼군부사 李茂, 문하시랑 찬성사 趙英茂, 좌군총제 李叔蕃, 중군총제 閔無咎, 좌군 동지총제 辛克禮, 여성군 閔無疾 등이 마음을 합하여 의를 좇아 시의에 맞는 책략을 세워 충성을 다하여 천명을 도와 국난을 평정하여 종묘사직을 버리고 의를 좇아 먼저 보고하고 충성을 다하여 천명(왕명)을 도와 변란을 평정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의안군 和와 완산후 天佑도 변란의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천명을 받들어 변란을 평정하는데 참여하고 또 창령백 成石璘, 완천군 淑, 문하시랑찬성사 李芝蘭, 개성유후사 유후 黃居正, 지삼군부사 尹抵, 金英烈, 우군동지총제 尹坤, 형조전서 朴崑, 도승지 朴錫命, 상장군 馬天牧, 판전중시사 趙希閔, 봉상경 柳沂 등이 정성과 힘을 합하여 왕명을 받들어 변란을 평정하는데 참여하고 참찬문하부사 趙璞, 삼사좌사 趙溫, 참찬문하부사 權近, 삼사 우사 李稷, 참지삼군부사 柳亮, 중군총제 趙卿, 좌군총제 金承 暉, 좌군동지총제 徐益, 전 동지총제 洪恕, 병조전서 尹子當, 좌승지 李原, 우승지 李升商, 한성윤 金鼎卿, 우부승지 徐愈, 상장군 李從茂, 李膺, 沈龜齡, 대장군 延嗣宗, 韓珪, 金守, 文彬, 전 우군장군 尹稷, 등도 정성과 힘을 합하여 천명을 받들고 보호하여 변란을 평정하는 데 참여하고 또

군기소삼 宋居信은 내가 (태종대왕) 왕위에 오르기 전에 위습한 환란에서 천명을 받들어 구제하여 변란을 평정하는데 참여하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공적이 매우 크고 중요함으로 포상법규에 의하여 포창하여 그 공적이 매우 크고 주용함으로 포상법규에 의하여 포창하여 그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게 하라.

왕의 전지에 역신 朴莚가 회안대군 부자를 꺾어 우리 종친을 해치려고 드디어 반군을 일으켜 방자하게 대궐로 향함에 이르니 종묘사직의 안위가 위급천만 이었는데 상당후 李佇, 문하좌정승 李居易, 문하우정승 河崙, 삼군부사 李茂, 문하시랑찬성사 趙英茂, 좌군총제 李叔蕃, 중군총제 閔無咎, 좌군동지총제 辛克禮, 여성군 閔無疾 등이 마음을 합하여 의를 좇아 시의에 맞는 책략을 세윈 충성을 다하여 천명을 도와 국난을 평정하여 종묘사직을 다시 편안하게 함은 진실로 전하의 거룩한 덕과 하늘이 인간에게 돌려준 불가사의한 공력 그리고 충성과 절의의 신하가 일심협력하여 천명을 도와 위안을 평정하였으니 그 공로가 크고 중대하여 영원히 잊을 수 없다함이 이치에 합당하므로 “좌명 1등공신”이라 칭하고 정각을 세워 영정을 모시고 비를 세워 공훈을 기록하고 벼슬을 주고 토지를 주며 부모, 처에게는 벼슬을 3등급 올려주고 직계 아들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벼슬을 3등급 올려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위에게 벼슬을 2등급 올려주고 또 밭 몇 두락과 노비 몇 명과 관노비 7명을 하사하고 眞拜把領 10명의 초입사(처음 벼슬에 오름)를 허락하고 또 적파의 장자와 장손은 녹봉(벼슬아치에게 매년 1. 4회 주는 쌀, 보리, 명주, 돈 등)을 끊임 없이 물려 받게하고 자손의 政案(복무기록)에는 “좌명공신 모모의 후손”이라 기록하여 자손이 비록 죄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 제도가 영세에 미치게 하라. 예문춘추관 학사 李來도 변란의 소식을 듣고 사를 버리고 의를 좇아 먼저 보고하고 충성을 다하여 천명을 도와 변란을 평정하는데 참여하고 의안군 和와 완산후 天佑도 변란의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천명을 받들어 변란을 평정하는데 참여하였으

니 그 공로가 크고 중대하여 영원히 잊을 수 없다함이 이치에 합당하므로 “좌명 2등공신”이라 칭하고 정각을 세원 영정을 모시고 비를 세원 공훈을 기록하고 부모, 처에게는 벼슬을 2등급 올려주고 직계 아들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벼슬을 2등급 올려주고 직계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위에게 벼슬을 올려주고 발 몇 두락과 노비 몇 명 관노비 5명을 내리시고 眞拜把領 8명의 초입사(특채)를 허락하고 또 적파의 장자와 장손은 녹봉(봉급)을 끊임없이 물려받게 하고 자손의 정안에는 “좌명공신 모모의 후손”이라 기록하여 자손이 비록 죄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 제도가 영세에 미치게 하라.

또 창령백 成石璣, 완산군 淑, 문하시랑찬성사 李芝蘭, 개성유후사 黃居正, 지 삼군부사 尹底, 金英烈, 우군동지총제 尹坤, 형조전서 朴崑, 도승지 朴錫命, 상장군 馬天牧, 판전중시사 趙希瓘, 봉상경 柳沂 등이 정성과 힘을 합하여 천명을 받들어 변란을 평정하는데 참여하였으니 그 공로가 크고 중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게 하는 것이 합당한 도리이므로 “좌명 3등공신”이라 칭하고 정각을 세워 영정을 모시고 비를 세워 공훈을 기록하고 부모, 처에게는 벼슬을 1등급 올려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위에게 벼슬을 올려주고 발 몇두락과 노비 몇 명, 관노비 3명을 내리시고 眞拜把領 6명의 초입사(특채)를 허락하고 또 적파의 장자와 장손은 녹봉(봉급)을 끊임없이 물려받게 하고 자손의 정안에는 “좌명공신 모모의 후손”이라 기록하여 그 자손이 비록 죄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 제도가 영세까지 시행되도록 하라.

참찬문하부사 趙璞, 삼사좌사 趙溫, 참찬문하부사 權近, 삼사우사 李穆, 참지삼군부사 柳亮, 중군총제 趙卿, 좌군총제 金承瓘, 우군동지총제 徐益, 전 우군장군 尹穆 등도 정성과 힘을 합하여 천명을 받들고 보호하여 변란을 평정하는데 참여하고 또 군기소감 宋居信은 태종대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위급한 환란에서 천명을 받들어 구제하여 변란을 평정하는데 참여하

였으니 그 공로가 크고 중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게 하는 것이 합당한 도리
이므로 “좌명 4등공신”이라 칭하고 정각을 세워 영정을 모시고 비를 세월
공훈을 기록하고 부모, 처에게는 벼슬을 주고 직계아들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벼슬을 주고 또 밭 몇 두락과 노비 몇 명과 관노비 1명을 내리고 꿀
입없이 물려 받게하고 자손의 정안은 “좌명공신 모모의 후손”이라 기록하
여 자손이 비록 죄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 제도가
영원히 이어지도록하라.

위 항목 좌명공신 포상의 건은 전 정사공신의 포상에에 의하고 각 관
계부처에 이첩하여 명령대로 시행하라는 교유(가르침)대로 삼가 기록
하여 밝혀 널리 알려 드린다.

태종 원년(1401) 정월 24일

좌부승지, 통정대부, 경연참찬관, 보문각직학사 지제교(교서 등의 글
을 지어바치는 벼슬), 예문춘추관 편수관, 지예조사 신하 朴信 앞드려
받들

태종대왕의 명에 의하여 좌명 1등공신(성명생략)에게는 밭 150結,
노비 13명, 백은 50兩, 옷감 1단, 말 1필씩을 상으로 주고, 좌명 2등공
신(이름생략)에게는 한결같이 밭 1백결, 노비 10명, 백은 25량, 옷감 1
단, 말 1필씩 상으로 주고, 좌명 3등공신 창령백 成石璘, 완천군 淑, 문
하시랑 찬성사 李芝蘭, 개성 유후사 유후 黃居正, 지 삼군부사 尹抵,
金英烈, 우군동지총제 尹坤에게는 밭 80결, 노비 8명, 백은전, 25량, 옷
감 1단, 말 1필씩을 형조전서 朴崑, 도승지 朴錫命, 상장군 馬天牧, 관
전중시사 趙希閔, 봉상경 柳近에게는 밭 80결, 노비 8명 은품대(관복
에 갖추는 허리띠) 1개, 옷감 1단, 말 1필씩을 상으로 주고 좌명 4등공
신 참찬문하부사 趙璞, 삼사좌사 趙溫, 참찬문하부사 權近, 삼사우사
李稷, 참지삼군부사 柳亮, 중군총제 趙卿, 좌군총제 金承璽, 좌군동지총
제 徐益, 전 동지총제 洪恕, 한성윤 金鼎卿에게는 밭 60결, 노비 6명,

백은전 25량 옷감 1필, 말 1필씩을 병조전서 尹子當, 좌승지 李原, 우승지 李升商, 우부승지 徐愈, 상장군 李從茂, 李膺, 沈龜齡, 대장군 延嗣宗, 韓珪, 文彬, 金字, 전 우군장군 尹穆, 군기소감 宋居臣에게는 발 60결, 노비 6명, 은품대 1개, 옷감 1필, 말 1필씩을 상으로 주어 좌명공신록에 기록하고 시행하다.

태종 원년 신사(1401) 2월 일

錄事權知 議政府 錄事	金(서명)
錄事權知 式自都監 錄事 前將仕郎 架閣庫 直長	金(서명)
判官 前宣敎郎 繕工主簿	宋(서명)
判官 通善郎 司水監承	安(서명)
副使 奉正大夫 兵曹議郎 知製敎	鄭(서명)
副使 通訓大夫 判司水監事	盧(서명)
副使 通訓大夫 判繕工監事	朴(서명)
判事 嘉靖大夫 藝文館 學士 商議政府事 兼 判事司水監事	鄭(서명)
判事 嘉善大夫 參知 義興三軍府事 知義政府事	金(서명)
都監 佐郎 承議郎 考功郎	柳(서명)
佐郎 承議 兼 尙瑞主簿	韓(서명)
正郎 通德郎 考功正郎 知製敎 兼 尙瑞司承 經筵 副揆討官	金(서명)
正郎 通德郎 兼 義興三軍府 經歷司 都事	玄(서명)
議郎 奉正大夫 藝文春秋館應敎 經筵 侍讀官	金(서명)
議郎 奉正大夫	李(서명)
典書 嘉善大夫	金(서명)
判事 吏曹別監 通正大夫 承政院 左副承旨經筵參贊官	
寶文閣 直學士 知製敎 充藝文春秋館編修官 知禮曹事	朴(서명)
折衝將軍 神武侍衛司 上將軍 兼 判閣門事	具(서명)
中直大夫 司憲中承	安(서명)

3. 마천목 장군 관련유적

(1) 忠靖廟

소재지 : 곡성군 석곡면 방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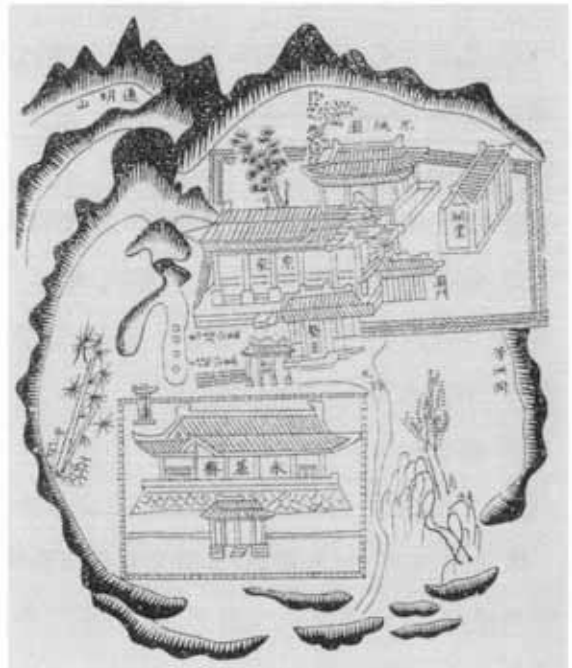
건립년대 : 1438년(세종 20), 1810년 중수, 1922년 재중수

제향일 : 1월 24일

충정묘는 종손이 세거하던 곡성군 석곡면 방주리에 마천목 장군의 예장 묘소와 함께 있다. 마천목장군은 74세를 일기로 1431년(세종 13) 정월 25일에 향리에서 별세하였는데, 국왕과 대신들은 조회를 3일간 정지하는 애도를 표했으며, 세종은 예관을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고 이때 제문·춘추제향축문을 내려 보내었다. 그런가 하면 세종 19년(1437)에는 예장묘소 사방 10리를 사패지로 하사하여 제향에 도움을



충정묘에 봉안된 영정



충정묘도



충정묘 전경

주도록 명하고 이듬해에는 곡성 석곡 방주동에 부조묘를 건립하고 대대로 적장손이 지키도록 명하였다. 현재의 충정묘는 바로 이 부조묘로서 1438년(세종 20) 초창된 것이었다.

이후 세종은 충정공의 부조묘에 곡성현감이 춘추로 제향을 하도록 특명하기도 하고, 세종 27년에는 자손 得致의 청원을 받아들여 훈부에 보관되어 있던 충정공의 영정을 똑같이 그려 이 부조묘에 보관하면서 영당으로 지칭되게 된다. 현재의 이름인 충정묘는 세조 3년(1457)에 '忠靖'이라는 시호를 내림으로서 비로소 불려지게 된 이름이다.

이렇게 1438년 창립된 이 충정묘의 건물은 그후 수차례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아쉽게도 그 자세한 사정은 알려지지 않고, 다만 현재 확인되는 바로는 화재로 소실되자 1810년(순조 10)에 중수되었다. 1922년에 종중과 후손들의 출연으로 중수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풍우에 시달리고 6.25 동안으로 황폐하여 도괴될 위험에 직면하였다. 이에 뜻있는 자손들이 1992년 장흥마씨 중앙회를 조직하여 마근갑(초대회장), 마용화(2대 회장), 마상용(부회장) 마길동(이사)등이 주관하여 충정묘 사당 중수, 충의문과 회관 신축, 도로 포장, 충정공과 문간공 묘역 단장 등을 하여 현재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장흥마씨 중앙총회에서 1992년 건립한 중건비가 종회 회관앞에 세워져 있다.

(2) 墓所와 永慕齋

○ 墓 所

소재지 : 곡성군 석곡면 방주동

건립년대 : 1431년

마천목 장군은 72세 되던 1429년(세종 11) 2월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세종은 황보인을 시켜 전별연을 베풀어 주도록 예조에 지시하였다.

향리에 돌아온 마천목 장군은 2년 뒤인 1431년(세종 13) 정월 25일,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다. 부음을 들은 세종은 크게 애도하여 禮曹에 명하여 國葬을 치르게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세종 13년 2월 1일 기사에는 그의 졸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면

부음(訃音)을 아뢰니 조회를 3일간 정지하였으며, 내사(內史)에게 명하여 가서 조문하게 하고, 쌀·콩 아울러 30석과, 종이 1백 권을 부의



충정공의 묘소 전경

(聘儀)로 내렸다. 또 예관에게 명하여 치제(致祭)를 내리니, 그 교서(敎書)에 이르기를, "신하로서 큰 공로가 있어 이미 시종(始終) 변함이 없었으니, 나라에는 상전(常典)이 있는지라 오직 훈전(恤典)을 특히 더하노라. 생각하건대, 경은 흉금(胸襟)과 도량이 크고 깊으며, 천성이 순수하고 행검(行檢)이 독실한데다가, 외적을 막는 재능이 뛰어나고 계략(計略)의 지혜 또한 구비하였으니, 실로 군왕의 우익(羽翼)이요, 국가의 주석(柱石)이라 이를 만하도다.

라고 하여 그의 공적을 되새기고 있으며, 이어 세종은 부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아득한 저 하늘이 이 한 원로마저 남겨 두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마음 아프도다. 이에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전(致奠)하고 영령에 고하여 나의 심회를 펴보는 바이노라. 아아, 슬프도다. 기뻐도 슬퍼도 정의는 같은지라 어찌 경의 옛 공적을 잊으며, 유명(幽明)을 달리 했어도 이치는 일반이니 나의 지극한 이 회포를 살피리



묘소 원경





묘소의 석인상과 묘비 장명등

라 민노라.”하고 있다.

충정공 마천목 장군의 예장묘소는 곡성군 석곡면 通明山 남쪽 10리 지점의 芳州洞에 위치한다. 이 묘소의 지형은 大明山의 東近峙로부터 내려뺀은 통명산의 남쪽으로 10리를 뺀어오다가 鷹峯이 섰고, 남으로 향하여 묘소가 있다. 산세는 전하는 바로는 “산뱀(蛇)이 미구리(蝻)를 쫓는 격”의 명당으로 일컬어지며, 栗木亭 쪽 아래의 봉우리가 안룡이 되니 계곡물이 왼편으로 흐르고 운흥사의 골짜기 물이 오른편으로 흘러와 서로 합류하는 형국이다. 부인 경주이씨(1371-1437)는 공이 죽은 다음해에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 이곳에 함께 모셨는데, 위의 묘소가 충정공 묘소이고 아래가 정혜택주 경주이씨의 묘소이며, 아래에는 아들인 馬勝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한편 마천목 장군 사후 6년 뒤인 1437년(세종 19)에는 예장 묘소의 사방 10리를 사패지로 하사하고, 1438년(세종 20)에는 부조묘를 명하여 이듬해부터는 곡성현에서 사람들이 춘추제 향하도록 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적장종손으로 제사를 모

심에 하자가 없도록 산지기(4호)를 특별히 구획하여 수호토록 하였다. 예장 묘소로 방형의 호석이 둘러져 있고, 묘소에는 석인상과 장명등, 묘비가 있다. (묘비문은 앞의 1-(4) 자료 원문 참조)

묘비는 찬자인 金;瀾가 밝히듯이 행장문과 신도비에 이어 가장 뒤늦게 이루어졌다. 이 묘비는 金;高의 찬, 馬輪河 서로 구비를 馬得燮이 주모가 되어 개수, 건립한 것이다. 이 묘비 옆에는 호패형의 작은 묘표가 세워져 있다.

○ 永慕齋

소재지 : 곡성군 석곡면 방주동

건립년대 : 1922년



영모재 전경



영모재기



영모재기(永慕齋記)

한편 묘소의 입구에는 영모재가 있는데 충정공 마천목 장군의 예장 묘소의 제향을 위한 재실이다. 원래 방주동에 종가와 부조묘(충정묘)가 있었던 탓인지 재실이 없었다가 1922년 가을 문중회의의 결정으로 창건한 건물이다. 尹壽求 찬의 영모재기가 있다.(尹先生은 李朝末 吏曹判書를 歷任하고 日本國이 울자를 주겠다고 한일 합병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한 애국자임)

(번역) 곡성군 석곡면 통명산의 매봉 밑에 활 모양으로 길게 굽은 4척의 봉분이 충정공의 묘이다. 공은 태종조의 명신으로 문무를 겸비하여 좌명공신에 서훈되고, 그후 자손이 더욱 번성하고 잘 되어 갔으나 오래토록 재각을 건축하지 못하더니 다행히 임술년(1922년) 가을에 문회의 결정으로 방송리에 재각을 창건하고 이름을 영모재(永慕齋)라 한다. 기와집 3칸인데 봄과 가을의 제사에 조상이 살아 계심과 같이 정성을 다하여 모시리라. 공사를 마친 후 후손 象華 大燮씨가 먼 길을 와서 기문(記文)을 청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훌륭하다. 충정공은 우리나라의 위인(偉人)이다. 史記에 기록되고 공의 몇몇한 공훈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재각의 건축이 오랜 세대 후라서 자상하게 기록하지 못하지만 영원히 추모하는 정성이야 어찌 이곳에 있지 않으리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는 騏華씨요 그 공사를 훈한 자는 周燮, 鉉球, 垺華, 演河, 鎬翼, 相鎔, 昇華, 榮準 諸氏를 위시하여 馬氏門中의 거의 모두가 위선사에 매우 근민하더라.

壬戌(1922년) 秋 嘉善大夫 海平 尹甯求

(3) 神道碑

소재지 :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건립년대 : 1917년 건립 1946년 중수, 1992년 중건

(번역) 멀리 옛 일을 생각하여 보니 태조황제께서 천명을 받들어 나라를 세우고 태종대왕이 그 대업을 이으시니 공신이 많더라. 당시 수족 같은 신하와 어진 충신들이 구름같이 모여 사직을 옹호하고 나라의 터전을 튼튼히 하였으니 長興馬公도 이에 참여하였느니라. 공의 휘는 天牧이요 자는 君戀이며 梧川은 호이고 시호는 忠靖이다. 고려조에 판 개

四、忠靖公神道碑文

粵若稽古 太祖皇帝受天明命肇建邦家 太宗大王繼承洪緒將多前烈當時股肱之良爪牙之佐風
 雅雲興奔走禦侮在軍載大東丕丕基若長興馬公是已公諱天枚字君樹楊川其號也高麗則開城尹琳
 仁爲上祖三傳門下侍中文毅公諱希孫是生致遠文學文剛公諱仲奇蓋其六世以上高祖尹都尚書諱
 智伯曾祖平章事諱壽孫祖宗諱令冠山君諱致遠考奉常卿會寧君 贈左贊城諱榮姬貞敬夫人平山
 中氏大將軍用材女公以恭愍戊戌生子長興嗣岳山下機三日并楊忠錄成字曰天枚贊成公仍名公云
 公骨魁偉多才藝年未就博通經史中歲階贊成公移居谷城鴉子江之上日釣供甘旨思慕一箭東歸
 稱天章之所曰箭落石設榜橫截江流其沒也巨不可容易成之而公得免相一從完工人皆莫之既長贊
 力絕倫武略足備以待衛司上將軍位 太宗獻定大亂錄推忠贊義州戴冠 命勸教書略曰惟爾不
 羈之才兼難奪之節尚義忘身服勞王家當廷臣杜絕禍亂之日社稷之危罔不容髮爾乃奮臂而擊山嶺
 伏長呼而大罵克清借國家於泰山之安仍紀功于石銘土田肥瘠其父母瘡其子孫 太宗甲申封會寧
 君修會盟錄戊子戴公名于 健元後碑陰庚寅行寧邊府士辰爲羅州牧使癸巳陞資憲丁酉拜全羅兵
 使時嘗在光州公以爲康津乃南寇之衝啓請移之築新壘所以固邊圉奉持除兵曹判書戊申戴名獻陳
 碑陰 承慶進軍贊殿大使學判三軍府事己酉陞輔國崇祿大夫封表典府院君乙卯判教寧府中樞院
 事辛亥正月二十五日年七十四而終計閱寰宇遠官致術特 贈上相易名曰忠靖禮葬于谷城通明山
 之陽癸亥割四方十五而賜之仍 命不祧配定惠定主慶州李氏欽使彬其父也學四男曰勝賢封長興
 益文簡曰綱資憲史判曰解求禮監曰勝贈兵曹參判湖南李氏公建柯祖且之中間因朝令繼之只
 有講堂焉今公之世四百八十餘載而闕桓桓之記後孫森律請余辭嗚呼公以不世出之才當不世遇
 之斯數力 王事卒成不世有之功業况 聖人一言之褒與九鼎大呂同其輕重蓋亦不世遇之殊寵也
 顧此朽筆何足有無於其間哉擬狀爲叙係之以銘詞曰天啓我東 聖朝受命有豪有英於斯爲載桓桓
 忠靖傑起南方如虎之躍如龍之顧一段衷赤無他斯斯演其熱血莫此累朝生績金陵南寇與隣常耀
 顯肅清氛慶靈存帶礪功光社稷明山片石萬古不治 安東金寶漢撰

성윤을 지낸 懋仁이 上祖이며 혁인의 삼대손인 문의공은 휘자가 희원
 인데 문하시중을 지냈다. 그의 아드님의 휘자는 중기인데 정당문학을
 지냈으며 시호가 文剛이다. 고조는 호부상서를 지낸 智伯이며 증조는
 평장사(정2품)를 지낸 壽孫이요, 조부는 중부시의 숨을 지낸 致遠인데
 冠山君에 추증되고 부는 봉상대부를 지냈는데 뒤에 승록대부 의정부
 좌찬성 會寧君에 추증된 휘 榮이며, 는 정경부인 평산 申씨로 그 부는
 대장군 用材다.

공은 공민왕 戊戌(1358)년에 장흥부 모원촌에서 탄생하셨는데 낳으신 지 삼일이 되던 날 우물에 오동나무 잎이 떠있는데 벌레가 글자를 새겨 天牧이라 써 있으므로 찬선공(부친)께서 상서롭게 생각하여 天牧으로 이름 지었다. 공은 골격이 웅장하고 재주가 비범하더니 취학하기 전 어린 나이에도 경서와 사기에 막힘이 없이 빼어나게 聰明하더라. 중세에 부친을 따라 곡성의 순자강변으로 이사하여 매일 고기를 낚아 어버이를 공양하더니 발을 하나 막을 것을 생각하였으나 속담에 재빠른 고기떼가 있는 곳은 쌓고 긴 나무를 강물을 가로질러 발을 설치해야 한 다는데 쉬운 일이 아니어서 걱정하던 중 공께서 도깨비의 도움으로 하루밤에 완공을 하니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기더라.

이미 장성하니 체력이 뛰어나고 무략(武略)을 족히 갖추어 응무시위사 상장군으로 태종을 보좌하여 큰 난을 평정하니 정의로운 충성이라



신도비

천거하여 익대좌명공신으로 서훈하고 서훈교서에 이르기를 “그대의 재주가 뛰어나고 충성의 절개가 지극하며 대의를 따라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왕가를 힘써 돕더니 역신 朴苞의 난을 당하여 사직의 위태함이 경각에 처하였을 때 그대가 발분하니 사악한 무리들이 무서워 굴복하고 또 크게 호령하니 역신들이 소멸되어 나라를 태산같이 편안하게 하였도다” 하고 그 공을 비석에 기록하고 논밭을 하사하고 그 부모에게 증직을 하고 음직으로 자손들이 대대로 벼슬을 하더라.

태종 갑신년에 會寧君에 오르고 삼공신(개국·정사·좌명)이 모여 會盟(단결과 충성을 맹세하는 일)하고 무자년에 공의 이름이 건원능(태조의 능)비에 새겨지고 경인년에 영변부사를 지내고 임진년에 나주목사를 지내고 계사년에 자헌대부에 오르고 정유년에 전라병사에 보임되어 그때에 전라병사의 찰이 광주에 있는지라 당시 왜구의 침범이 심한 강진에 옮길 것을 주청·윤희를 받아 병영을 옮겨 성을 쌓아 왜구를 막으니 병조판서를 제수하시고 무신년에 공의 공적이 현능(태종능)비에 새겨지고 얼마 아니하여 집현전 대제학 겸 의흥삼군부사(삼군진무소)를 지내고 기유년에 보국숭록대부 장흥부원군에 봉하고 을묘년에 둔령부사 증추원영사를 지내고 신해 1431년 정월 25일에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치시다.

부음을 듣고 임금이 크게 슬퍼하며 예관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고 특별히 영의정을 추증하고 忠靖이라는 시호를 내리셨다. 곡성군 통명산 양지에 국장으로 모시고 사방 十里의 땅을 내려 주시고 부조지전(不祧之典)을 명하셨다. 配는 定惠宅主 경주 이씨로 그 부는 목사를 지낸 彬이다. 아들 넷을 낳으니 장남은 勝으로 장흥군을 봉하고 시호가 문간(文簡)이요, 차남 肫은 자헌대부 이조판서요, 삼남 肫은 통훈대부 구례현감이요, 사남 肫은 증직으로 병조참판을 받다.

호남의 유생들이 공을 앙모하여 사당을 새우고 제향을 모셨으나 중간에 철폐령에 따라 폐한 후 지금은 강당만 남아 있더라. 이제 공이 세

상을 떠나신지 490여년이 되나 아직 신도비문이 없더니 義律이 내게 와서 청하거늘 슬프다. 공은 세상에 드문 큰 재주로써 난세를 당하여 힘과 지략을 임금의 사업에 다 바치니 마침내 세상에 없는 공훈을 세웠거늘 성인의 말씀이 九鼎大呂(보물과 높은 지위)와 같이 귀하고 덕망이 있으니 세상에 다시 없는 사랑하는 신하라 하도다.

도리켜 보건대 썩은 붓으로 어찌 그 행장을 다 말하리요마는 행장을 보고 글을 짓고 銘을 지어 가로되 하늘이 우리 나라를 여니 어진 임금이 하늘의 명을 받았도다.

영웅호걸이 이에 많이 나타났도다. 아! 굳세고 씩씩한 충정공이시여, 호걸로서 호남에 낳으셨도다. 범과 용같은 용맹함이여! 마음속에서 우려난 거짓 없는 열정을 바쳐 누란의 위기를 편안하게 하시고, 강진에 병영을 옮겨 성을 높이 쌓고 맹세코 왜적을 몰아내니 그 공훈이 나라에 빛났도다. 명산에 세운 신도비는 영원히 빛나리로다.

安東 金 漢 지음

(4) 康津 全羅兵營城과 馬天牧將軍史蹟碑

○ 康津 全羅兵營城

소재지 : 감진군 병영면 성동리 266 외

축성년대 : 1417년(태종 17) 마천목 병사 축성

감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전라병영성은 마천목 장군이 초대 병사로 부임하여 1417년(태종 17)에 축성한 유서깊은 유적이다.



강진 병영성의 석축



고지도에 나타난 병영성의 건물배치



병사 행차 가장행열 모습

강진현에 전라도 병영이 처음 설치된 것은 조선초인 1417년(태종 17)이다. 이것은 당시 서남해안지방에 자주 출몰하던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그 전에 광주에 있던 것을 이곳에 이설한 것이다. 전라 병영성은 이후 1895년 폐영되기까지 전라도 56관의 육군 지휘부로서 500여 년의 기능을 다해왔다.

병영성의 규모는 석축의 둘레 2,820척, 높이 18척, 女堞 302, 擁城 12, 砲樓 2, 濠池 5, 井 9개 및 2층루로 이루어진 남문과 동문, 북문 등의 시설이 있었고, 각종 관사 및 누정은 한말까지 보전되어 오다가 일제시대에 모두 훼손되었다.

병영성은 평지에 축조된 평지성으로 현재는 옛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폐허상태이다. 부분적으로나마 남아있는 것은 병영국민학교의 담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과 朴仁玉氏宅(남성리 266) 뒷 담장부분이다. 성의 형태는 남북이 길고 동벽의 길이가 서벽에 비해 약간 짧은 부정형의 구형이다. 성곽의 내·외부는 넓은 농경지이며, 서북쪽으로는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개천을 垓子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성벽의 축조방법은 성벽의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성돌로 쌓는 夾築技法을 사용하였다. 내외에 면해 있는 성돌들은 대부분 자연석으로 바깥 면을 다듬은 돌을 썼

는데 여느 성과 마찬가지로 하부는 큰 돌을 놓고 위로 올라가면서 보다 작은 돌들을 쌓아 올라가는 방법을 썼다. 또한 병영국민학교 옆의 성벽은 성벽의 폭이 2m 이상이 될 정도로 넓게 안쪽까지 견실히 뒷채움하였으나 朴仁玉氏宅 부분의 성벽 중 일부는 외벽만을 쌓고 안쪽으로 흠을 쌓아 內托하는 片築도 일부분 나타나고 있다. 병영성의 옛터에는 마천목 장군의 공적을 기리는 사적비가 1992년 건립되었고, 강진 병영면들은 해마다 면민의 날 행사 때 초대 병사의 행차를 가장행열로 재현하고 있다.

○ 康津兵營初代兵使馬公史蹟碑文

소재지 :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건립년대 : 1992년



사적비 전경(강진 군민이 건립)

공은 長興馬氏로서 휘는 天牧이요 자는 君戀이며, 호는 梧川이고 시호는 忠靖이다.

서기 1400년에 上將軍으로 太宗을 도와 朴苞의 난을 戡定하여 佐命功臣에 敍動되고 全羅道兵馬節度使, 羅州牧使, 兵曹判書, 集賢殿 大提學 등 要職을 두루 거쳐 輔國崇祿大夫 長興府院君에 封하고 領議政이다. 서기 1417년 全羅道 兵馬節度使 시절에 공의 啓請으로 光州에 있던 營을 南寇의 登陸地인 이곳 修仁山 밑에 옮겨 朶소 築城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이곳의 지명까지 병영으로 정착시킨 역사적 인물로서 그 英特한 護國精神과 이 고장에 끼친 餘韻을 길이 후세에 전하고자 주민의 뜻을 모아 비를 세우며 아울러 이 사업에 物心兩面으로 協贊한 篤志家의 芳名을 陰記하노라.

西紀 一九九二年 十月 三日

全羅兵營城復元推進委員會 謹啓

(5) 義城 崇節祠(禾山書院)

소재지 : 경북 의성군 단촌면 하화동 화곡

건립년대 : 1925년

제향일 : 음 3월 初丁日

승절사는 충정공 馬天牧과 장자인 문간공 馬勝을 모시는 사우로 1925년에 창건되었다.

의성일대는 충정공의 장자인 문간공 계열로 6세손인 生海(1518-1577)가 그의 아들 雲宗 등 3형제를 이끌고 1602년 이거함으로서 터전을 마련한 곳이다. 마천목 장군의 장자인 馬勝(1393~)은 곡성군 오지면 당산마을에서 탄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풍채가 단정하며 도량이 크고 재주와 슬기와 뛰어나 마천목 장군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또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평소에도 부모를 극진히 모셨으며 사후에는 시묘 3년을 정성과 공경으로 다하였다 한다(1922년 鄭承鉉 찬, 문간공 행장).

그는 21세 되던 1413년 부친의 공훈을 이어 병조좌랑에 임명된뒤, 1415년에는 춘추관 편수관으로 승진하고 1417년(태종 17)에는 삼공신의 적장자들이 모여 회맹하는 자리에 나가 종묘사직에 충성을 고하기도 하였다. 그후 세종때 상호군 대호군 등의 무반직을 역임하다가 문종 2년 개성유수로 승진하고 단종 2년에는 경주부윤에 이르렀다. 단종이 폐위되고 세조가 즉위한 뒤 전라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왕궁쪽을 바라보고 통곡해 마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에도 세조가 여러번 높은 벼슬에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는데 이는 먼저 섬기던 단종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훗날 세상사람들이 그의 절개를 일컬어 '사육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생육신에는 부끄러울 바가 없다'고 하였다.

1456년(세조 2)에는 5공신 및 자손 회맹에 참여하였고, 1457년에는 승정대부에 승진되고 장흥군에 봉해졌다. 1459년 문간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1463년 71세로 서거하였다. 묘소는 석곡면 방주동 충정공 마천목 장군의 묘 아래에 함께 있다.



송절사(화산서원) 전경

이 승절사(화산서원)가 창건되는 유서는 이 지역에 세거하여온 문간공의 후예들이 충정공의 영정을 봉안하기로 하고 호익·호경이 종손대에 보존된 영정을 이모하여 1855년(철종 6) 사림들의 뜻을 모아 梧川影堂을 건립한데서 비롯된다. 1925년에 개수하면서 승절사라 개칭하고 강당인 소훈당을 신축하였다. 1970년에는 지방유림의 발의로 충정공의 장자인 문간공까지 제향하게 되면서 다시 화산서원으로 이름을 고쳤고, 昭動堂은 6.25를 겪으면서 황폐하여 퇴락할 처지에 있었던 것을 1986년에 27세손 마근갑, 29세손 마숙환, 31세손 마종열 등이 주도하여 昭動堂을 개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우인 崇節祠와 강당인 昭動堂, 鴻休齋, 외삼문인 東明門의 건물이 있다.

(6) 長興 忠顯祠

소재지 : 장흥군 안량면 학송리 600번지

건립년대 : 1831년(순조 31)

제향일 : 陰 9月 9日

충현사의 최초 창건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1840년(헌종 6) 현감 兪星柱가 지은 忠顯祠記에 의하면 원래는 충정공 마천목 장군의 영정을 봉안했던 영당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화재로 인하여 영당은 소실되고 영정만을 보존해 왔는데, 1796년(정조 20)에 도내, 장흥의 유림들이 상응하여 사우 건립을 발의하게 되었고, 당시는 송호와 관산 사이에 사우 건립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처음의 사우 건립논의는 忠靖公 馬天牧과 7세손이자 왜란충절인인 舟村公 馬河秀를 제향하는 것으로 하였던 모양이다. 그것은 이 논의의 중심이 충정공과 함께 왜 마하수를 제향하느냐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추측이 가능하다. 마하수는 선공감 주부로 정유재란에 충무공 이순신을 도와 명량에서 전사한 인물로 그 사실이 『충무공전서』에 기록되어 있다. 즉 당시 유림들은 충정공의 뒤를 이어 주춘

공 마하수가 명량에서 국난을 맞아 충절을 다하였으니 2공의 마음이 같을 것이고, 제봉 고경명 부자의 광주 포충사 사례나 김천일 부자의 나주 경열사 사례를 비추어 2공을 제향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연유가 있었는지는 상세하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 사정으로 사우의 건립을 미쳐 성사시키지 못하다가 35년후 1830년(순조 30) 9월에 다시 문중 여러 종족들이 협심 출력하여 학송리 華蓋山 밑에 사우를 세우고 이듬해에 장흥 유림 安完履·韓命寅 등이 향론을 일으켜 충정공 마천목을 주벽으로 모시고 7세손 주촌공 馬河秀를 배향하고, 뒤이어 9세손 果窩 馬河龍을 추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건물로는 사우와 강당, 내·외삼문이 있었다고 한다. 그후 고종 5년(1868) 다른 서원 사우들과 마찬가지로 훼손을 당하고 광무 6년(1902)에 설단하면서 향론이 일어 충정공의 제2자인 鈞隱 馬月典을 제향하고 춘추로 제향하였다.

1917년에 후손인 重學, 錫欽, 錫珣 등이 발의하여 강당을 증건하였으며 이어 1926



장흥 충현사 전경

년에는 雲河, 輪河 등이 주도하여 사우를 중건하였다. 1971년 내삼문, 1987년 외삼문을 각각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우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 지붕으로 내부에는 충정공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으며, 강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景慕堂' '冠山世庄' 이란 편액이 걸려 있다. 이곳에 마하수의 교지가 보관되어 있고, 마을 입구에는 1944년에 세운 마하수의 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충현사영당중수기 : 1946년 후손 錫珣 찬)

충정공 마천목 장군과 함께 충현사에 제향된 인물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馬月典(1395- ?) : 장흥인으로 자는 厚卿이요 호는 釣隱이다. 충정공 마천목의 제2자로 丹陽員을 역임하고 자헌대부에 가자되었다. 세조 2년(1456)에 咸陽군수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 하였으며 또한 平安道按廉使에 임명되고도 역시 나아가지 아니 하였다. 만년에 장흥부 納陽江上에 은거하면서 성리학 탐구에 전념하였다. 남아 전하는 글로는 戒子銘과 시 南歸詠懷 등 수편이 전한다. 戒子銘의 내용은 “생각하니 내 아버지 충정공께서는 나라에 가장 큰 공훈을 세워 좌명공신의 영광과 높은 벼슬에 올랐으며, 또한 벼슬이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릇은 차면 반드시 넘치는 법이요, 겸양은 더할수록 유익하다’는 진리를 생각하라. 세상이 변하여 새로운 사조가 성하여 견잡을 수 없으니 걱정이다. 너희들은 마음을 돌려 탐욕에서 벗어나고 권세를 피하라. 또 분에 넘치는 부귀는 상서롭지 못한 것이니 오직 학문에 힘써서 높은 벼슬을 하되 뒤집히는 욕됨이 없게 하라 이를 너희들의 글방 좌우명으로 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자손들에게 부귀와 권세를 탐하지 말라고 훈계하고 있다.

이 가계에서는 馬河秀로 대표되는 충절인물들이 배출되었고, 현재 장

홍 충현사에 충정공 마천목 장군과 이 가계에서 배출한 인물들이 제향되고 있다.

② 馬河秀(1538-1597) : 충정공 마천목의 7세손으로 자는 先天이요, 호는 舟村이며 副司直 麟瑞의 아들로 중종 33년(1538)에 장흥 주암촌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기개가 남달라 무릇 여러 아이들 중에서 단연 빼어났다. 南溪 金胤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학업이 이루었는데, 스승 남계는 후일 대성할 재목이라고 늘상 말하였다 한다.

명종 19년(1564)에 별시무과에 급제하여 선조 18년(1585)에 선공감 주부가 되었으나 곧바로 사직하고 집에 돌아와 부모를 봉양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공은 분개하여 사생결단으로 왕을 섬기고자 하였으나 노친을 모신터라 대신 아들 爲龍을 선산군수 丁景達(장흥사람이다)에게 보내 의병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선조 28년(1595)에 장흥군수 裋興立이 항병을 이끌고 토적코저 공에게 부장을 청하였으나 노친이 계시므로 사양하니 아버지 사직공이 이르기를 “君父는 일체니 오직 나라에 충성함은 그 어버이의 영예라” 하고 쾌히 허락하였다.

장자 成龍으로 사직공을 받들어 병란을 피하게 하였지만, 적에게 피살되는 불운을 당하자 복수를 맹세하고 정유재란(1597)에 이충무공과 회령포에서 만나 적을 토벌할 계책을 협의하고 같은 고을 사람들인 松湖 白振南, 霽巖 鄭鳴說, 休庵 文英凱 등 10여 인과 더불어 鄉船을 모아 왜적과 싸웠고, 명량해전에서 또한 향선을 거느리고 항전하다가 이충무공이 적에게 포위됨을 바라보고, 두 아들 성룡, 위룡 등 3부자가 함께 돌격 적진하다가 순절하였다.

③ 馬贊龍(1691~1744):충정공 마천목의 9세손으로 한성부 左尹과 楊武原從功臣 錄卷 1等功臣으로 기록되었다.(중앙도서관 소장)

④馬河龍(1697-1783) : 충정공 마천목의 9세손으로 자는 澄瑞요, 호는 果窩이며, 之綱의 아들로 숙종 23년(1697)에 강진 구상리에서 태어났다. 陶庵 李絳 문하에서 취학하여 과거시험보다는 오로지 爲己之學에 전념하여 문학과 行誼로 세상에 알려졌다. 漢湖 金元行, 雷淵 南有容 등과 더불어 도의지교를 맺고 일찍이 장흥 가지사에서 후학들을 강학하였는데, 거처하는 室의 서재이름을 果窩라 하였다.

(7) 康津 忠靖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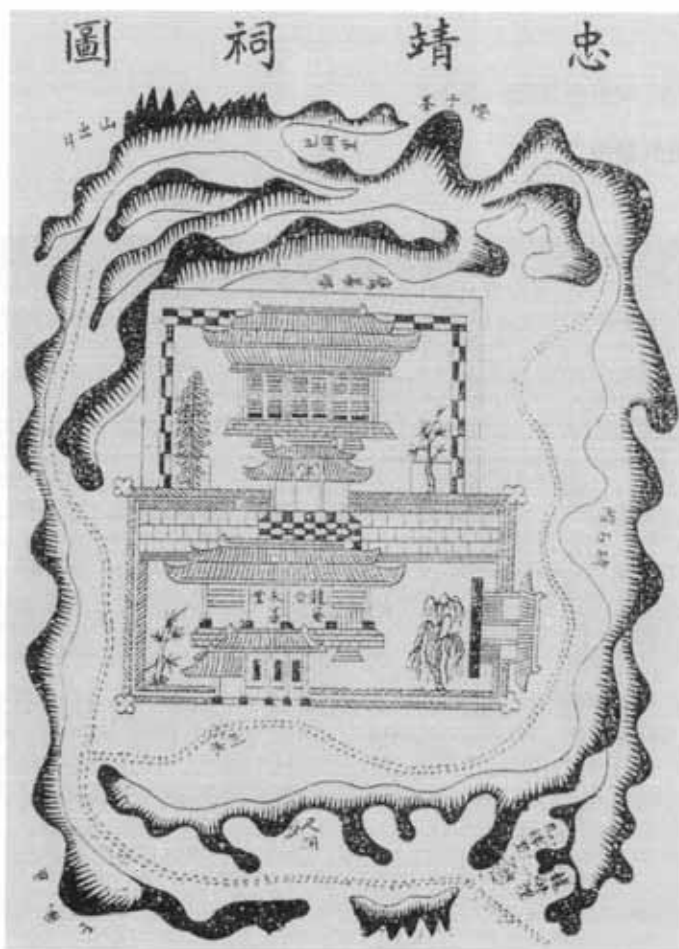
소재지 : 강진군 작천면 석동 내곡

창건년대 : 1856년(철종 7)



강진 충정사 전경

강진 충정사는 마천목 장군의 후예이면서 같은 충절로 이름을 날렸던 馬應房(1524-1597)과 馬應井(1532-1597)을 제향하는 사우이다. 원래 이 사우는 영당으로 건립되었던 것으로, 이 사실은 후손 奎祿이 찬한 [충정사사실기]에서 밝혀진다. 즉 1854년(철종 5)에 종중회의로 충정공의 영정을 모사하여 후손들이 세거하고 충정공의 유서가 서려있는 강진 땅 척동에 봉안하기로 하면서 영당을 건립하게 되었다 한다(기우만 찬, 충정공 영당기). 당시 영정을 봉안하였던 영당 건물은 용암 마옹방이 평일 후학들을 강학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충정공의 신실로는 협소하고 미안하여 3년 뒤인 1856년 정월 25일 후손



강진 충정사도

과 사람들이 힘을 합쳐 사우로 새롭게 건립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일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충정공의 후손이자 강진 출신인 용암 마응방의 충절도 다시 되새겨져 함께 제향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용암 마응방의 충절을 기리려는 강진 유생들의 노력은 이미 1806년(순조 6) 호남사람들이 상언하여 좌승지의 증직을 받고, 1809년에는 다시 이조참판으로 증직되며 1829년에는 충신의 정려를 하사받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830년에는 도내 유림들이 사우의 건립을 駕前上疏로 청원하였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이러한 충정공 영정의 봉안과 때를 맞추어 다시한번 재론되어 충정공과 용암 마응방을 함께 병향하자는 논의가 구체화되어 이때에 마응정·마응방을 함께 제향하는 사우로 발전되게 되었다.

충정사에는 사우인 충정사와 강당인 영모당, 내·외삼문이 있다.

馬應房(1524-1597)과 그의 종제인 馬應井(1532-1597)은 타고난 문무의 재능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노령으로 참전하여 순절한 인물들로 간략하게 행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馬應房(1524-1597) : 충정공 마천목장군의 후손으로 참봉 希禎의 아들로 강진에서 태어났다. 자는 精叔, 호는 龍菴이라 하였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고 명종 4년(1549)에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1566년(명종 21) 문학 효렴으로 천거되어 1567년에는 진안현감, 1569년에는 홍덕현감으로 임명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 남원성이 적에게 포위되자 종제인 마응정과 함께 병사 이복남에게 이르기를 “전세가 기울고 힘이 없으니 살아서 나라에 보답하지 못할진대 죽어 마땅히 원귀가 되어서라도 적을 섬멸하겠소”라 하고 적진에 돌진하여 수십 명의 적을 참살하고 적탄에 맞아 순절하였다. 이복남 병사가 이르기를 “이 노인이 노익장의 기개를 지녔다”고 하였다. 순조 6년(1806) 호남 유림들이 상언하여 좌승지에 증직되었고, 1809년에는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1829년에는 충신명정을 받았다.

후에 남원 충열사와 강진 충정사에 배향되었다.

② 馬應井(1532-1597) : 충정공 마천목장군의 후손으로 希祥의 아들이며 마응방의 종제이다. 강진에서 태어났다. 자는 奎甫, 호는 雲菴이다. 공은 절개가 굳고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정유왜란에 가동들과 의병을 인솔하고 종형 마응방과 남원에 가서 성을 방어하다가 순절하였다 순조 7년(1807) 좌참찬에 증직되었고 강진 충정사에 배향되었다.

(8) 清原 忠靖祠

소재지 : 충북 청원군 오창면 농소리

건립년대 : 1940년



충정사 전경

이 사우는 충정공의 영정을 모신 영당으로, 1940년에 영정을 봉안하고 문간공의 증손 익해의 후손들이 매년 제향하고 있다. 경내에는 김용한 찬의 신도비(崔麟燮 글씨)가 있고,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忠靖公 馬天牧將軍

1998년 12월10일 인쇄

1998년 12월26일 발행

발행처: 곡 성 문 화 원

발행인: 김 학 근

인쇄처: 청 진 문 화 사

(062)223-4346
